

발 간 등 록 번 호

11-1790387-000033-10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



질병관리청
KDCA

CONTENTS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



연보설명

01



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04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04
2023년~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08
지역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10



I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연수

48

의료기관 종류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연수 분포	48
지역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연수 분포	5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분류별 사용 연수 분포	52



부록

70

국·내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동향	70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촬영실 방어시설 구조도 예시	74



참고문헌

82

연보설명

본 연보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진방규칙) 제16조(지도·감독)제4항에 따라 시·군·구에서 제출한 2025년 3월 31일 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과 사용 연수를 파악하여 수록한 보고서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진방규칙」 제2조(정의)에 따라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로 분류한다. 그리고, 분류별 장치는 용도에 따라 진단용 엑스선 장치는 일반용, 일반 및 투시용, 혈관조영용, 투시(C-arm 및 쇄석기)용으로 구분,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는 일반용, 구내용, 투시(C-arm 및 쇄석기)용, 골밀도용으로 구분,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구내용, 파노라마 및 세팔로용으로 구분,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전산용,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부위한정용, PET-CT용으로 구분된다.

연보에서는 장치 분류별, 용도별,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연수 분포를 5년 이하, 6년 이상~10년 이하, 11년 이상~15년 이하, 16년 이상~20년 이하, 21년 이상 및 연수가 확인이 안 되는 장치는 연수 미상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분류별, 용도별, 의료기관 종류별 연수 분포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국·내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동향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촬영실 방어시설 구조도 예시를 수록하였으며, 향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관련한 정보를 점차 추가할 예정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는 2026년 질병관리청에서 처음 발행하는 보고서이며, 이번 연보 발간을 시작으로 국민들에게 최신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현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발간할 예정이다.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



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분류별 설치 현황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총 45,386개 의료기관에 110,73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종합병원 389개(0.9%) 기관에 9,859대(8.9%), 병원 1,665개(3.7%) 기관에 8,246대(7.4%), 의원 19,611개(43.2%) 기관에 38,485대(34.8%), 치과 병·의원 20,671개(45.5%) 기관에 48,912대(44.2%), 기타 3,050개(6.7%) 기관에 5,234대(4.7%)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장치 분류별로는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가 35,512대(32.1%)로 가장 많았고, 진단용 엑스선 장치 25,546대(23.1%),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23,302대(21.0%),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21,992대(19.9%), 유방촬영용 장치 4,384대(4.0%) 순이었다.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유방촬영용 장치는 의료기관 중 의원의 설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치과 병·의원이 가장 높았다.

〈 표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분류별 및 의료기관 종류별 설치 현황 〉

구분	전체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합계	110,736	(100)	9,859	(8.9)	8,246	(7.4)	38,485	(34.8)	48,912	(44.2)	5,234	(4.7)
	(100)		(8.9)		(7.4)		(34.8)		(44.2)		(4.7)	
진단용 엑스선 장치	25,546	(23.1)	4,724	(4.3)	2,850	(2.6)	15,185	(13.7)	16	(0.0)	2,771	(2.5)
	(23.1)		(4.3)		(2.6)		(13.7)		(0.0)		(2.5)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35,512	(32.1)	2,670	(2.4)	3,578	(3.2)	17,691	(16.0)	10,064	(9.1)	1,509	(1.4)
	(32.1)		(2.4)		(3.2)		(16.0)		(9.1)		(1.4)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23,302	(21.0)	426	(0.4)	81	(0.1)	151	(0.1)	21,888	(19.8)	756	(0.7)
	(21.0)		(0.4)		(0.1)		(0.1)		(19.8)		(0.7)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21,992	(19.9)	1,458	(1.3)	994	(0.9)	2,460	(2.2)	16,943	(15.3)	137	(0.1)
	(19.9)		(1.3)		(0.9)		(2.2)		(15.3)		(0.1)	
유방촬영용 장치	4,384	(4.0)	581	(0.5)	743	(0.7)	2,998	(2.7)	1	(0.0)	61	(0.1)
	(4.0)		(0.5)		(0.7)		(2.7)		(0.0)		(0.1)	
의료기관	45,386	(100)	389	(0.9)	1,665	(3.7)	19,611	(43.2)	20,671	(45.5)	3,050	(6.7)
개소당 설치대수	2.4		25.3		4.9		1.9		2.4		1.7	

* 기타: 보건기관, 보건의료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결핵검진기관 및 학생검진기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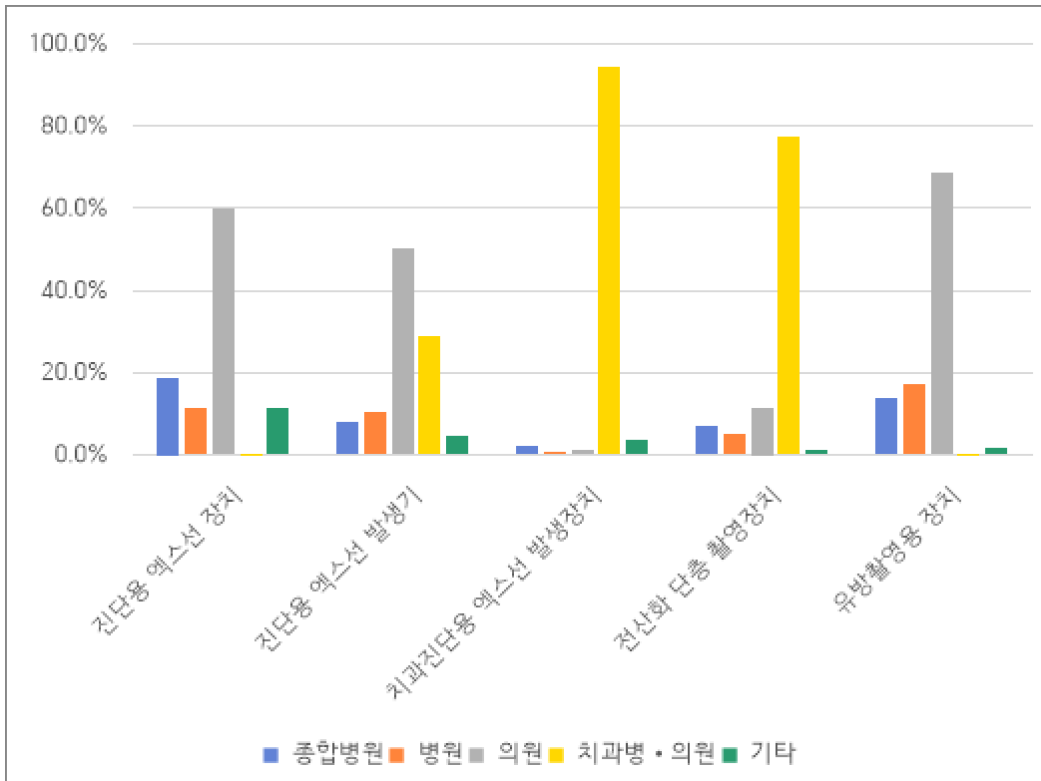


그림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분류별 설치 비율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대수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가 22,317대(20.2%)로 가장 많았고,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치과 및 이비인후과 장치가 18,886대(17.1%)로 그다음이었으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가 18,164대(16.4%),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골밀도 장치 11,198대(10.1%), 구내 장치 10,393대(9.4%), 투시(C-arm 및 쇄석기) 9,270대(8.4%) 등 순이었다.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용도는 일반, 일반 및 투시, 혈관조영, 투시(C-arm 및 쇄석기) 장치로 구분되며, 이중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14,010대(62.8%), 868대(52.2%)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투시(C-arm 및 쇄석기) 장치는 종합병원이 774대(95.1%) 및 330대(43.9%)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용도는 일반, 구내, 투시(C-arm 및 쇄석기), 골밀도 장치로 구분되며, 이 중 일반, 투시(C-arm 및 쇄석기), 골밀도 장치는 의원이 각각 2,897대(62.3%), 5,678대(61.3%), 9,091대(81.2%)로 가장 많았고, 구내 장치는 치과 병·의원이 9,986대(96.1%)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용도는 구내, 파노라마 및 세팔로 장치로 구분되며, 모두 치과 병·의원이 각각 17,048대(93.9%), 4,840대(9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용도는 전신, 치과 및 이비인후과, 부위 한정, PET-CT 장치로 구분된다. 이중 전신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PET-CT 장치는 종합병원이 각각 1,053대(39.6%), 160대(90.4%)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치과 병·의원이 16,940대(89.7%)로 가장 많았으며, 부위한정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의원이 220대(82.4%)로 가장 많았다.

유방촬영용 장치는 의원이 2,998대(68.4%)로 가장 높았고, 병원이 743대(16.9%), 종합병원 581대(13.3%) 등의 순서였다.

〈 표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

구분		전체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합계		110,736 (100)	(100)	9,859 (8.9)	(8.9)	8,246 (7.4)	(7.4)	38,485 (34.8)	(34.8)	48,912 (44.2)	(44.2)	5,234 (4.7)	(4.7)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22,317 (20.2)	(100)	3,227 (2.9)	(14.5)	2,428 (2.2)	(10.9)	14,010 (12.7)	(62.8)	16 (0.01)	(0.1)	2,636 (2.4)	(11.8)
	일반 및 투시	1,663 (1.5)	(100)	393 (0.4)	(23.6)	272 (0.2)	(16.4)	868 (0.8)	(52.2)	- -	-	130 (0.1)	(7.8)
	혈관조영	814 (0.7)	(100)	774 (0.7)	(95.1)	9 (0.01)	(1.1)	31 (0.03)	(3.8)	- -	-	- -	-
	투시(C-arm 및 섹식기)	752 (0.7)	(100)	330 (0.3)	(43.9)	141 (0.1)	(18.8)	276 (0.2)	(36.7)	- -	-	5 (0.005)	(0.7)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4,651 (4.2)	(100)	452 (0.4)	(9.7)	474 (0.4)	(10.2)	2,897 (2.6)	(62.3)	5 (0.05)	(0.1)	823 (0.7)	(17.7)
	구내	10,393 (9.4)	(100)	150 (0.1)	(1.4)	40 (0.04)	(0.4)	25 (0.02)	(0.2)	9,986 (9.0)	(96.1)	192 (0.2)	(1.8)
	투시(C-arm 및 섹식기)	9,270 (8.4)	(100)	1,485 (1.3)	(16.0)	1,928 (1.7)	(20.8)	5,678 (5.1)	(61.3)	67 (0.1)	(0.7)	112 (0.1)	(1.2)
	골밀도	11,198 (10.1)	(100)	583 (0.5)	(5.2)	1,136 (1.0)	(10.1)	9,091 (8.2)	(81.2)	6 (0.01)	(0.1)	382 (0.3)	(3.4)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18,164 (16.4)	(100)	293 (0.3)	(1.6)	58 (0.1)	(0.3)	80 (0.1)	(0.4)	17,048 (15.4)	(93.9)	685 (0.6)	(3.8)
	파노라마 및 세팔로	5,138 (4.6)	(100)	133 (0.1)	(2.6)	23 (0.04)	(0.4)	71 (0.1)	(1.4)	4,840 (4.4)	(94.2)	71 (0.1)	(1.4)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2,662 (2.4)	(100)	1,053 (1.0)	(39.6)	875 (0.8)	(32.9)	671 (0.6)	(25.2)	3 (0.003)	(0.1)	60 (0.1)	(2.3)
	치과 및 이비인후과	18,886 (17.1)	(100)	234 (0.2)	(1.2)	81 (0.1)	(0.4)	1,554 (1.4)	(8.2)	16,940 (15.3)	(89.7)	77 (0.1)	(0.4)
	부위한정	267 (0.2)	(100)	11 (0.0)	(4.1)	36 (0.03)	(13.5)	220 (0.2)	(82.4)	- -	-	- -	-
	PET-CT	177 (0.2)	(100)	160 (0.1)	(90.4)	2 (0.002)	(1.1)	15 (0.01)	(8.5)	- -	-	- -	-
유방촬영용 장치		4,384 (4.0)	(100)	581 (0.5)	(13.3)	743 (0.7)	(16.9)	2,998 (2.7)	(68.4)	1 (0.001)	(0.02)	61 (0.1)	(1.4)



2023년~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2023년~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2023년 104,953대, 2024년 107,912대, 2025년 110,736대로 연 평균 2.7% 증가하였으며, 인구 1,000명당 2023년은 2.03대, 2024년은 2.09대, 2025년은 2.14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진단용 엑스선 장치는 2023년 22,519대(인구 1,000명당 0.44대), 2024년 23,046대(인구 1,000명당 0.45대), 2025년 25,546대(인구 1,000명당 0.49대)로 연 평균 6.5% 증가,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는 2023년 34,960대(인구 1,000명당 0.68대), 2024년 36,325대(인구 1,000명당 0.70대), 2025년 35,512대(인구 1,000명당 0.69대)로 연 평균 0.8% 증가,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2023년 23,664대(인구 1,000명당 0.46대), 2024년 23,379대(인구 1,000명당 0.45대), 2025년 23,302대(인구 1,000명당 0.45대)로 연 평균 0.8% 감소,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2023년 19,752대(인구 1,000명당 0.38대), 2024년 20,952대(인구 1,000명당 0.40대), 2025년 21,992대(인구 1,000명당 0.43대)로 연 평균 5.5% 증가, 유방촬영용 장치는 2023년 4,058대(인구 1,000명당 0.08대), 2024년 4,210대(인구 1,000명당 0.08대), 2025년 4,384대(인구 1,000명당 0.08대)로 연 평균 3.9% 증가하였다.

표 3. 2023년~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1,000명당	합계	1,000명당	합계	1,000명당
합 계	104,953	2.03	107,912	2.09	110,736	2.14
진단용 엑스선 장치	22,519	0.44	23,046	0.45	25,546	0.49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34,960	0.68	36,325	0.70	35,512	0.69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23,664	0.46	23,379	0.45	23,302	0.45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19,752	0.38	20,952	0.40	21,992	0.43
유방촬영용 장치	4,058	0.08	4,210	0.08	4,384	0.08

※ 인구: 2023년 51,712,619명, 2024년 51,751,065명, 2025년 51,684,564명 (국가통계포털, '26년 6월 1일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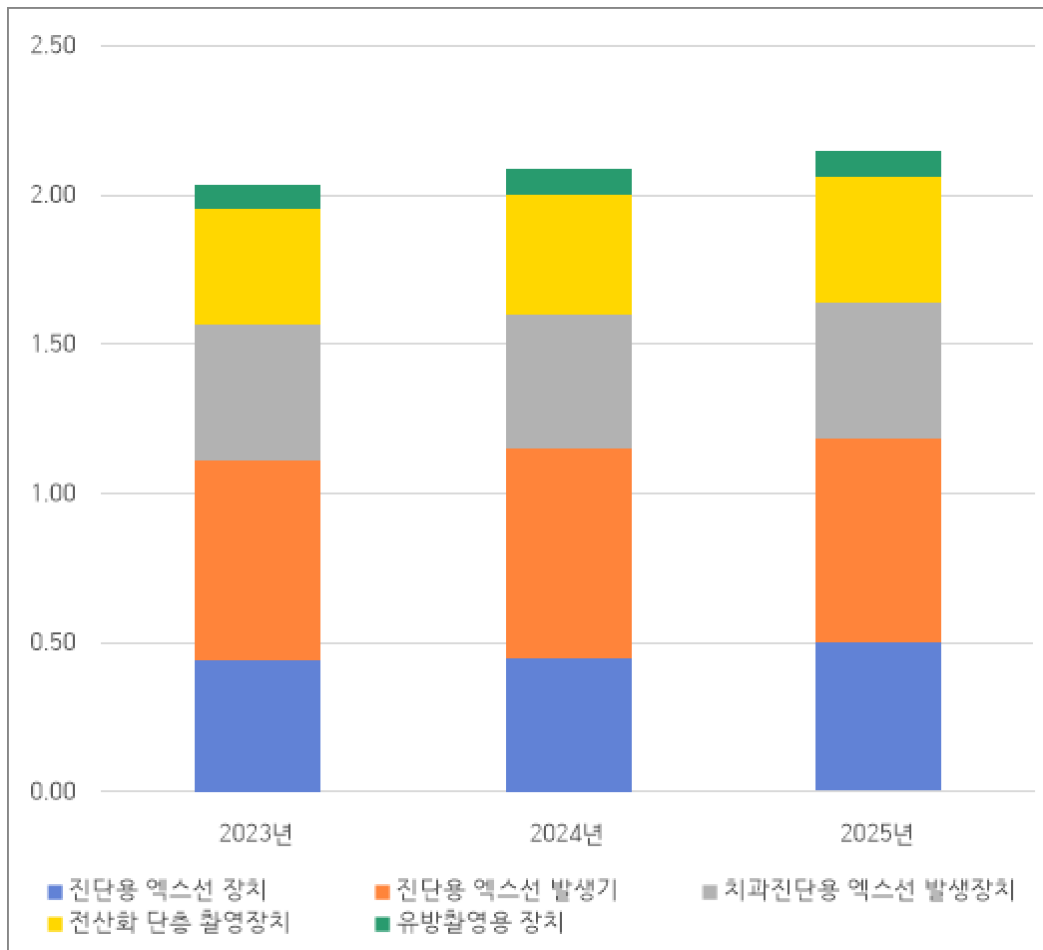


그림 3. 2023년~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인구 1,000명당)

② 지역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1) 지역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의료기관 및 장치 현황 분포

지역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의료기관 현황은 서울과 경기도 각각 10,473개(23.1%), 10,938개(24.1%)로 전체 47.2%를 차지하였고, 부산 3,161개(7.0%), 경남 2,363개(5.2%), 인천 2,349개(5.2%), 대구 2,332개(5.1%) 등 순이었으며, 제주 570개(1.3%), 세종 274개(0.6%)로 가장 적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또한 서울과 경기도 각각 24,808대(22.4%), 26,800대(24.2%)로 전체 46.6%를 차지하였고, 부산 7,792대(7.0%), 경남 5,943대(5.4%), 대구 5,747대(5.2%), 인천 5,727대(5.2%) 등 순이었으며, 제주 1,387대(1.3%), 세종 639대(0.6%)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의료기관의 종류별 비율은 종합병원의 경우 인천(1.0%), 광주(1.5%), 울산(1.1%), 강원(1.4%), 충북(1.0%), 전남(1.8%), 경북(1.1%), 경남(1.2%), 제주(1.2%)가 전국 비율 0.9%보다 높았고, 병원은 부산(5.4%), 대구(4.4%), 광주(5.8%), 대전(3.7%), 울산(4.4%), 강원(3.7%), 충남(3.7%), 전북(4.2%), 전남(5.4%), 경남(6.6%)이 전국 비율 3.7%보다 높았다. 의원은 서울(43.2%), 대구(47.6%), 인천(44.3%), 대전(43.4%), 세종(52.2%), 경기(43.5%), 강원(44.5%), 충북(45.8%), 충남(44.7%), 전북(45.0%), 경북(46.1%), 제주(47.9%)가 전국 비율 43.2%보다 높았고, 치과 병·의원은 서울(51.4%), 부산(46.2%), 대전(46.3%), 울산(49.4%), 경기(47.0%)가 전국 비율 45.5%보다 높았다.

표 4. 지역·의료기관 종류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기관 및 장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합계	기관	45,386	100	389	0.9	1,665	3.7	19,611	43.2	20,671	45.5	3,050	6.7
	장치	110,736	100	9,859	8.9	8,246	7.4	38,485	34.8	48,912	44.2	5,234	4.7
서울	기관	10,473	23.1	60	0.6	254	2.4	4,525	43.2	5,382	51.4	252	2.4
	장치	24,808	22.4	2,022	8.2	1,406	5.7	8,712	35.1	12,152	49.0	516	2.1
부산	기관	3,161	7.0	29	0.9	171	5.4	1,280	40.5	1,459	46.2	222	7.0
	장치	7,792	7.0	768	9.9	752	9.7	2,529	32.5	3,409	43.8	334	4.3
대구	기관	2,332	5.1	19	0.8	103	4.4	1,110	47.6	975	41.8	125	5.4
	장치	5,747	5.2	516	9.0	478	8.3	2,249	39.1	2,279	39.7	225	3.9
인천	기관	2,349	5.2	23	1.0	74	3.2	1,040	44.3	1,040	44.3	172	7.3
	장치	5,727	5.2	520	9.1	371	6.5	2,061	36.0	2,493	43.5	282	4.9
광주	기관	1,618	3.6	25	1.5	94	5.8	617	38.1	716	44.3	166	10.3
	장치	3,902	3.5	408	10.5	347	8.9	1,191	30.5	1,726	44.2	230	5.9
대전	기관	1,301	2.9	10	0.8	48	3.7	564	43.4	602	46.3	77	5.9
	장치	3,225	2.9	331	10.3	235	7.3	1,130	35.0	1,413	43.8	116	3.6
울산	기관	832	1.8	9	1.1	37	4.4	320	38.5	411	49.4	55	6.6
	장치	2,080	1.9	228	11.0	146	7.0	623	30.0	994	47.8	89	4.3
세종	기관	274	0.6	2	0.7	4	1.5	143	52.2	105	38.3	20	7.3
	장치	639	0.6	45	7.0	12	1.9	279	43.7	274	42.9	29	4.5
경기	기관	10,938	24.1	74	0.7	349	3.2	4,753	43.5	5,140	47.0	622	5.7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강원	장치	26,800	24.2	2,093	7.8	1,875	7.0	9,481	35.4	12,253	45.7	1,098	4.1
	기관	1,152	2.5	16	1.4	43	3.7	513	44.5	474	41.1	106	9.2
	장치	3,015	2.7	332	11.0	247	8.2	1,032	34.2	1,179	39.1	225	7.5
충북	기관	1,239	2.7	13	1.0	45	3.6	567	45.8	503	40.6	111	9.0
	장치	3,119	2.8	324	10.4	239	7.7	1,158	37.1	1,189	38.1	209	6.7
충남	기관	1,668	3.7	13	0.8	61	3.7	746	44.7	676	40.5	172	10.3
	장치	4,030	3.6	313	7.8	309	7.7	1,439	35.7	1,675	41.6	294	7.3
전북	기관	1,656	3.6	14	0.8	70	4.2	746	45.0	643	38.8	183	11.1
	장치	4,126	3.7	369	8.9	321	7.8	1,464	35.5	1,658	40.2	314	7.6
전남	기관	1,498	3.3	27	1.8	81	5.4	617	41.2	551	36.8	222	14.8
	장치	3,691	3.3	399	10.8	419	11.4	1,137	30.8	1,379	37.4	357	9.7
경북	기관	1,962	4.3	21	1.1	66	3.4	904	46.1	739	37.7	232	11.8
	장치	4,705	4.2	472	10.0	305	6.5	1,726	36.7	1,812	38.5	390	8.3
경남	기관	2,363	5.2	27	1.1	156	6.6	893	37.8	1,002	42.4	285	12.1
	장치	5,943	5.4	570	9.6	746	12.6	1,742	29.3	2,414	40.6	471	7.9
제주	기관	570	1.3	7	1.2	9	1.6	273	47.9	253	44.4	28	4.9
	장치	1,387	1.3	149	10.7	38	2.7	532	38.4	613	44.2	55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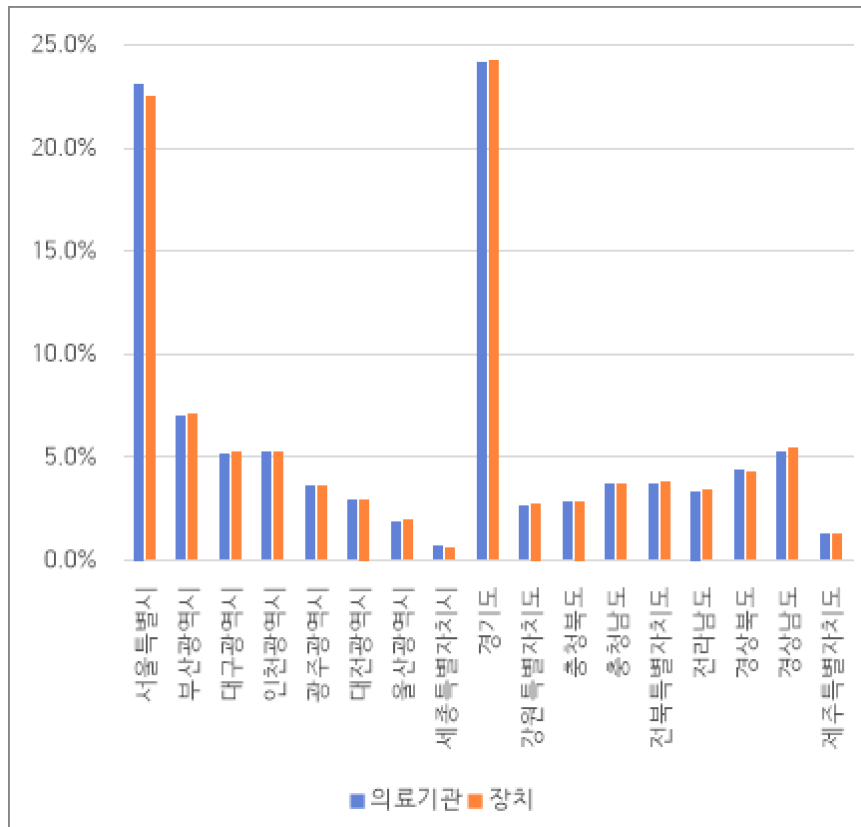


그림 4. 지역·의료기관 종류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기관 및 장치 현황 비율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4,278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345대, 혈관조영 장치는 213대,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는 170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70.3%(3,009대), 56.8%(196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 및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는 종합병원이 각각 94.8%(202대), 45.9%(78대)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1,033대, 구내 장치는 2,589대,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는 2,128대, 골밀도 장치는 1,955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75.3%(778대),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 67.2%(1,430대), 골밀도 장치 82.5%(1,613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4,293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1,508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97.4%(4,182대), 94.2%(1,421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517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4,659대, 부위 한정용 CT는 84대, PET-CT는 57대이며, 전신용 CT와 PET-CT는 종합병원이 각각 47.8%(247대), 86.0%(49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85.7%(3,992대), 부위 한정용 CT는 의원이 75.0%(63대)로 가장 많았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76.3%(747대)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12.5%(122대), 병원급이 10.7%(105대)이었다.

표 5. 서울특별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4,278	17.2	637	14.9	386	9.0	3,009	70.3	5	0.1	241	5.6
	일반 및 투시	345	1.4	92	26.7	41	11.9	196	56.8	-	-	16	4.6
	혈관조영	213	0.9	202	94.8	4	1.9	7	3.3	-	-	-	-
	투시(C-arm 및 섀석기)	170	0.7	78	45.9	30	17.6	62	36.5	-	-	-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1,033	4.2	54	5.2	65	6.3	778	75.3	2	0.2	134	13.0
	구내	2,589	10.4	22	0.8	13	0.5	8	0.3	2,535	97.9	11	0.4
	투시(C-arm 및 섀석기)	2,128	8.6	276	13.0	400	18.8	1,430	67.2	12	0.6	10	0.5
	골밀도	1,955	7.9	110	5.6	186	9.5	1,613	82.5	1	0.1	45	2.3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4,293	17.3	50	1.2	15	0.3	18	0.4	4,182	97.4	28	0.7
	파노라마 및 세팔로	1,508	6.1	39	2.6	6	0.4	27	1.8	1,421	94.2	15	1.0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517	2.1	247	47.8	118	22.8	145	28.0	2	0.4	5	1.0
	치과 및 이비인후과	4,659	18.8	37	0.8	23	0.5	601	12.9	3,992	85.7	6	0.1
	부위 한정	84	0.3	7	8.3	14	16.7	63	75.0	-	-	-	-
	PET-CT	57	0.2	49	86.0	-	-	8	14.0	-	-	-	-
유방촬영용 장치		979	3.9	122	12.5	105	10.7	747	76.3	-	-	5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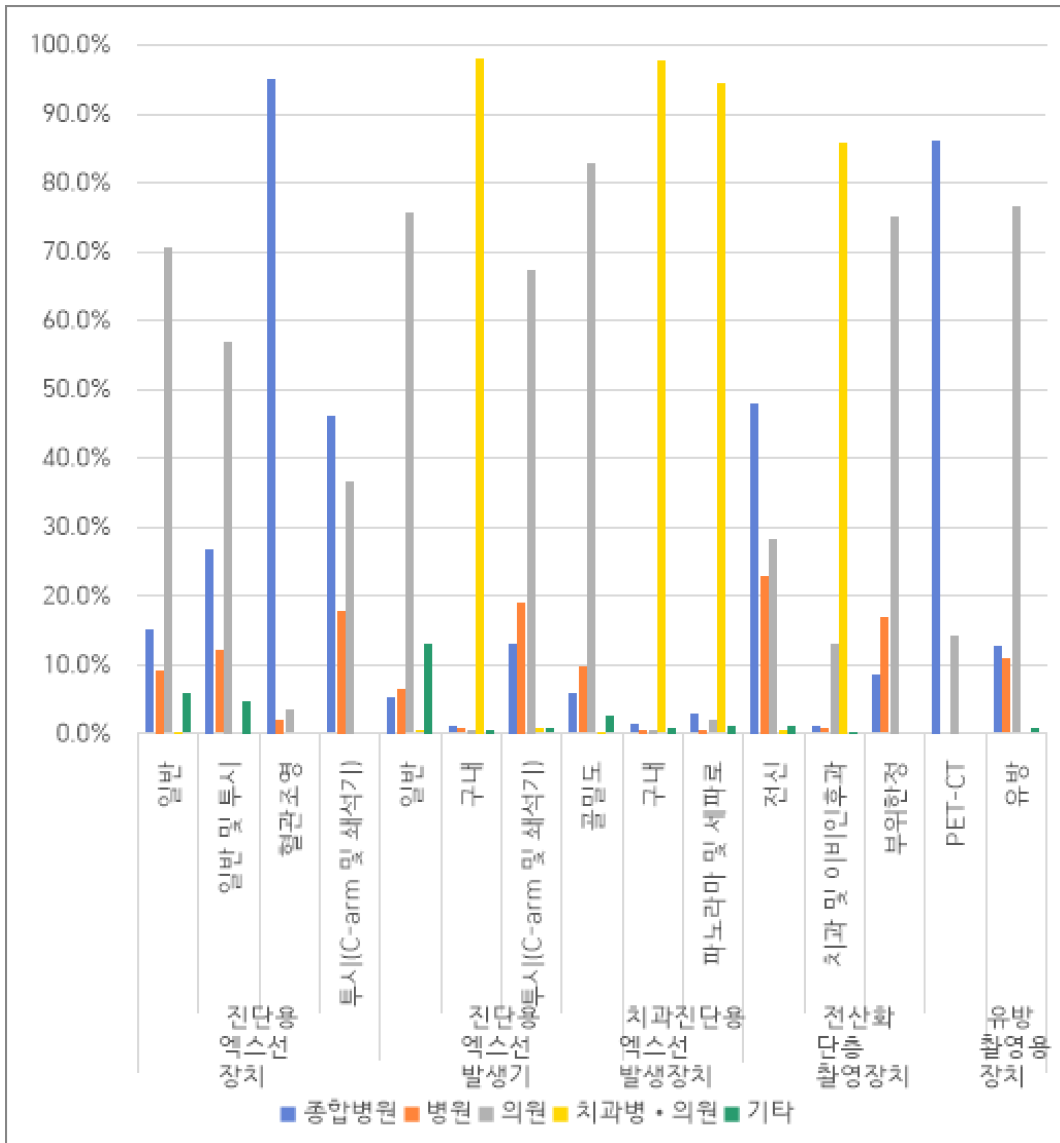


그림 5. 서울특별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1,642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146대, 혈관조영 장치는 70대, 투시(C-arm 및 섹식기) 장치는 41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58.4%(959대), 44.5%(65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 및 투시(C-arm 및 섹식기) 장치는 종합병원이 각각 91.4%(64대), 46.3%(19대)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236대, 구내 장치는 705대, 투시(C-arm 및 섹식기) 장치는 668대, 골밀도 장치는 804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54.2%(128대), 투시(C-arm 및 섹식기) 장치 55.8%(373대), 골밀도 장치 76.7%(617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1,212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305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95.7%(1,160대), 94.4%(288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196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1,394대, 부위 한정용 CT는 17대, PET-CT는 20대이며, 전신용 CT는 병원이 40.3%(79대), PET-CT는 종합병원이 85.0%(17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91.1%(1,270대), 부위 한정용 CT는 의원이 94.1%(16대)로 가장 많았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62.2%(209대)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23.2%(78대), 종합병원이 12.5%(42대)이었다.

표 6. 부산광역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1,642	21.1	237	14.4	234	14.3	959	58.4	1	0.1	211	12.9
	일반 및 투시	146	1.9	35	24.0	34	23.3	65	44.5	-	-	12	8.2
	혈관조영	70	0.9	64	91.4	1	1.4	5	7.1	-	-	-	-
	투시(C-arm 및 섹식기)	41	0.5	19	46.3	5	12.2	17	41.5	-	-	-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236	3.0	28	11.9	36	15.3	128	54.2	-	-	44	18.6
	구내	705	9.0	15	2.1	3	0.4	1	0.1	686	97.3	-	-
	투시(C-arm 및 섹식기)	668	8.6	125	18.7	161	24.1	373	55.8	3	0.4	6	0.9
	골밀도	804	10.3	46	5.7	115	14.3	617	76.7	1	0.1	25	3.1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1,212	15.6	32	2.6	1	0.1	1	0.1	1,160	95.7	18	1.5
	파노라마 및 세팔로	305	3.9	10	3.3	-	-	4	1.3	288	94.4	3	1.0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196	2.5	77	39.3	79	40.3	38	19.4	-	-	2	1.0
	치과 및 이비인후과	1,394	17.9	21	1.5	3	0.2	94	6.7	1,270	91.1	6	0.4
	부위 한정	17	0.2	-	-	1	5.9	16	94.1	-	-	-	-
	PET-CT	20	0.3	17	85.0	1	5.0	2	10.0	-	-	-	-
유방촬영용 장치		336	4.3	42	12.5	78	23.2	209	62.2	-	-	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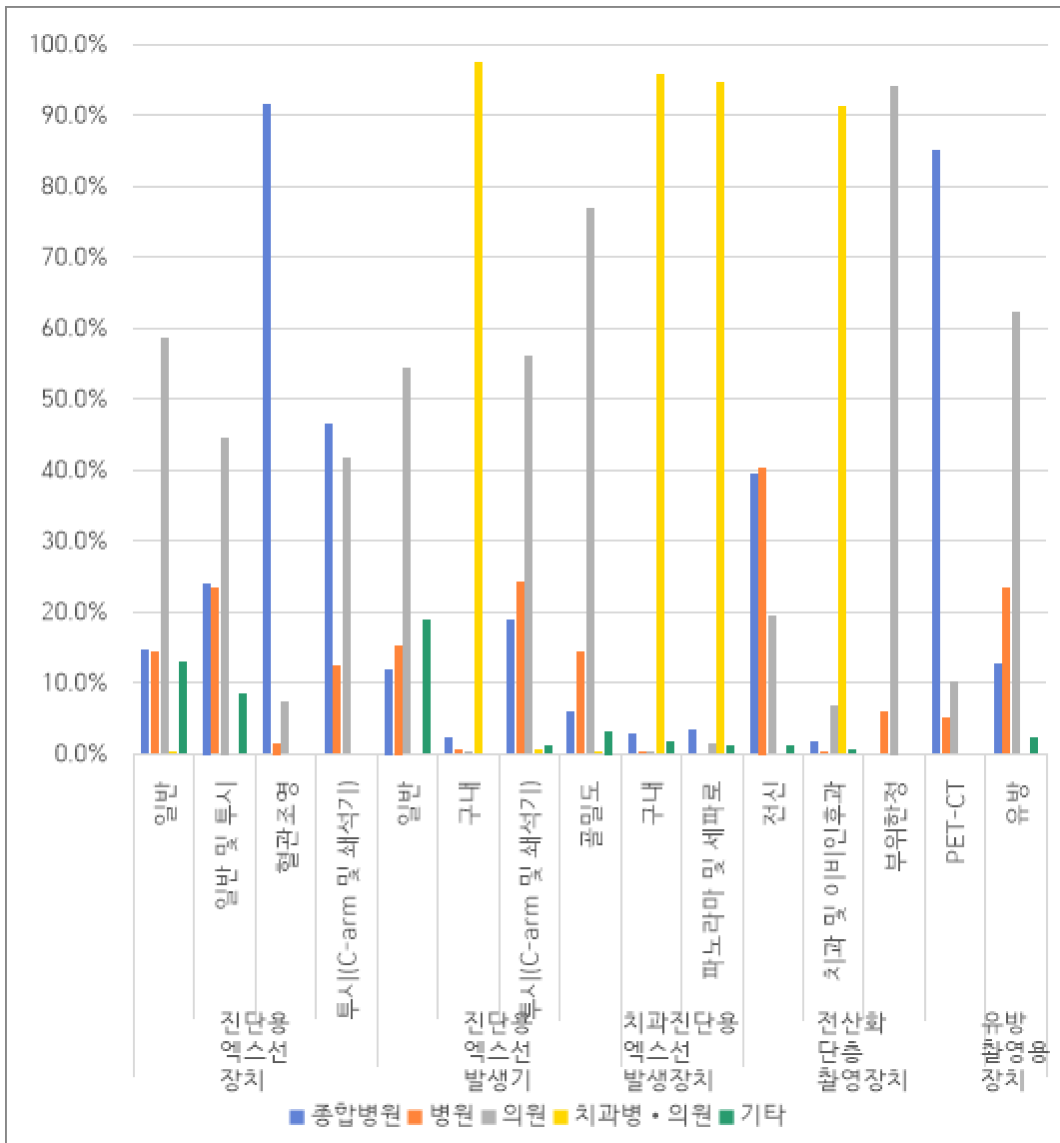


그림 6. 부산광역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1,319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82대, 혈관조영 장치는 49대, 투시(C-arm 및 섹식기) 장치는 44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67.4%(884대), 51.2%(42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는 종합병원이 93.9%(46대), 투시(C-arm 및 섹식기) 장치는 의원이 63.6%(28대)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144대, 구내 장치는 321대, 투시(C-arm 및 섹식기) 장치는 540대, 골밀도 장치는 737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42.4%(61대), 투시(C-arm 및 섹식기) 장치 60.2%(325대), 골밀도 장치 84.7%(624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964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200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97.4%(939대), 96.0%(192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169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921대, 부위 한정용 CT는 11대, PET-CT는 12대이며, 전신용 CT 및 PET-CT는 종합병원이 각각 36.1%(61대), 91.7%(11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91.1%(839대), 부위 한정용 CT는 의원이 63.6%(7대)로 가장 많았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65.4%(153대)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20.9%(49대), 종합병원이 12.0%(28대)이었다.

표 7. 대구광역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1,319	23.0	173	13.1	129	9.8	884	67.0	1	0.1	132	10.0
	일반 및 투시	82	1.4	20	24.4	17	20.7	42	51.2	-	-	3	3.7
	혈관조영	49	0.9	46	93.9	1	2.0	2	4.1	-	-	-	-
	투시(C-arm 및 섹식기)	44	0.8	7	15.9	7	15.9	28	63.6	-	-	2	4.5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144	2.5	21	14.6	31	21.5	61	42.4	-	-	31	21.5
	구내	321	5.6	5	1.6	1	0.3	4	1.2	307	95.6	4	1.2
	투시(C-arm 및 섹식기)	540	9.4	85	15.7	118	21.9	325	60.2	-	-	12	2.2
	골밀도	737	12.8	29	3.9	65	8.8	624	84.7	1	0.1	18	2.4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964	16.8	13	1.3	1	0.1	3	0.3	939	97.4	8	0.8
	파노라마 및 세팔로	200	3.5	4	2.0	-	-	3	1.5	192	96.0	1	0.5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169	2.9	61	36.1	54	32.0	48	28.4	-	-	6	3.6
	치과 및 이비인후과	921	16.0	12	1.3	1	0.1	65	7.1	839	91.1	4	0.4
	부위 한정	11	0.2	1	9.1	3	27.3	7	63.6	-	-	-	-
	PET-CT	12	0.2	11	91.7	1	8.3	-	-	-	-	-	-
유방촬영용 장치		234	4.1	28	12.0	49	20.9	153	65.4	-	-	4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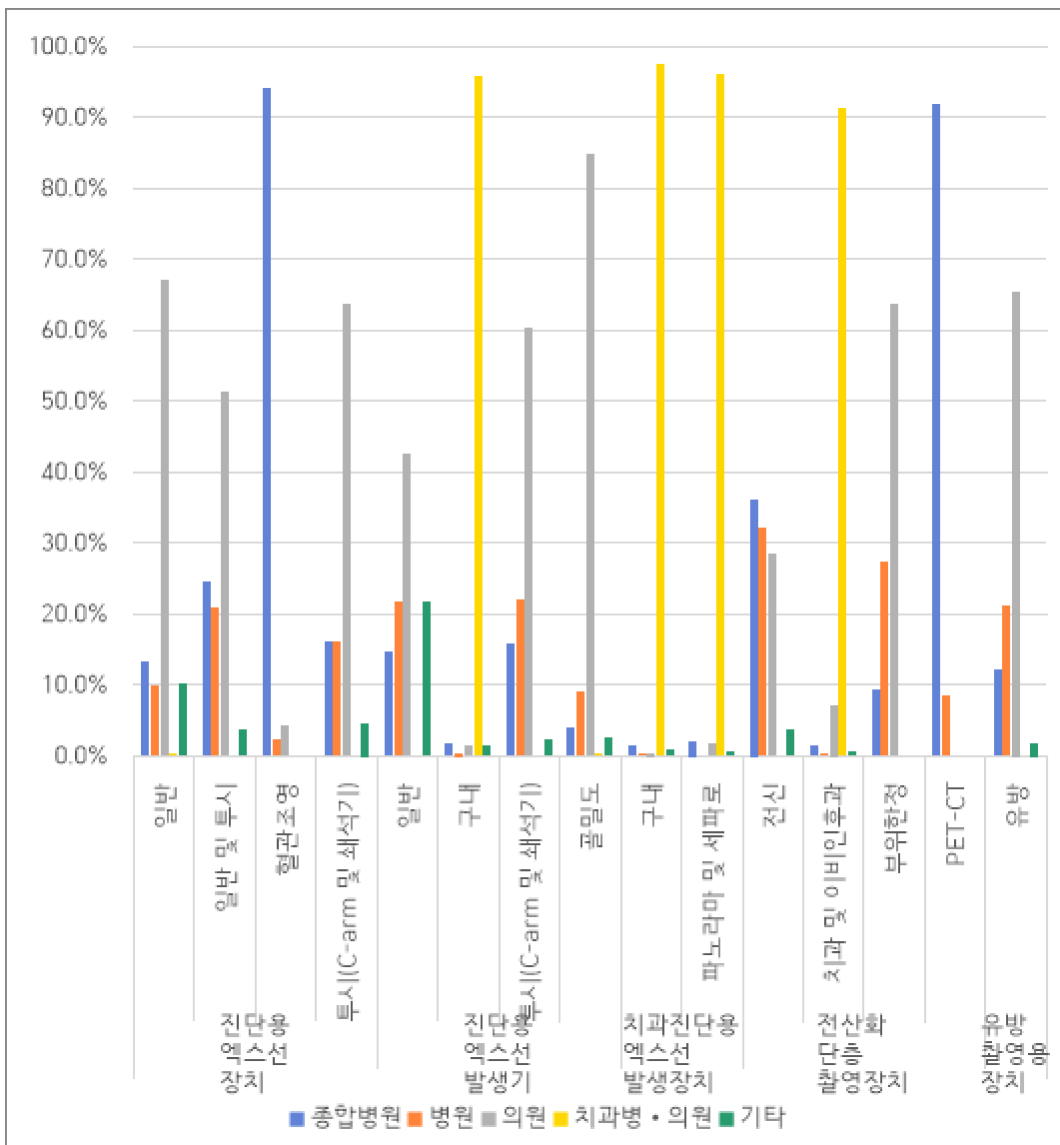


그림 7. 대구광역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1,180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93대, 혈관조영 장치는 37대, 투시(C-arm 및 섹스기) 장치는 40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63.1%(744대), 51.6%(48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 및 투시(C-arm 및 섹스기) 장치는 종합병원이 각각 97.3%(36대), 55.0%(22대)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285대, 구내 장치는 577대, 투시(C-arm 및 섹스기) 장치는 464대, 골밀도 장치는 547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69.5%(198대), 투시(C-arm 및 섹스기) 장치 62.1%(288대), 골밀도 장치 81.2%(444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892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246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94.7%(845대), 92.7%(228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126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947대, 부위 한정용 CT는 15대, PET-CT는 5대이며, 전신용 CT 및 PET-CT는 종합병원이 각각 41.3%(52대), 100%(5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90.4%(856대), 부위 한정용 CT는 의원이 86.7%(13대)로 가장 많았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74.4%(203대)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12.8%(35대), 종합병원이 11.7%(32대)이었다.

표 8. 인천광역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1,180	20.6	176	14.9	115	9.7	744	63.1	-	-	145	12.3
	일반 및 투시	93	1.6	16	17.2	20	21.5	48	51.6	-	-	9	9.7
	혈관조영	37	0.6	36	97.3	-	-	1	2.7	-	-	-	-
	투시(C-arm 및 섹스기)	40	0.7	22	55.0	5	12.5	13	32.5	-	-	-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285	5.0	25	8.8	12	4.2	198	69.5	-	-	50	17.5
	구내	577	10.1	10	1.7	-	-	-	-	562	97.4	5	0.9
	투시(C-arm 및 섹스기)	464	8.1	79	17.0	91	19.6	288	62.1	2	0.4	4	0.9
	골밀도	547	9.6	34	6.2	48	8.8	444	81.2	-	-	21	3.8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892	15.6	13	1.5	1	0.1	1	0.1	845	94.7	32	3.6
	파노라마 및 세팔로	246	4.3	6	2.4	1	0.4	3	1.2	228	92.7	8	3.3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126	2.2	52	41.3	37	29.4	34	27.0	-	-	3	2.4
	치과 및 이비인후과	947	16.5	14	1.5	4	0.4	71	7.5	856	90.4	2	0.2
	부위 한정	15	0.3	-	-	2	13.3	13	86.7	-	-	-	-
	PET-CT	5	0.1	5	100.0	-	-	-	-	-	-	-	-
유방촬영용 장치		273	4.8	32	11.7	35	12.8	203	74.4	-	-	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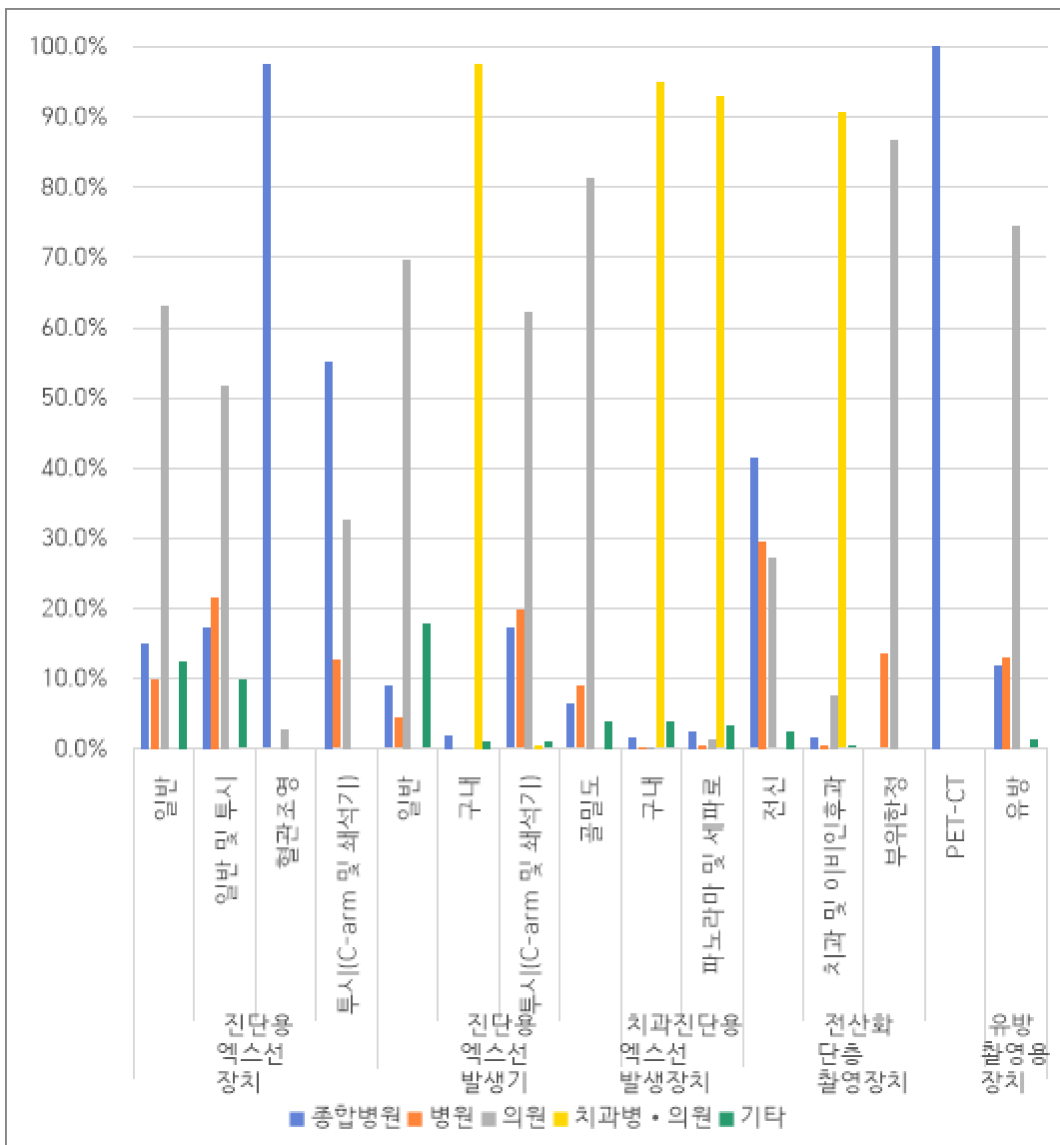


그림 8. 인천광역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862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77대, 혈관조영 장치는 25대, 투시(C-arm 및 쇄석기) 장치는 39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52.8%(455대), 50.6%(39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 및 투시(C-arm 및 쇄석기) 장치는 종합병원이 각각 92.0%(23대), 53.8%(21대)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151대, 구내 장치는 387대, 투시(C-arm 및 쇄석기) 장치는 287대, 골밀도 장치는 403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43.7%(66대), 투시(C-arm 및 쇄석기) 장치 55.7%(160대), 골밀도 장치 77.4%(312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609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212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97.2%(592대), 95.8%(203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99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600대, 부위 한정용 CT는 4대, PET-CT는 5대이며, 전신용 CT 및 PET-CT는 종합병원이 각각 41.4%(41대), 100%(5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91.2%(547대)였으며, 부위 한정용 CT는 병원과 의원이 동일하게 50.0%(2대)이었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52.1%(74대)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26.8%(38대), 종합병원이 19.0%(27대)이었다.

표 9. 광주광역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862	22.1	121	14.0	120	13.9	455	52.8	2	0.2	164	19.0
	일반 및 투시	77	2.0	11	14.3	21	27.3	39	50.6	-	-	6	7.8
	혈관조영	25	0.6	23	92.0	-	-	2	8.0	-	-	-	-
	투시(C-arm 및 쇄석기)	39	1.0	21	53.8	10	25.6	8	20.5	-	-	-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151	3.9	38	25.2	24	15.9	66	43.7	-	-	23	15.2
	구내	387	9.9	4	1.0	-	-	1	0.3	376	97.2	6	1.6
	투시(C-arm 및 쇄석기)	287	7.4	70	24.4	50	17.4	160	55.7	5	1.7	2	0.7
	골밀도	403	10.3	28	6.9	50	12.4	312	77.4	1	0.2	12	3.0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609	15.6	9	1.5	-	-	2	0.3	592	97.2	6	1.0
	파노라마 및 세팔로	212	5.4	5	2.4	-	-	2	0.9	203	95.8	2	0.9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99	2.5	41	41.4	30	30.3	24	24.2	-	-	4	4.0
	치과 및 이비인후과	600	15.4	5	0.8	2	0.3	44	7.3	547	91.2	2	0.3
	부위 한정	4	0.1	-	-	2	50.0	2	50.0	-	-	-	-
	PET-CT	5	0.1	5	100.0	-	-	-	-	-	-	-	-
유방촬영용 장치		142	3.6	27	19.0	38	26.8	74	52.1	-	-	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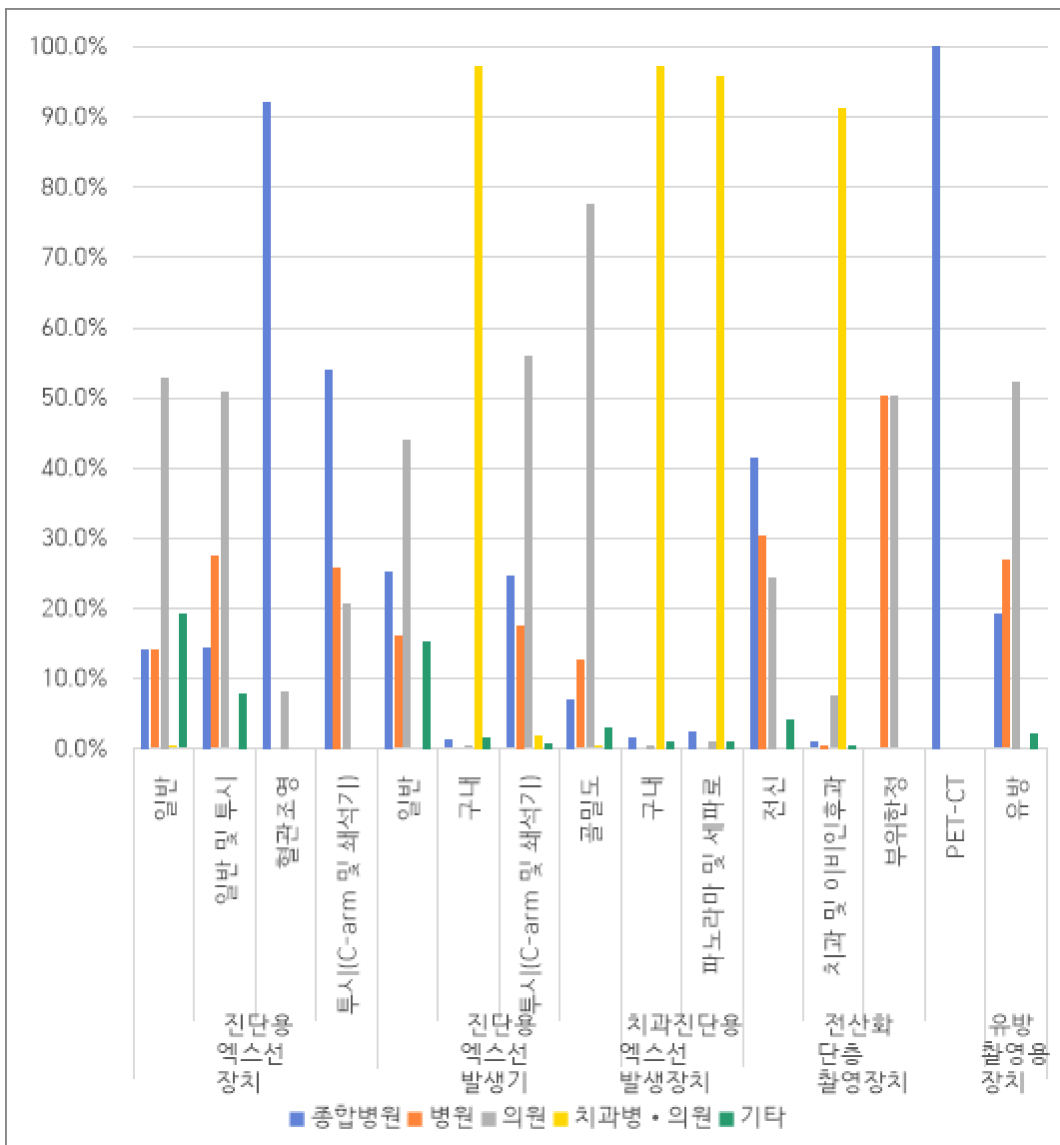


그림 9. 광주광역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677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57대, 혈관조영 장치는 27대, 투시(C-arm 및 섹서기) 장치는 23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62.6%(424대), 57.9%(33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 및 투시(C-arm 및 섹서기) 장치는 종합병원이 각각 92.6%(25대), 52.2%(12대)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112대, 구내 장치는 205대, 투시(C-arm 및 섹서기) 장치는 287대, 골밀도 장치는 334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66.1%(74대), 투시(C-arm 및 섹서기) 장치 53.0%(152대), 골밀도 장치 81.4%(272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573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160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97.6%(559대), 94.4%(151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84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540대, 부위 한정용 CT는 9대, PET-CT는 7대이며, 전신용 CT 및 PET-CT는 종합병원이 각각 39.3%(33대), 100%(7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92.0%(497대), 부위 한정용 CT는 의원이 55.6%(5대)로 가장 많았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74.6%(97대)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15.4%(20대), 병원이 8.5%(11대)이었다.

표 10. 대전광역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677	21.0	102	15.1	68	10.0	424	62.6	-	-	83	12.3
	일반 및 투시	57	1.8	17	29.8	5	8.8	33	57.9	-	-	2	3.5
	혈관조영	27	0.8	25	92.6	1	3.7	1	3.7	-	-	-	-
	투시(C-arm 및 섹서기)	23	0.7	12	52.2	5	21.7	6	26.1	-	-	-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112	3.5	13	11.6	10	8.9	74	66.1	-	-	15	13.4
	구내	205	6.4	2	1.0	1	0.5	-	-	202	98.5	-	-
	투시(C-arm 및 섹서기)	287	8.9	56	19.5	72	25.1	152	53.0	4	1.4	3	1.0
	골밀도	334	10.4	21	6.3	32	9.6	272	81.4	-	-	9	2.7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573	17.8	9	1.6	1	0.2	4	0.7	559	97.6	-	-
	파노라마 및 세팔로	160	5.0	6	3.8	2	1.3	1	0.6	151	94.4	-	-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84	2.6	33	39.3	21	25.0	28	33.3	-	-	2	2.4
	치과 및 이비인후과	540	16.7	8	1.5	2	0.4	33	6.1	497	92.0	-	-
	부위 한정	9	0.3	-	-	4	44.4	5	55.6	-	-	-	-
	PET-CT	7	0.2	7	100.0	-	-	-	-	-	-	-	-
유방촬영용 장치		130	4.0	20	15.4	11	8.5	97	74.6	-	-	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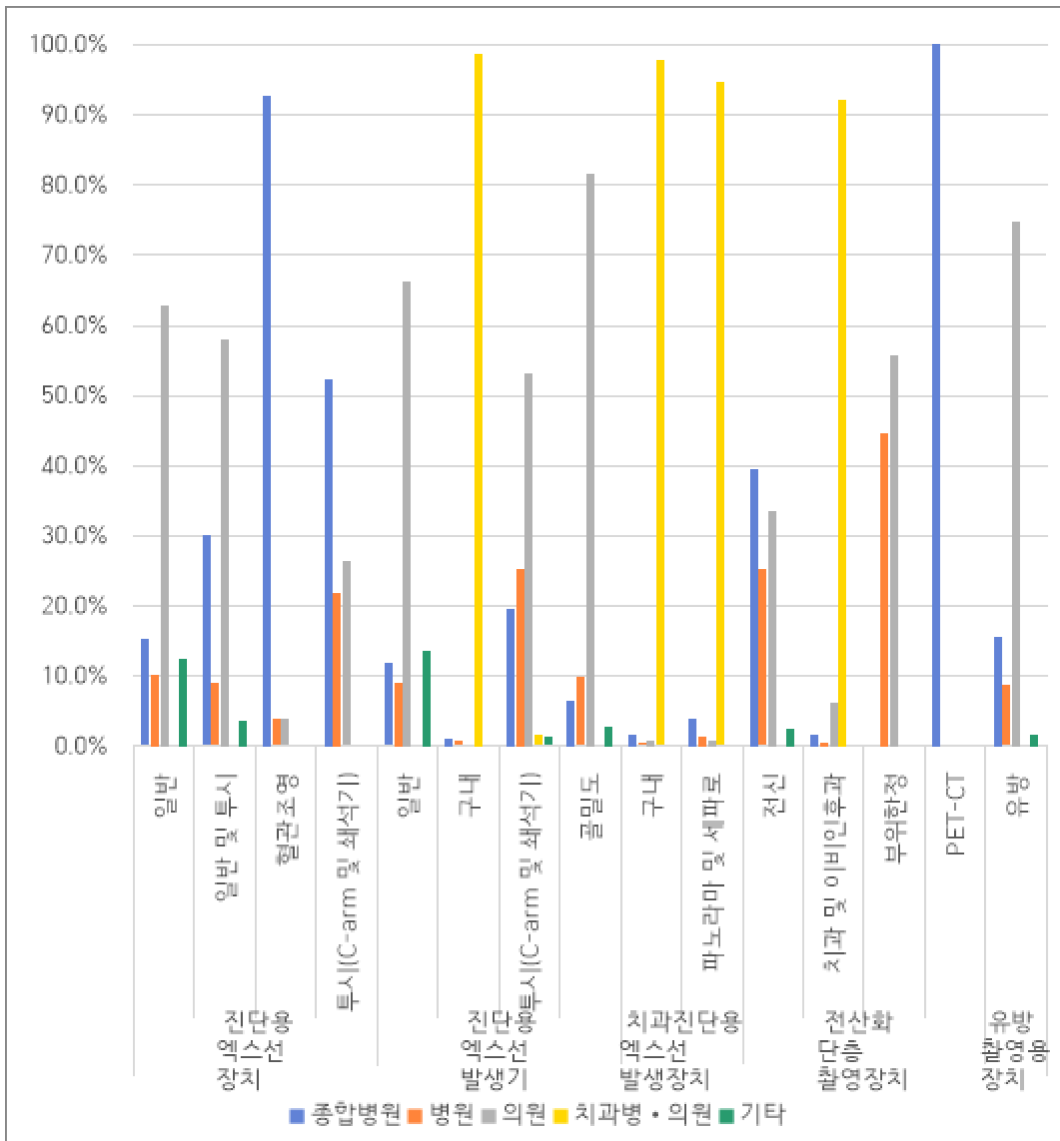


그림 10. 대전광역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414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31대, 혈관조영 장치는 19대,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는 12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58.5%(242대), 41.9%(13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 및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는 종합병원이 각각 89.5%(17대), 58.3%(7대)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64대, 구내 장치는 248대,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는 162대, 골밀도 장치는 192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46.9%(30대),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 62.3%(101대), 골밀도 장치 76.6%(147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325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108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94.2%(306대), 96.3%(104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53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366대, 부위 한정용 CT는 3대, PET-CT는 3대이며, 전신용 CT 및 PET-CT는 종합병원이 각각 45.3%(24대), 66.7%(2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93.2%(341대), 부위 한정용 CT는 의원이 100%(3대)로 가장 많았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62.5%(50대)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23.8%(19대), 종합병원이 13.8%(11대)이었다.

표 11. 울산광역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414	19.9	77	18.6	44	10.6	242	58.5	-	-	51	12.3
	일반 및 투시	31	1.5	8	25.8	7	22.6	13	41.9	-	-	3	9.7
	혈관조영	19	0.9	17	89.5	-	-	2	10.5	-	-	-	-
	투시(C-arm 및 섹터기)	12	0.6	7	58.3	-	-	5	41.7	-	-	-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64	3.1	16	25.0	10	15.6	30	46.9	-	-	8	12.5
	구내	248	11.9	2	0.8	3	1.2	-	-	238	96.0	5	2.0
	투시(C-arm 및 섹터기)	162	7.8	32	19.8	21	13.0	101	62.3	5	3.1	3	1.9
	골밀도	192	9.2	14	7.3	23	12.0	147	76.6	-	-	8	4.2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325	15.6	10	3.1	-	-	1	0.3	306	94.2	8	2.5
	파노라마 및 세팔로	108	5.2	2	1.9	-	-	1	0.9	104	96.3	1	0.9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53	2.5	24	45.3	15	28.3	12	22.6	-	-	2	3.8
	치과 및 이비인후과	366	17.6	6	1.6	4	1.1	15	4.1	341	93.2	-	-
	부위 한정	3	0.1	-	-	-	-	3	100.0	-	-	-	-
	PET-CT	3	0.1	2	66.7	-	-	1	33.3	-	-	-	-
유방촬영용 장치		80	3.8	11	13.8	19	23.8	50	62.5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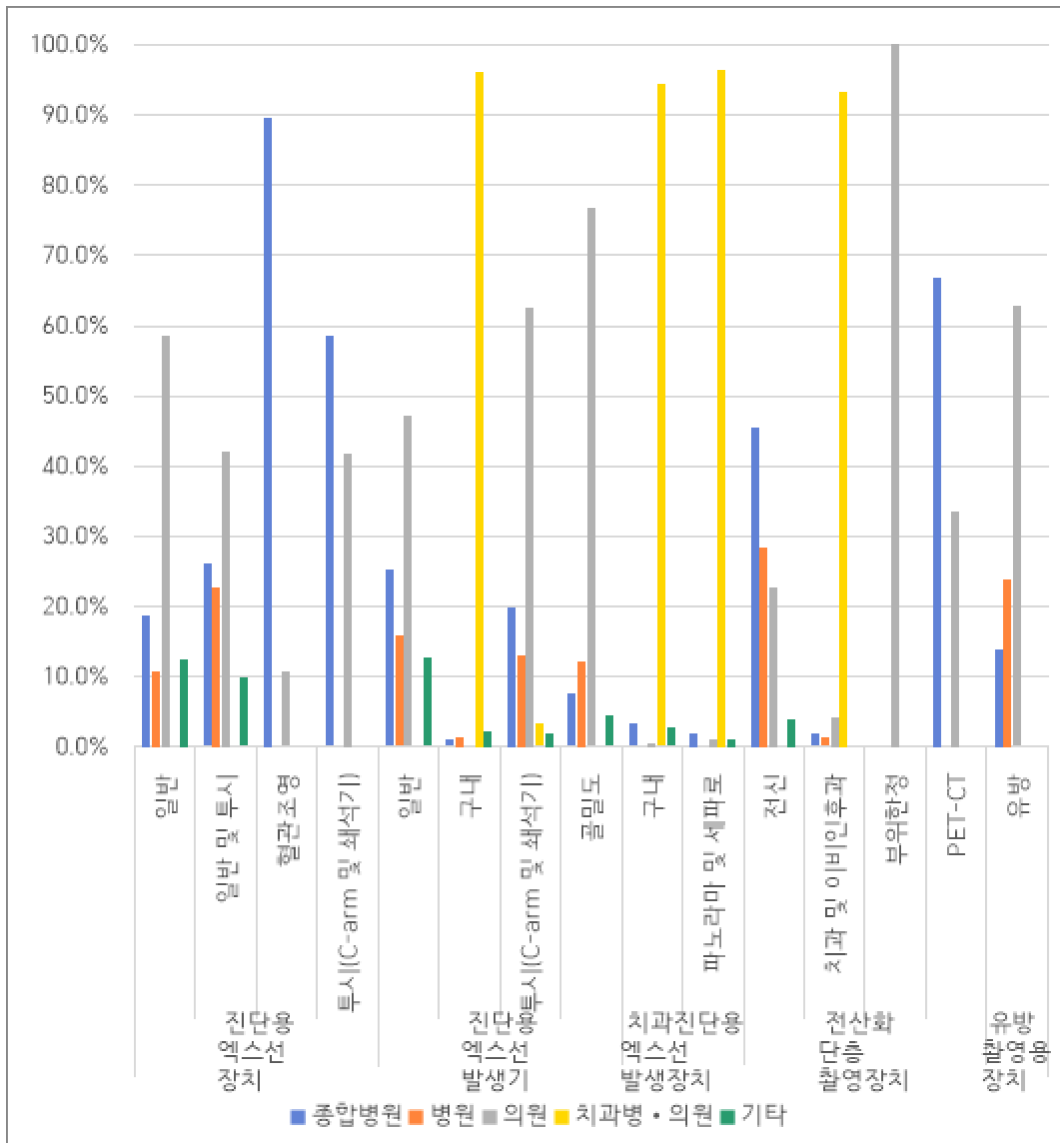


그림 11. 울산광역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9)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125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9대, 혈관조영 장치는 3대, 투시(C-arm 및 쇄석기) 장치는 3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74.4%(93대), 66.7%(6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는 종합병원이 100%(3대)이었으며, 투시(C-arm 및 쇄석기) 장치는 의원이 100%(3대)이었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29대, 구내 장치는 54대, 투시(C-arm 및 쇄석기) 장치는 45대, 골밀도 장치는 72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93.1%(27대), 투시(C-arm 및 쇄석기) 장치 71.1%(32대), 골밀도 장치 84.7%(61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116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20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91.4%(106대), 95.0%(19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16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112대, 부위 한정용 CT는 1대, PET-CT는 1대이며, 전신용 CT는 의원이 62.5%(10대)로 가장 많았고, 부위 한정용 CT는 의원 100%(1대), PET-CT는 종합병원 100%(1대)이었으며,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84.8%(95대)로 가장 많았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87.9%(29대)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9.1%(3대), 병원이 3.0%(1대)이었다.

표 12. 세종특별자치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125	19.6	13	10.4	5	4.0	93	74.4	1	0.8	13	10.4
	일반 및 투시	9	1.4	2	22.2	-	-	6	66.7	-	-	1	11.1
	혈관조영	3	0.5	3	100.0	-	-	-	-	-	-	-	-
	투시(C-arm 및 쇄석기)	3	0.5	-	-	-	-	3	100.0	-	-	-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29	4.5	2	6.9	-	-	27	93.1	-	-	-	-
	구내	54	8.5	-	-	-	-	-	-	53	98.1	1	1.9
	투시(C-arm 및 쇄석기)	45	7.0	9	20.0	3	6.7	32	71.1	-	-	1	2.2
	골밀도	72	11.3	3	4.2	2	2.8	61	84.7	-	-	6	8.3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116	18.2	2	1.7	-	-	1	0.9	106	91.4	7	6.0
	파노라마 및 세팔로	20	3.1	-	-	-	-	1	5.0	19	95.0	-	-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16	2.5	5	31.3	1	6.3	10	62.5	-	-	-	-
	치과 및 이비인후과	112	17.5	2	1.8	-	-	15	13.4	95	84.8	-	-
	부위 한정	1	0.2	-	-	-	-	1	100.0	-	-	-	-
	PET-CT	1	0.2	1	100.0	-	-	-	-	-	-	-	-
유방촬영용 장치		33	5.2	3	9.1	1	3.0	29	87.9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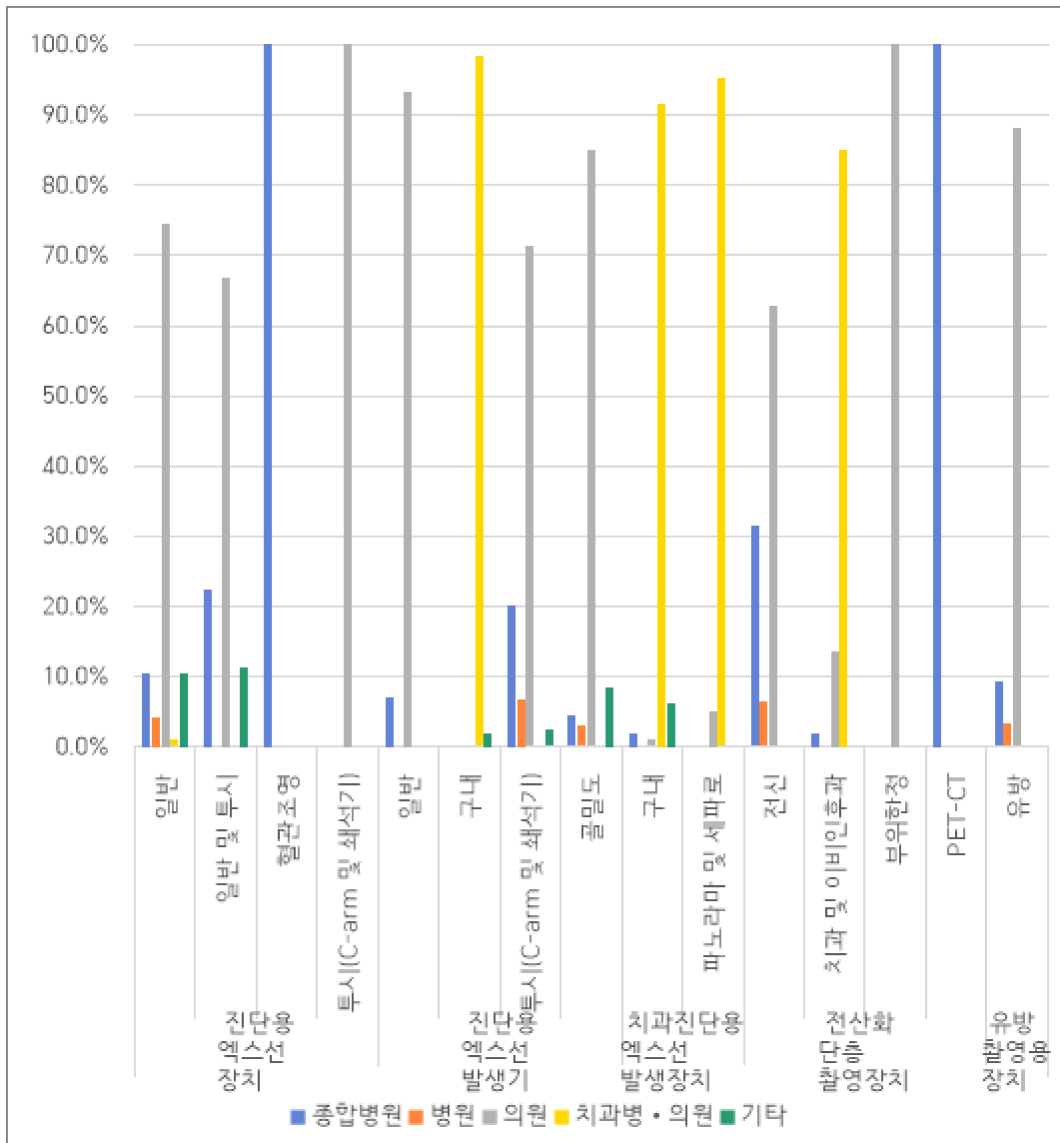


그림 12. 세종특별자치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10) 경기도

경기도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5,108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319대, 혈관조영 장치는 179대,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는 176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64.9%(3,317대), 54.2%(173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 및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는 종합병원이 각각 97.2%(174대), 43.2%(76대)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1,335대, 구내 장치는 2,650대,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는 2,338대, 골밀도 장치는 2,511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68.9%(920대),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 63.7%(1,489대), 골밀도 장치 81.6%(2,048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4,322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1,259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95.8%(4,140대), 95.2%(1,198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590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4,774대, 부위 한정용 CT는 74대, PET-CT는 35대이며, 전신용 CT 및 PET-CT는 종합병원이 각각 37.3%(220대), 91.4%(32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90.1%(4,299대), 부위 한정용 CT는 의원이 90.5%(67대)로 가장 많았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73.5%(831대)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14.2%(160대), 종합병원이 10.6%(120대)이었다.

표 13. 경기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5,108	19.1	688	13.5	549	10.7	3,317	64.9	3	0.1	551	10.8
	일반 및 투시	319	1.2	84	26.3	36	11.3	173	54.2	-	-	26	8.2
	혈관조영	179	0.7	174	97.2	-	-	5	2.8	-	-	-	-
	투시(C-arm 및 섀석기)	176	0.7	76	43.2	33	18.8	66	37.5	-	-	1	0.6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1,335	5.0	83	6.2	94	7.0	920	68.9	1	0.04	237	17.8
	구내	2,650	9.9	36	1.4	5	0.2	-	-	2,593	97.8	16	0.6
	투시(C-arm 및 섀석기)	2,338	8.7	309	13.2	495	21.2	1,489	63.7	17	0.7	28	1.2
	골밀도	2,511	9.4	119	4.7	253	10.1	2,048	81.6	1	0.0	90	3.6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4,322	16.1	62	1.4	20	0.5	16	0.4	4,140	95.8	84	1.9
	파노라마 및 세팔로	1,259	4.7	30	2.4	6	0.5	11	0.9	1,198	95.2	14	1.1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590	2.2	220	37.3	203	34.4	159	26.9	-	-	8	1.4
	치과 및 이비인후과	4,774	17.8	58	1.2	16	0.3	376	7.9	4,299	90.1	25	0.5
	부위 한정	74	0.3	2	2.7	5	6.8	67	90.5	-	-	-	-
	PET-CT	35	0.1	32	91.4	-	-	3	8.6	-	-	-	-
유방촬영용 장치		1,130	4.2	120	10.6	160	14.2	831	73.5	1	0.1	18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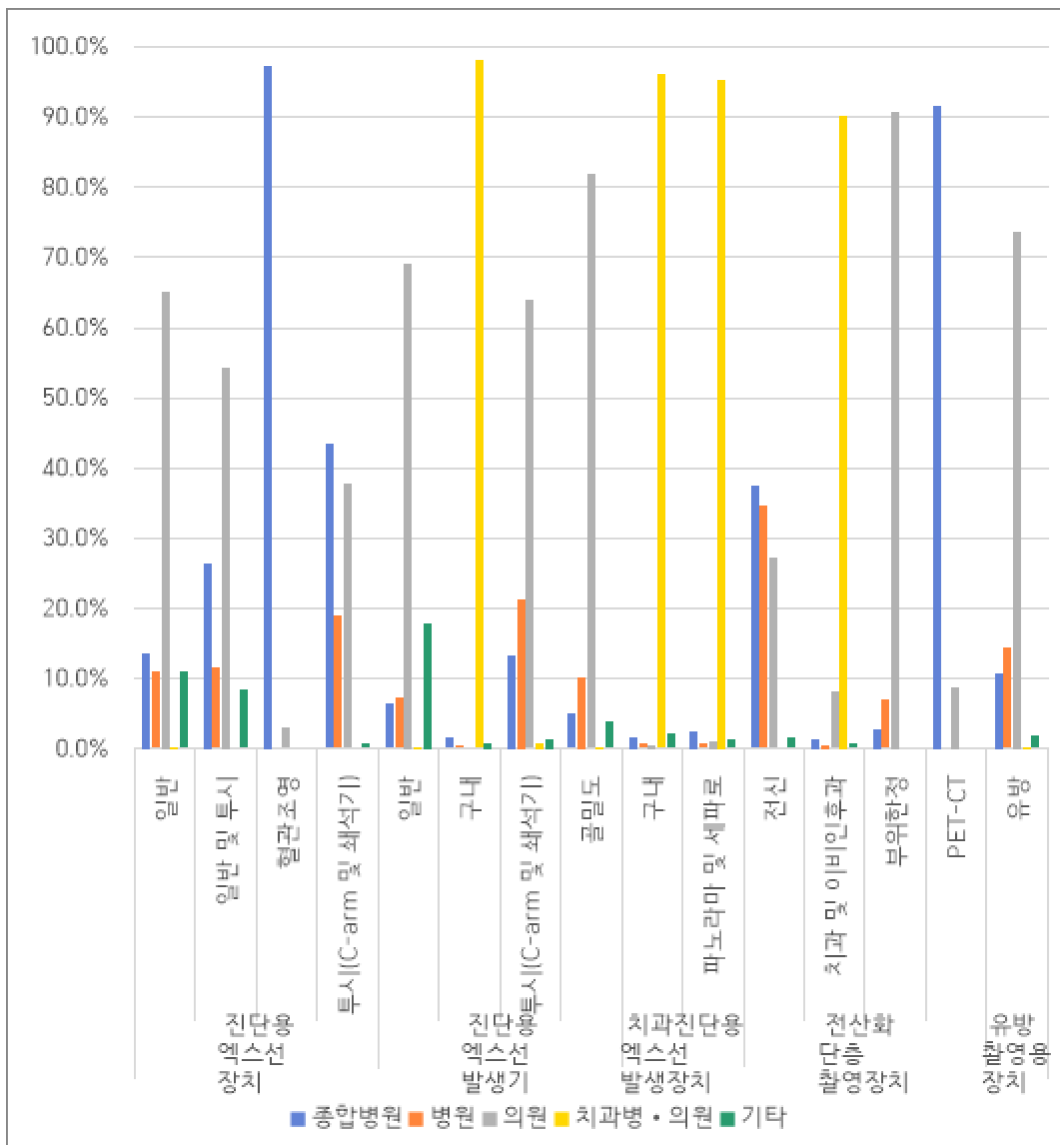


그림 13. 경기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11)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651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67대, 혈관조영 장치는 22대,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는 21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58.4%(380대), 52.2%(35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 및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는 종합병원이 각각 95.5%(21대), 61.9%(13대)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137대, 구내 장치는 291대,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는 217대, 골밀도 장치는 357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51.8%(71대),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 59.9%(130대), 골밀도 장치 82.1%(293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478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136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82.2%(393대), 89.7%(122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90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433대, 부위 한정용 CT는 6대, PET-CT는 5대이며, 전신용 CT 및 PET-CT는 종합병원이 각각 37.8%(34대), 100%(5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90.1%(390대), 부위 한정용 CT는 의원이 83.3%(5대)로 가장 많았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59.6%(62대)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20.2%(21대), 병원이 17.3%(18대)이었다.

표 14. 강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651	21.6	113	17.4	72	11.1	380	58.4	2	0.3	84	12.9
	일반 및 투시	67	2.2	12	17.9	11	16.4	35	52.2	-	-	9	13.4
	혈관조영	22	0.7	21	95.5	-	-	1	4.5	-	-	-	-
	투시(C-arm 및 섹터기)	21	0.7	13	61.9	4	19.0	3	14.3	-	-	1	4.8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137	4.5	17	12.4	19	13.9	71	51.8	-	-	30	21.9
	구내	291	9.7	8	2.7	2	0.7	1	0.3	267	91.8	13	4.5
	투시(C-arm 및 섹터기)	217	7.2	36	16.6	45	20.7	130	59.9	4	1.8	2	0.9
	골밀도	357	11.8	20	5.6	33	9.2	293	82.1	-	-	11	3.1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478	15.9	17	3.6	5	1.0	7	1.5	393	82.2	56	11.7
	파노라마 및 세팔로	136	4.5	6	4.4	1	0.7	3	2.2	122	89.7	4	2.9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90	3.0	34	37.8	31	34.4	22	24.4	1	1.1	2	2.2
	치과 및 이비인후과	433	14.4	8	1.8	6	1.4	19	4.4	390	90.1	10	2.3
	부위 한정	6	0.2	1	16.7	-	-	5	83.3	-	0.0	-	-
	PET-CT	5	0.2	5	100.0	-	-	-	-	-	-	-	-
유방촬영용 장치		104	3.4	21	20.2	18	17.3	62	59.6	-	-	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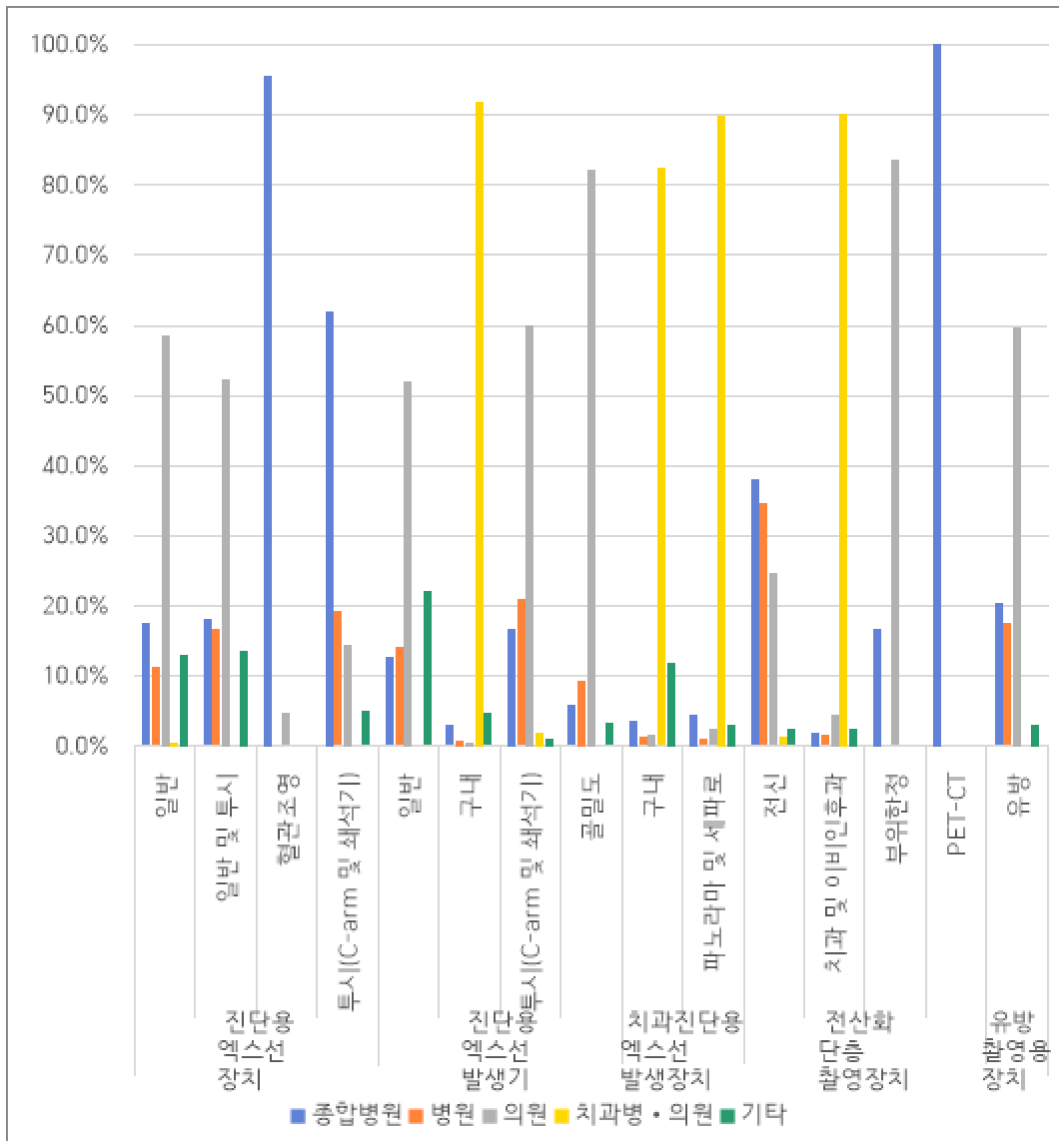


그림 14. 강원특별자치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12) 충청북도

충청북도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689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54대, 혈관조영 장치는 21대,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는 17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60.1%(420대), 53.7%(29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는 종합병원이 95.2%(20대),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는 병원이 41.2%(7대)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145대, 구내 장치는 225대,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는 265대, 골밀도 장치는 374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59.3%(86대),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 58.5%(155대), 골밀도 장치 81.3%(304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508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99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86.6%(440대), 89.9%(89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85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498대, 부위 한정용 CT는 7대, PET-CT는 3대이며, 전신용 CT 및 PET-CT는 종합병원이 각각 36.5%(31대), 100%(3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90.2%(449대), 부위 한정용 CT는 의원이 85.7%(6대)로 가장 많았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67.4%(87대)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15.5%(20대), 종합병원이 14.7%(19대)이었다.

표 15. 충청북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689	22.1	113	16.4	61	8.9	420	61.0	-	-	95	13.8
	일반 및 투시	54	1.7	13	24.1	9	16.7	29	53.7	-	-	3	5.6
	혈관조영	21	0.7	20	95.2	-	-	1	4.8	-	-	-	-
	투시(C-arm 및 섀석기)	17	0.5	5	29.4	7	41.2	5	29.4	-	-	-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145	4.6	16	11.0	19	13.1	86	59.3	-	-	24	16.6
	구내	225	7.2	7	3.1	5	2.2	1	0.4	206	91.6	6	2.7
	투시(C-arm 및 섀석기)	265	8.5	50	18.9	52	19.6	155	58.5	5	1.9	3	1.1
	골밀도	374	12.0	20	5.3	32	8.6	304	81.3	-	-	18	4.8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508	16.3	16	3.1	1	0.2	4	0.8	440	86.6	47	9.3
	파노라마 및 세팔로	99	3.2	1	1.0	2	2.0	4	4.0	89	89.9	3	3.0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85	2.7	31	36.5	27	31.8	24	28.2	-	-	3	3.5
	치과 및 이비인후과	498	16.0	10	2.0	3	0.6	32	6.4	449	90.2	4	0.8
	부위 한정	7	0.2	-	-	1	14.3	6	85.7	-	-	-	-
	PET-CT	3	0.1	3	100.0	-	-	-	-	-	-	-	-
유방촬영용 장치		129	4.1	19	14.7	20	15.5	87	67.4	-	-	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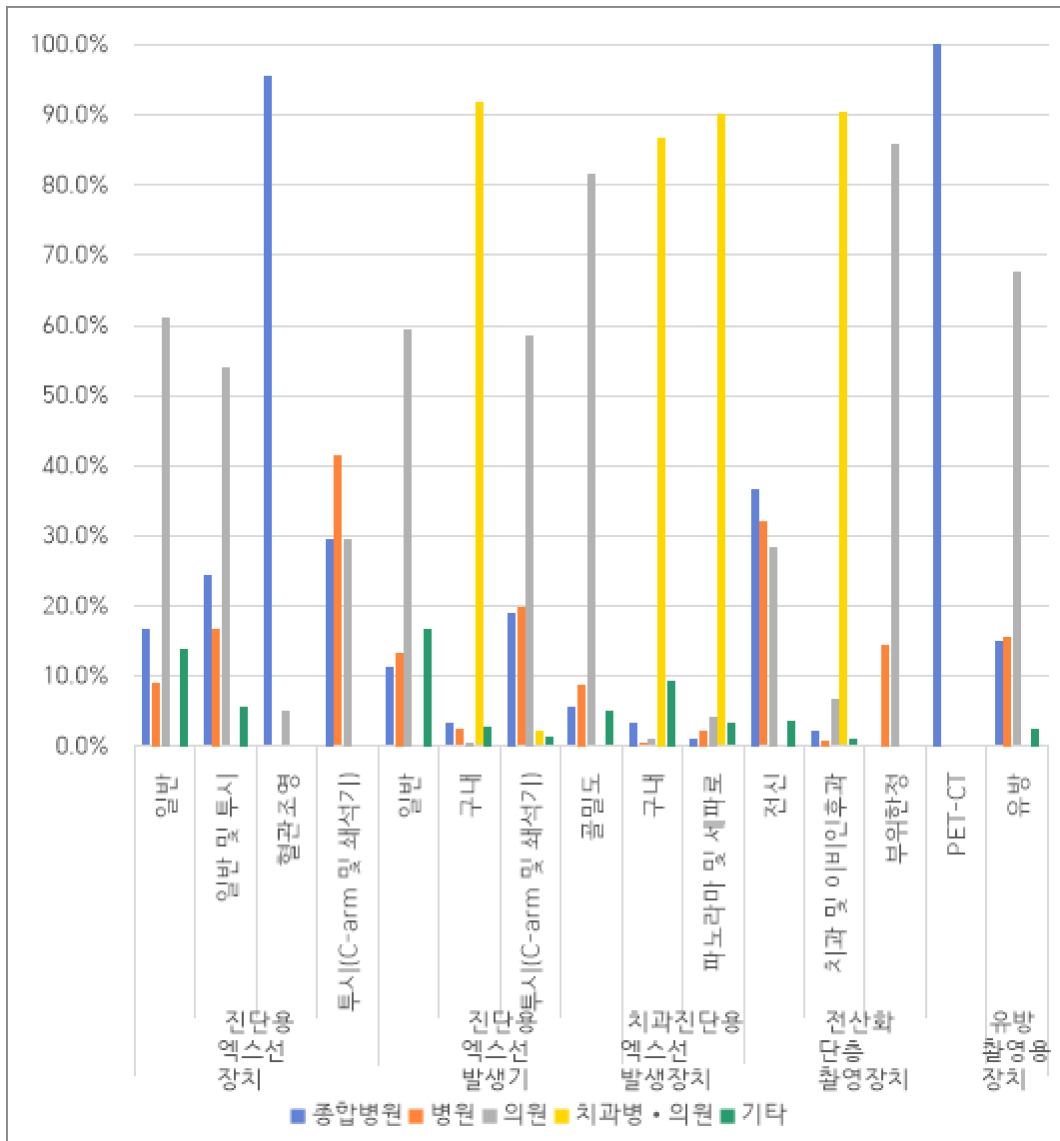


그림 15. 충청북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13) 충청남도

충청남도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881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64대, 혈관조영 장치는 22대, 투시(C-arm 및 섹시기) 장치는 22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61.0%(537대), 59.4%(38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 및 투시(C-arm 및 섹시기) 장치는 종합병원이 각각 90.9%(20대), 59.1%(13대)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181대, 구내 장치는 349대, 투시(C-arm 및 섹시기) 장치는 309대, 골밀도 장치는 474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65.2%(118대), 투시(C-arm 및 섹시기) 장치 58.9%(182대), 골밀도 장치 81.2%(385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682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165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87.8%(599대), 90.9%(150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91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641대, 부위 한정용 CT는 10대, PET-CT는 3대이며, 전신용 CT는 병원이 37.4%(34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92.7%(594대), 부위 한정용 CT는 의원이 70.0%(7대)로 가장 많았으며, PET-CT는 종합병원이 100%(3대)이었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66.9%(91대)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20.6%(28대), 종합병원이 11.0%(15대)이었다.

표 16. 충청남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881	21.9	118	13.4	92	10.4	537	61.0	1	0.1	133	15.1
	일반 및 투시	64	1.6	8	12.5	11	17.2	38	59.4	-	-	7	10.9
	혈관조영	22	0.5	20	90.9	-	-	2	9.1	-	-	-	-
	투시(C-arm 및 섹시기)	22	0.5	13	59.1	-	-	9	40.9	-	-	-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181	4.5	15	8.3	17	9.4	118	65.2	-	-	31	17.1
	구내	349	8.7	7	2.0	-	-	2	0.6	327	93.7	13	3.7
	투시(C-arm 및 섹시기)	309	7.7	46	14.9	74	23.9	182	58.9	4	1.3	3	1.0
	골밀도	474	11.8	16	3.4	47	9.9	385	81.2	-	-	26	5.5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682	16.9	9	1.3	1	0.1	6	0.9	599	87.8	67	9.8
	파노라마 및 세팔로	165	4.1	6	3.6	1	0.6	2	1.2	150	90.9	6	3.6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91	2.3	30	33.0	34	37.4	22	24.2	-	-	5	5.5
	치과 및 이비인후과	641	15.9	7	1.1	1	0.2	38	5.9	594	92.7	1	0.2
	부위 한정	10	0.2	-	-	3	30.0	7	70.0	-	-	-	-
	PET-CT	3	0.1	3	100.0	-	-	-	-	-	-	-	-
유방촬영용 장치		136	3.4	15	11.0	28	20.6	91	66.9	-	-	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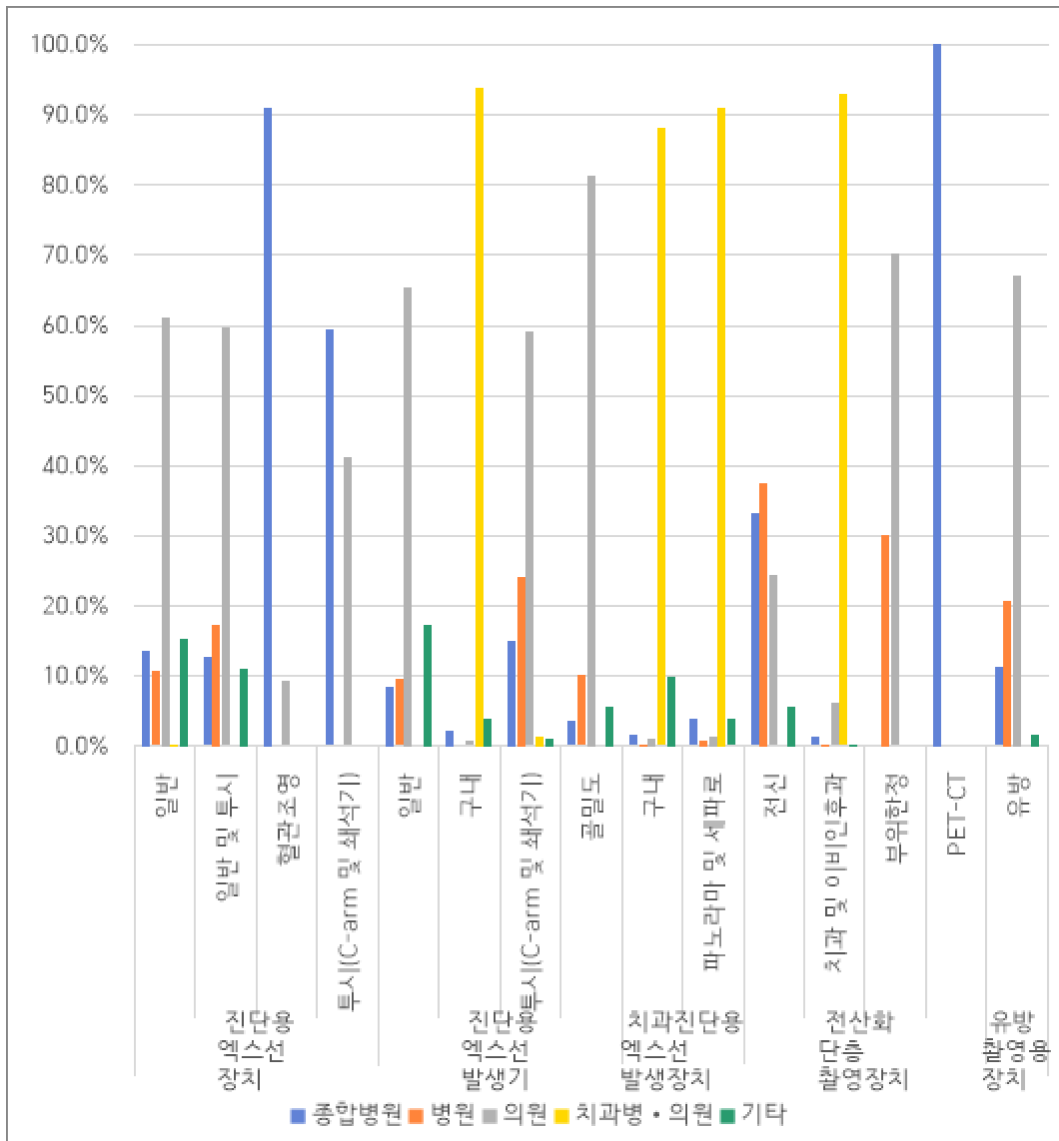


그림 16. 충청남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14)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916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87대, 혈관조영 장치는 30대, 투시(C-arm 및 섹서기) 장치는 30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59.1%(541대), 50.6%(44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는 종합병원이 96.7%(29대), 투시(C-arm 및 섹서기) 장치는 의원이 43.3%(13대)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151대, 구내 장치는 421대, 투시(C-arm 및 섹서기) 장치는 311대, 골밀도 장치는 505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56.3%(85대), 투시(C-arm 및 섹서기) 장치 58.8%(183대), 골밀도 장치 82.6%(417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637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158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88.7%(565대), 96.2%(152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123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591대, 부위 한정용 CT는 4대, PET-CT는 6대이며, 전신용 CT는 병원이 36.6%(45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92.2%(545대), 부위 한정용 CT는 의원이 100%(4대)이었으며, PET-CT는 종합병원이 83.3%(5대)로 가장 많았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64.1%(100대)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19.9%(31대), 종합병원이 13.5%(21대)이었다.

표 17. 전북특별자치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916	22.2	130	14.2	103	11.2	541	59.1	-	-	142	15.5
	일반 및 투시	87	2.1	19	21.8	14	16.1	44	50.6	-	-	10	11.5
	혈관조영	30	0.7	29	96.7	-	-	1	3.3	-	-	-	-
	투시(C-arm 및 섹서기)	30	0.7	8	26.7	9	30.0	13	43.3	-	-	-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151	3.7	18	11.9	11	7.3	85	56.3	-	-	37	24.5
	구내	421	10.2	4	1.0	-	-	2	0.5	394	93.6	21	5.0
	투시(C-arm 및 섹서기)	311	7.5	61	19.6	59	19.0	183	58.8	2	0.6	6	1.9
	골밀도	505	12.2	22	4.4	47	9.3	417	82.6	-	-	19	3.8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637	15.4	8	1.3	1	0.2	1	0.2	565	88.7	62	9.7
	파노라마 및 세팔로	158	3.8	2	1.3	-	-	1	0.6	152	96.2	3	1.9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123	3.0	36	29.3	45	36.6	34	27.6	-	-	8	6.5
	치과 및 이비인후과	591	14.3	6	1.0	1	0.2	37	6.3	545	92.2	2	0.3
	부위 한정	4	0.1	-	-	-	-	4	100.0	-	-	-	-
	PET-CT	6	0.1	5	83.3	-	-	1	16.7	-	-	-	-
유방촬영용 장치		156	3.8	21	13.5	31	19.9	100	64.1	-	-	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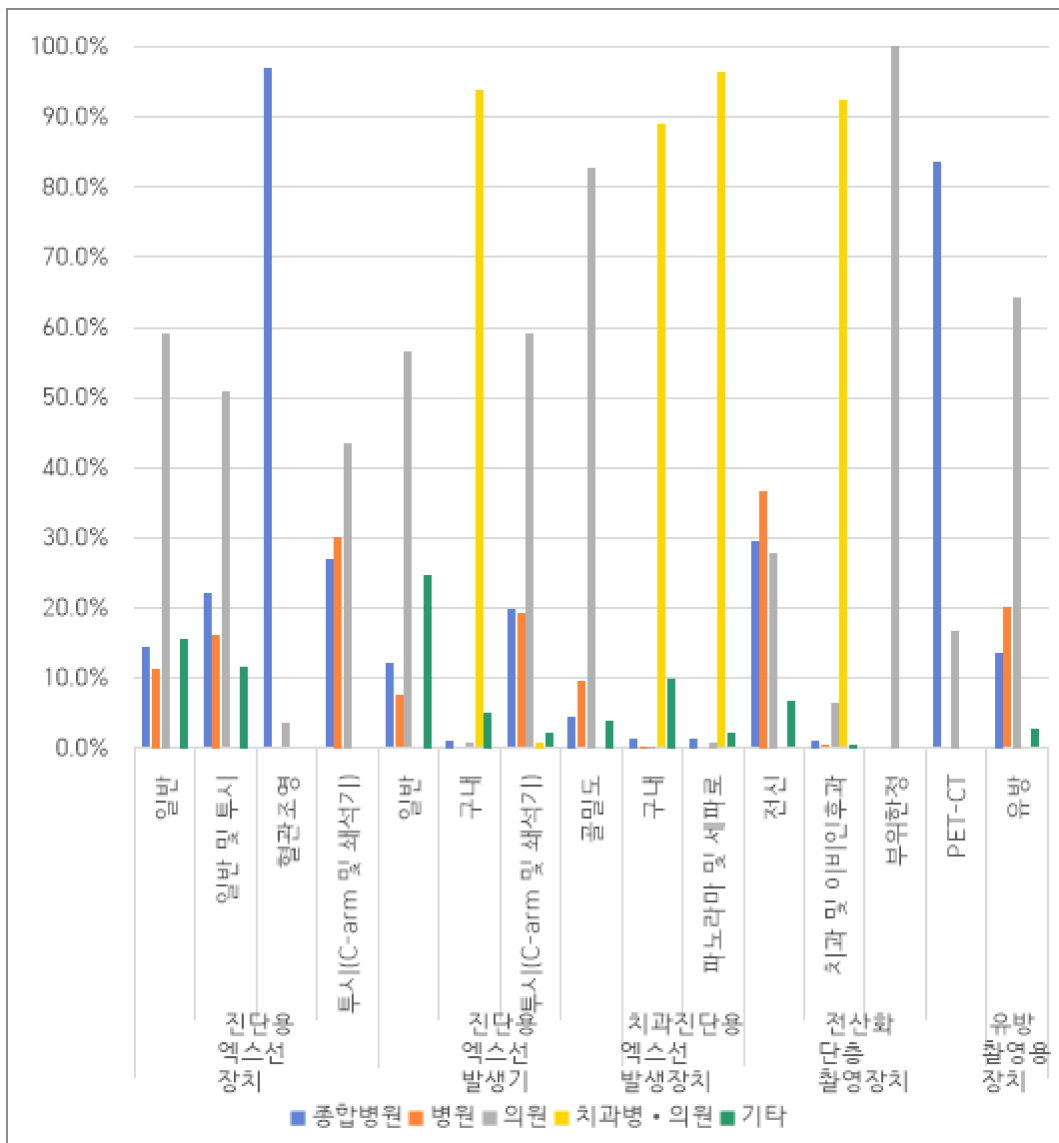


그림 17. 전북특별자치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15) 전라남도

전라남도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820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49대, 혈관조영 장치는 15대, 투시(C-arm 및 섹식기) 장치는 30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51.8%(425대), 44.9%(22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 및 투시(C-arm 및 섹식기) 장치는 종합병원이 각각 93.3%(14대), 60.0%(18대)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169대, 구내 장치는 398대, 투시(C-arm 및 섹식기) 장치는 295대, 골밀도 장치는 490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30.2%(51대), 투시(C-arm 및 섹식기) 장치 51.9%(153대), 골밀도 장치 77.3%(379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547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145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81.7%(447대), 91.0%(132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112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493대, 부위 한정용 CT는 3대, PET-CT는 3대이며, 전신용 CT는 병원이 43.8%(49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92.3%(455대), 부위 한정용 CT는 의원이 100%(3대)이었으며, PET-CT는 종합병원이 100%(3대)이었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39.3%(48대)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35.2%(43대), 종합병원이 24.6%(30대)이었다.

표 18. 전라남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820	22.2	127	15.5	119	14.5	425	51.8	-	-	149	18.2
	일반 및 투시	49	1.3	14	28.6	10	20.4	22	44.9	-	-	3	6.1
	혈관조영	15	0.4	14	93.3	-	-	1	6.7	-	-	-	-
	투시(C-arm 및 섹식기)	30	0.8	18	60.0	5	16.7	7	23.3	-	-	-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169	4.6	33	19.5	37	21.9	51	30.2	1	0.6	47	27.8
	구내	398	10.8	5	1.3	1	0.3	1	0.3	342	85.9	49	12.3
	투시(C-arm 및 섹식기)	295	8.0	56	19.0	80	27.1	153	51.9	2	0.7	4	1.4
	골밀도	490	13.3	31	6.3	64	13.1	379	77.3	-	-	16	3.3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547	14.8	10	1.8	5	0.9	4	0.7	447	81.7	81	14.8
	파노라마 및 세팔로	145	3.9	6	4.1	2	1.4	1	0.7	132	91.0	4	2.8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112	3.0	45	40.2	49	43.8	16	14.3	-	0.0	2	1.8
	치과 및 이비인후과	493	13.4	7	1.4	4	0.8	26	5.3	455	92.3	1	0.2
	부위 한정	3	0.1	-	-	-	-	3	100.0	-	-	-	-
	PET-CT	3	0.1	3	100.0	-	-	-	-	-	-	-	-
유방촬영용 장치		122	3.3	30	24.6	43	35.2	48	39.3	-	-	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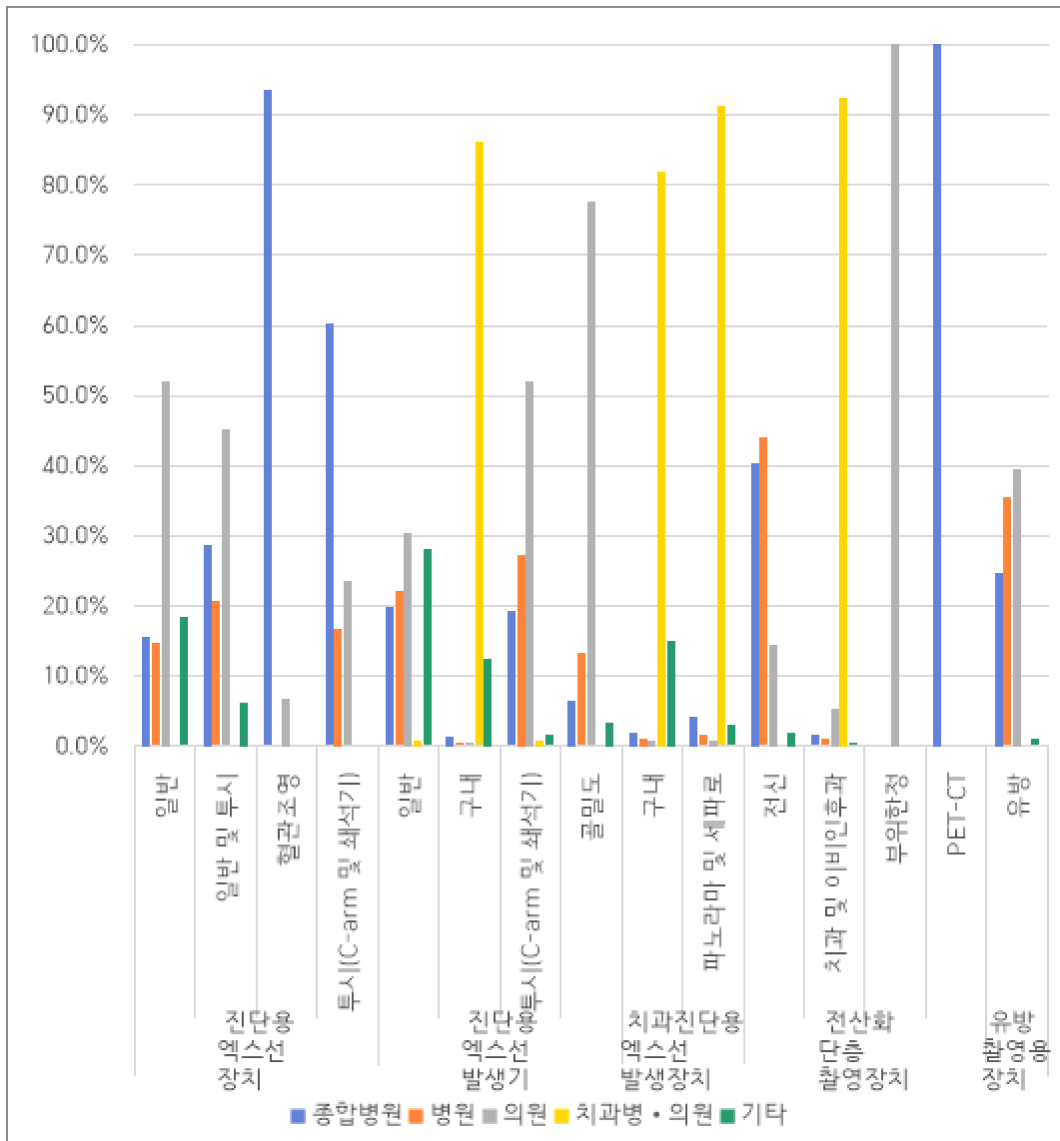


그림 18. 전라남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16) 경상북도

경상북도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1,177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81대, 혈관조영 장치는 26대,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는 30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62.7%(738대), 53.1%(43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는 종합병원이 100%(26대)이었으며,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는 의원이 56.7%(17대)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165대, 구내 장치는 372대,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는 340대, 골밀도 장치는 601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39.4%(65대),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 55.0%(187대), 골밀도 장치 85.4%(513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782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174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86.3%(675대), 91.4%(159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104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696대, 부위 한정용 CT는 10대, PET-CT는 3대이며, 전신용 CT 및 PET-CT는 종합병원이 각각 43.3%(45대), 100%(3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92.0%(640대), 부위 한정용 CT는 의원이 100%(10대)이었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59.7%(86대)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19.4%(28대), 종합병원이 18.1%(26대)이었다.

표 19. 경상북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1,177	25.0	166	14.1	96	8.2	738	62.7	-	-	177	15.0
	일반 및 투시	81	1.7	16	19.8	13	16.0	43	53.1	-	-	9	11.1
	혈관조영	26	0.6	26	100.0	-	-	-	-	-	-	-	-
	투시(C-arm 및 섹터기)	30	0.6	9	30.0	4	13.3	17	56.7	-	-	-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165	3.5	29	17.6	27	16.4	65	39.4	-	-	44	26.7
	구내	372	7.9	8	2.2	2	0.5	3	0.8	336	90.3	23	6.2
	투시(C-arm 및 섹터기)	340	7.2	81	23.8	57	16.8	187	55.0	1	0.3	14	4.1
	골밀도	601	12.8	30	5.0	32	5.3	513	85.4	1	0.2	25	4.2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782	16.6	13	1.7	3	0.4	8	1.0	675	86.3	83	10.6
	파노라마 및 세팔로	174	3.7	7	4.0	2	1.1	5	2.9	159	91.4	1	0.6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104	2.2	45	43.3	38	36.5	17	16.3	-	-	4	3.8
	치과 및 이비인후과	696	14.8	13	1.9	3	0.4	34	4.9	640	92.0	6	0.9
	부위 한정	10	0.2	-	-	-	-	10	100.0	-	-	-	-
	PET-CT	3	0.1	3	100.0	-	-	-	-	-	-	-	-
유방촬영용 장치		144	3.1	26	18.1	28	19.4	86	59.7	-	-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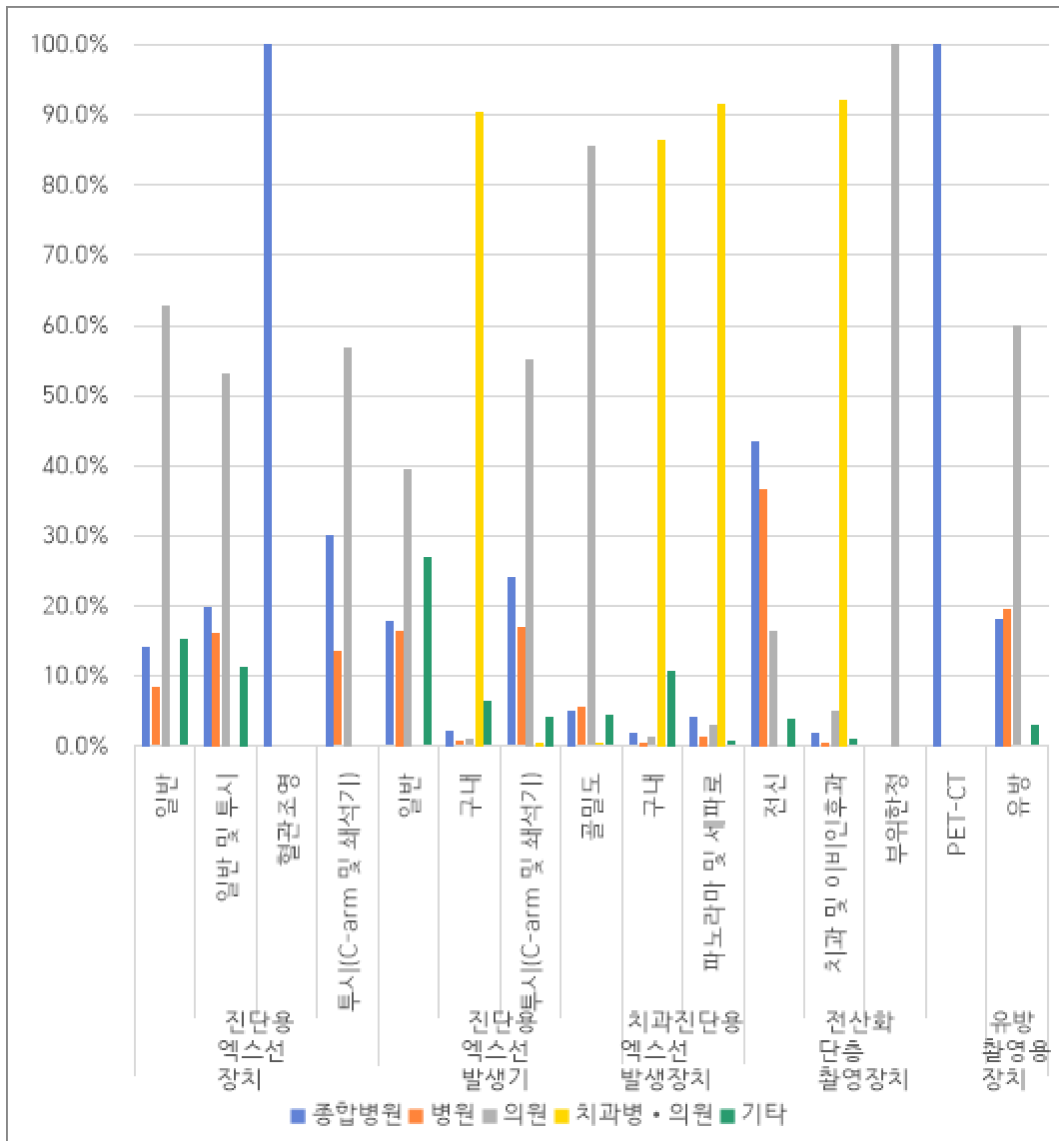


그림 19. 경상북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17) 경상남도

경상남도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1,291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91대, 혈관조영 장치는 44대, 투시(C-arm 및 섹서기) 장치는 48대이며, 일반,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의원이 각각 50.2%(648대), 42.9%(39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는 종합병원이 95.5%(42대)로 가장 많았으며, 투시(C-arm 및 섹서기) 장치는 종합병원과 병원이 35.4%(17대)로 같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248대, 구내 장치는 454대, 투시(C-arm 및 섹서기) 장치는 512대, 골밀도 장치는 665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34.3%(85대), 투시(C-arm 및 섹서기) 장치 52.0%(266대), 골밀도 장치 75.3%(501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998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198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89.3%(891대), 94.9%(188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187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970대, 부위 한정용 CT는 9대, PET-CT는 7대이며, 전신용 CT는 병원이 47.6%(89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93.3%(905대), 부위 한정용 CT는 의원이 88.9%(8대)로 가장 많았으며, PET-CT는 종합병원이 100%(7대)이었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48.0%(106대)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34.8%(77대), 종합병원이 16.3%(36대)이었다.

표 20. 경상남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1,291	21.7	184	14.3	219	17.0	648	50.2	-	-	240	18.6
	일반 및 투시	91	1.5	18	19.8	23	25.3	39	42.9	-	-	11	12.1
	혈관조영	44	0.7	42	95.5	2	4.5	-	-	-	-	-	-
	투시(C-arm 및 섹서기)	48	0.8	17	35.4	17	35.4	13	27.1	-	-	1	2.1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248	4.2	41	16.5	58	23.4	85	34.3	1	0.4	63	25.4
	구내	454	7.6	8	1.8	4	0.9	1	0.2	428	94.3	13	2.9
	투시(C-arm 및 섹서기)	512	8.6	93	18.2	143	27.9	266	52.0	1	0.2	9	1.8
	골밀도	665	11.2	32	4.8	102	15.3	501	75.3	-	-	30	4.5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998	16.8	15	1.5	3	0.3	3	0.3	891	89.3	86	8.6
	파노라마 및 세팔로	198	3.3	3	1.5	-	-	2	1.0	188	94.9	5	2.5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187	3.1	59	31.6	89	47.6	35	18.7	-	-	4	2.1
	치과 및 이비인후과	970	16.3	15	1.5	8	0.8	35	3.6	905	93.3	7	0.7
	부위 한정	9	0.2	-	-	1	11.1	8	88.9	-	-	-	-
	PET-CT	7	0.1	7	100.0	-	-	-	-	-	-	-	-
유방촬영용 장치		221	3.7	36	16.3	77	34.8	106	48.0	-	-	2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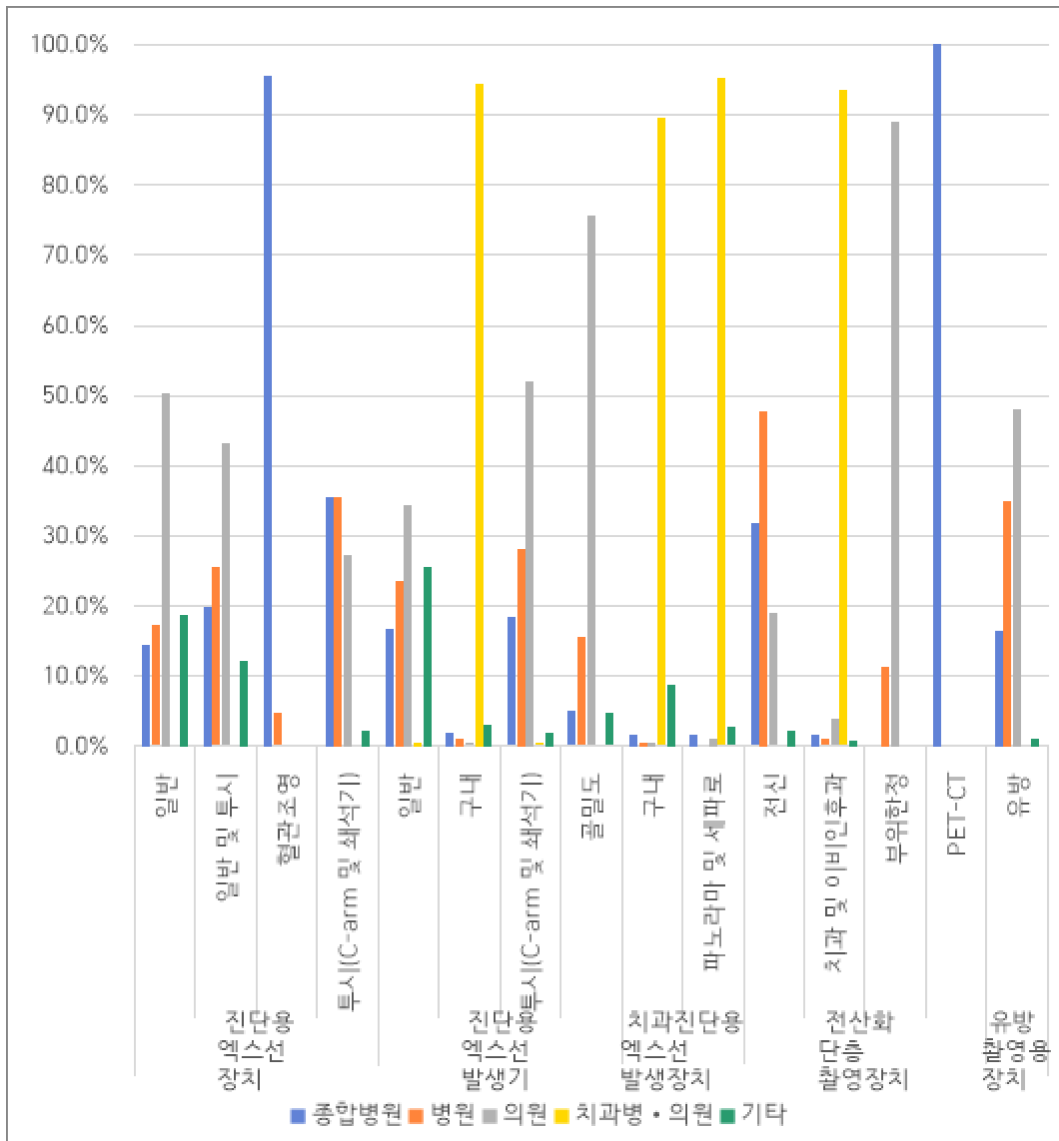


그림 20. 경상남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장치는 287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11대, 혈관조영 장치는 12대,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는 6대이며, 일반장치는 의원이 67.6%(194대), 일반 및 투시 장치는 종합병원이 72.7%(8대)로 가장 많았고, 혈관조영 장치는 종합병원이 100%(12대)이었으며,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도 종합병원이 83.3%(5대)로 가장 많았다.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 장치는 66대, 구내 장치는 147대,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는 102대, 골밀도 장치는 177대이며, 의원이 일반 장치 81.8%(54대), 투시(C-arm 및 섹터기) 장치 70.6%(72대), 골밀도 장치 91.0%(161대)로 가장 많았다.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 장치는 226대, 파노라마·세팔로 장치는 45대이며, 치과 병·의원이 각각 92.5%(209대), 97.8%(44대)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의 전신용 CT는 20대,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251대, 부위 한정용 CT는 0대, PET-CT는 2대이며, 전신용 CT 및 PET-CT는 종합병원이 각각 65.0%(13대), 100%(2대)로 가장 많았고,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는 치과 병·의원이 90.0%(226대)이었다.

유방촬영용 장치의 설치 비율은 의원이 71.4%(25대)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22.9%(8대), 병원이 5.7%(2대)이었다.

표 21. 제주특별자치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기타	
		개	%	개	%	개	%	개	%	개	%	개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일반	287	20.7	52	18.1	16	5.6	194	67.6	-	-	25	8.7
	일반 및 투시	11	0.8	8	72.7	-	-	3	27.3	-	-	-	-
	혈관조영	12	0.9	12	100.0	-	-	-	-	-	-	-	-
	투시(C-arm 및 섹터기)	6	0.4	5	83.3	-	-	1	16.7	-	-	-	-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일반	66	4.8	3	4.5	4	6.1	54	81.8	-	-	5	7.6
	구내	147	10.6	7	4.8	-	-	-	-	134	91.2	6	4.1
	투시(C-arm 및 섹터기)	102	7.4	21	20.6	7	6.9	72	70.6	-	-	2	2.0
	골밀도	177	12.8	8	4.5	5	2.8	161	91.0	-	-	3	1.7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구내	226	16.3	5	2.2	-	-	-	-	209	92.5	12	5.3
	파노라마 및 세팔로	45	3.2	-	-	-	-	-	-	44	97.8	1	2.2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전신	20	1.4	13	65.0	4	20.0	3	15.0	-	-	-	-
	치과 및 이비인후과	251	18.1	5	2.0	-	-	19	7.6	226	90.0	1	0.4
	부위 한정	-	-	-	-	-	-	-	-	-	-	-	-
	PET-CT	2	0.1	2	100.0	-	-	-	-	-	-	-	-
유방촬영용 장치		35	2.5	8	22.9	2	5.7	25	71.4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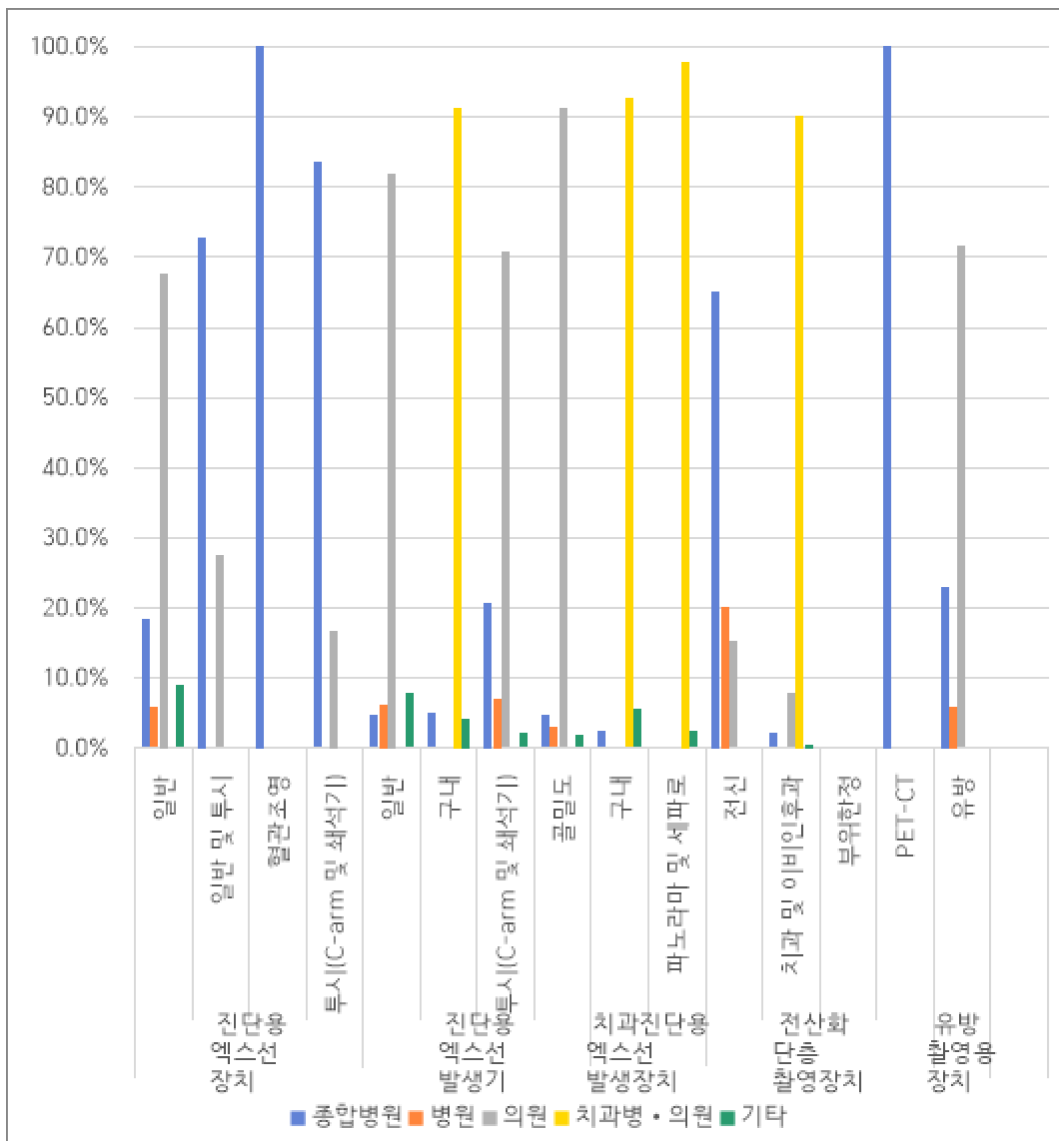


그림 21. 제주특별자치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용도별 설치 비율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



I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연수**

II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연수

⑧ 의료기관 종류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연수 분포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평균 사용 연수는 10.3년이었으며, 종합병원이 8.8년, 병원이 10.4년, 의원이 10.7년, 치과병·의원이 10.0년, 기타가 13.3년이였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5년 이하가 35,900대(32.4%)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 10년 이하가 31,029대(28.0%)로 그다음이었으며, 16년 이상 20년 이하와 연수 미상이 각각 12,087대(10.9%), 1,140대(1.0%)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모두 5년 이하 장치가 각각 3,550대(36.0%), 2,526대(30.6%), 13,084대(34.0%), 15,414대(31.5%)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과 병원, 치과·병의원은 21년 이상 장치가 각각 427대(4.3%), 838대(10.2%), 4,582대(9.4%)로 가장 적었으며, 의원은 16년 이상 20년 이하 장치가 3,731대(9.7%)로 가장 적었다.

표 22. 의료기관 종류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110,736	100	9,859	8.9	8,246	7.4	38,485	34.8	48,912	44.2	5,234	4.7
5년 이하	35,900	32.4	3,550	36.0	2,526	30.6	13,084	34.0	15,414	31.5	1,326	25.3
6년 ~ 10년	31,029	28.0	2,981	30.2	2,202	26.7	9,650	25.1	15,230	31.1	966	18.5
11년 ~ 15년	17,561	15.9	2,043	20.7	1,547	18.8	5,505	14.3	7,673	15.7	793	15.2
16년 ~ 20년	12,087	10.9	818	8.3	1,012	12.3	3,731	9.7	5,618	11.5	908	17.3
21년 이상	13,019	11.8	427	4.3	838	10.2	6,039	15.7	4,582	9.4	1,133	21.6
미상	1,140	1.0	40	0.4	121	1.5	476	1.2	395	0.8	108	2.1
평균연수(년)	10.3		8.8		10.4		10.7		10.0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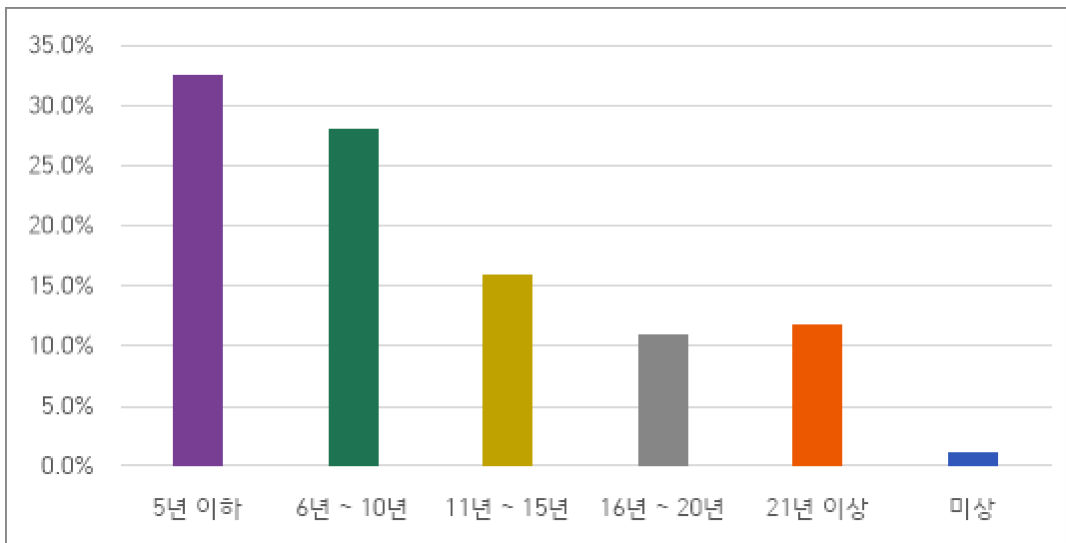


그림 22-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연수 분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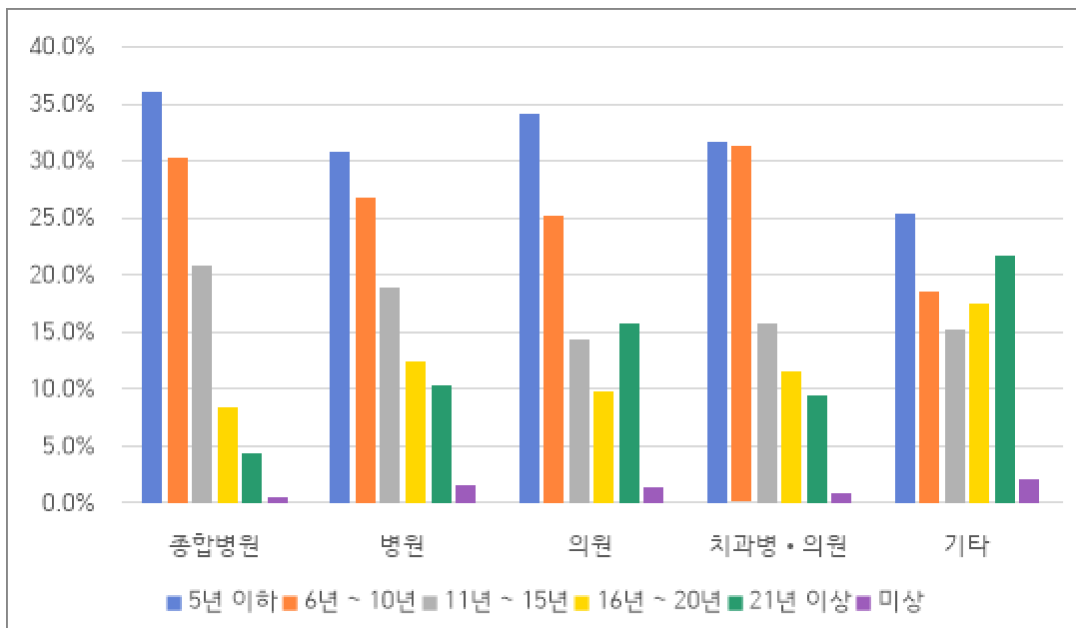


그림 22-2. 의료기관 종류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연수 분포 비율

⑧ 지역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연수 분포

지역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평균 사용 연수는 경북이 11.5년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과 광주가 11.2년, 충남, 전남이 각각 10.9년이었으며, 대전이 10.7년이었다. 제주(8.9년), 세종(9.0년), 경기(9.9년), 인천(10.1년), 울산(10.1년), 서울(10.2년)은 전국 평균 사용 연수 10.3년 미만이었다.

그리고, 세종과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5년 이하의 장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용 연수 구간이 증가할수록 설치된 장치 비율은 낮았다.

표 23. 지역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평균 (년)	5년 이하		6년~10년		11년~15년		16년~20년		21년 이상		미상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서울	10.2	8,172	32.9	7,047	28.4	3,817	15.4	2,794	11.3	2,679	10.8	299	1.2
부산	10.5	2,474	31.8	2,119	27.2	1,359	17.4	844	10.8	906	11.6	90	1.2
대구	10.3	1,837	32.0	1,693	29.5	838	14.6	581	10.1	703	12.2	95	1.7
인천	10.1	1,989	34.7	1,559	27.2	865	15.1	567	9.9	668	11.7	79	1.4
광주	11.2	1,122	28.8	1,038	26.6	709	18.2	479	12.3	530	13.6	24	0.6
대전	10.7	944	29.3	937	29.1	550	17.1	360	11.2	397	12.3	37	1.1
울산	10.1	685	32.9	576	27.7	308	14.8	243	11.7	227	10.9	41	2.0
세종	9.0	210	32.9	252	39.4	91	14.2	37	5.8	46	7.2	3	0.5
경기	9.9	9,382	35.0	7,488	27.9	4,012	15.0	2,710	10.1	3,028	11.3	180	0.7
강원	10.6	1,014	33.6	750	24.9	481	16.0	377	12.5	375	12.4	18	0.6
충북	10.5	950	30.5	875	28.1	539	17.3	345	11.1	360	11.5	50	1.6
충남	10.9	1,212	30.1	1,129	28.0	635	15.8	473	11.7	548	13.6	33	0.8
전북	11.2	1,160	28.1	1,117	27.1	730	17.7	493	11.9	591	14.3	35	0.8
전남	10.9	1,097	29.7	1,007	27.3	686	18.6	391	10.6	485	13.1	25	0.7
경북	11.5	1,272	27.0	1,281	27.2	812	17.3	578	12.3	701	14.9	61	1.3
경남	10.3	1,888	31.8	1,717	28.9	893	15.0	698	11.7	687	11.6	60	1.0
제주	8.9	492	35.5	444	32.0	236	17.0	117	8.4	88	6.3	10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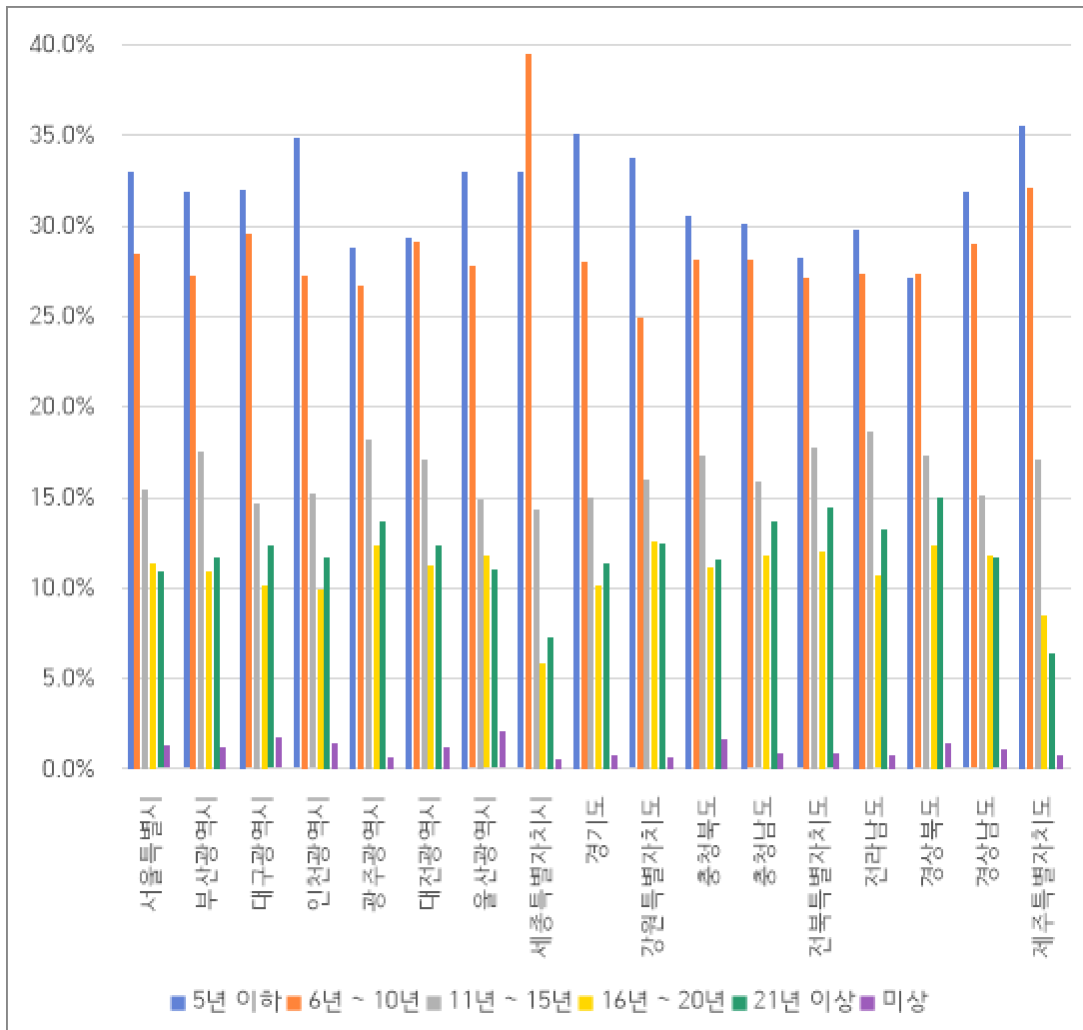


그림 23. 지역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연수 분포 비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분류별 사용 연수 분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분류별 평균 사용 연수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가 13.1년으로 가장 높았고, 진단용 엑스선 장치 12.3년으로 그다음이었으며, 유방촬영용 장치 11.5년,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9.4년,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6.7년이었다.

그리고,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를 제외한 모든 장치에서 5년 이하의 장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사용 연수 구간이 증가할수록 설치된 장치 비율은 낮았지만, 진단용 엑스선 장치와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는 사용 연수 21년 이상인 장치가 16년~20년 장치보다 많았다.

표 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분류별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평균 (년)	5년 이하		6년~10년		11년~15년		16년~20년		21년 이상		미상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진단용 엑스선 장치	12.3	7,307	28.6	5,986	23.4	3,810	14.9	2,903	11.4	5,056	19.8	484	1.9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9.4	12,505	35.2	9,481	26.7	6,594	18.6	4,489	12.6	2,206	6.2	237	0.7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13.1	5,052	21.7	5,697	24.4	3,892	16.7	3,387	14.5	4,901	21.0	373	1.6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6.7	9,715	44.2	8,854	40.3	2,552	11.6	680	3.1	157	0.7	34	0.2
유방촬영용 장치	11.5	1,321	30.1	1,011	23.1	713	16.3	628	14.3	699	15.9	1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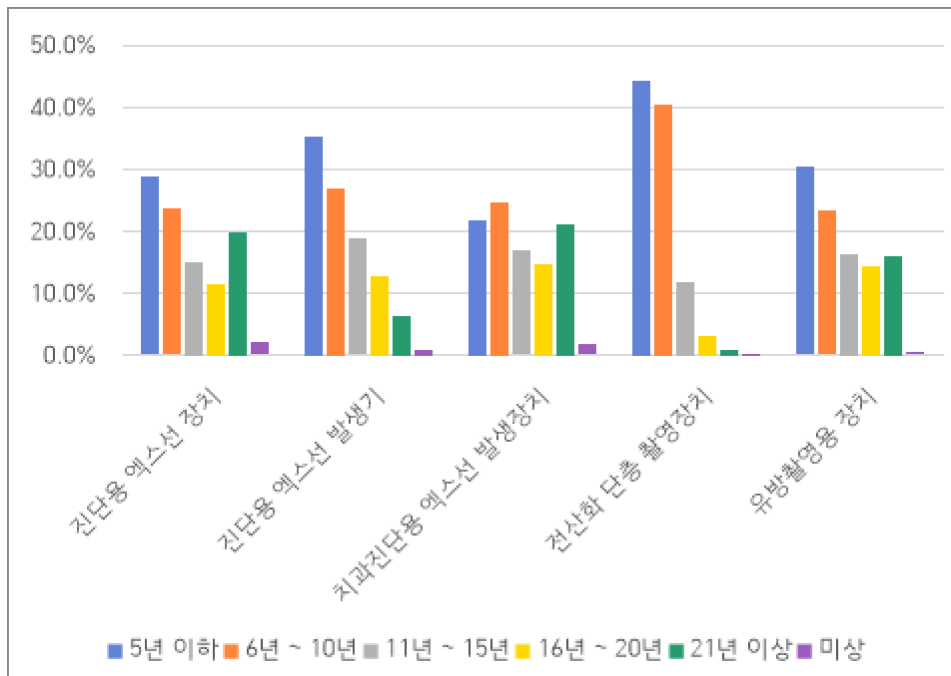


그림 2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종류별 사용 연수 분포 비율

1) 진단용 엑스선 장치 사용 연수 분포

(1) 일반촬영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촬영 장치는 평균 사용 연수가 11.9년이었으며, 종합병원 8.9년, 병원 10.3년, 의원 12.6년, 치과병·의원 12.3년이었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5년 이하가 6,734대(30.2%)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10년 이하가 5,350대(24.0%)로 그다음이었으며, 21년 이상이 4,270대(19.1%)로 11년 이상~15년 이하, 16년 이상~20년 이하보다 많았다.

그리고,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모두 5년 이하 장치가 각각 1,158대(35.9%), 750대(30.9%), 4,187대(29.9%)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의원은 5년 이하, 6년 이상 10년 이하 장치가 4대(25.0%)로 같았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21년 이상 장치가 각각 141대(4.4%), 221대(9.1%)로 가장 적었으며, 의원은 16년 이상~20년 이하 장치가 1,413대(10.1%)로 가장 적었으며, 치과병·의원은 11년 이상 15년 이하 장치가 2대(12.5%)로 가장 적었다.

표 25. 일반촬영 장치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22,317	100	3,227	14.5	2,428	10.9	14,010	62.8	16	0.1	2,636	11.8
5년 이하	6,734	30.2	1,158	35.9	750	30.9	4,187	29.9	4	25.0	635	24.1
6년 ~ 10년	5,350	24.0	997	30.9	656	27.0	3,217	23.0	4	25.0	476	18.1
11년 ~ 15년	3,238	14.5	670	20.8	488	20.1	1,678	12.0	2	12.5	400	15.2
16년 ~ 20년	2,378	10.7	252	7.8	275	11.3	1,413	10.1	3	18.8	435	16.5
21년 이상	4,270	19.1	141	4.4	221	9.1	3,264	23.3	3	18.8	641	24.3
미상	347	1.6	9	0.3	38	1.6	251	1.8	-	-	49	1.9
평균연수(년)	11.9		8.9		10.3		12.6		12.3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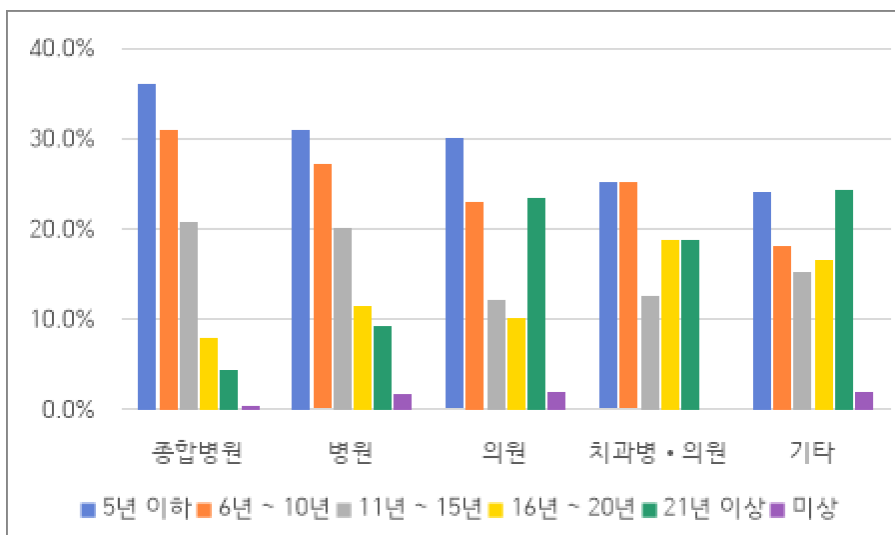


그림 25. 일반촬영장치 사용 연수 분포 비율

(2) 일반 및 투시촬영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일반 및 투시촬영 장치는 평균 사용 연수가 19.8년이었으며, 종합병원 12.7년, 병원 20.5년, 의원 22.4년이었다. 한편 치과병·의원에는 일반 및 투시촬영장치가 없었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21년 이상이 689대(41.4%)로 가장 많았고, 16년 이상~20년 이하가 383대(23.0%)로 그다음이었으며, 미상을 제외하고 5년 이하가 130대(7.8%)로 가장 적었다.

종합병원은 6년 이상 10년 이하 장치가 88대(22.4%)로 가장 많았고, 병원과 의원은 21년 이상 장치가 각각 108대(39.7%), 438대(50.5%)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21년 이상 장치가 63대(16.0%)로 가장 적었고, 병원과 의원은 5년 이하 장치가 각각 11대(4.0%), 35대(4.0%)로 가장 적었다. 또한, 연도 미상 장치는 기타를 제외하고 병원이 33대(12.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표 26. 일반 및 투시촬영 장치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1,663	100	393	23.6	272	16.4	868	52.2	-	-	130	7.8
5년 이하	130	7.8	82	20.9	11	4.0	35	4.0	-	-	2	1.5
6년 ~ 10년	155	9.3	88	22.4	15	5.5	52	6.0	-	-	-	-
11년 ~ 15년	172	10.3	85	21.6	27	9.9	51	5.9	-	-	9	6.9
16년 ~ 20년	383	23.0	65	16.5	78	28.7	216	24.9	-	-	24	18.5
21년 이상	689	41.4	63	16.0	108	39.7	438	50.5	-	-	80	61.5
미상	134	8.1	10	2.5	33	12.1	76	8.8	-	-	15	11.5
평균연수(년)	19.8		12.7		20.5		22.4		-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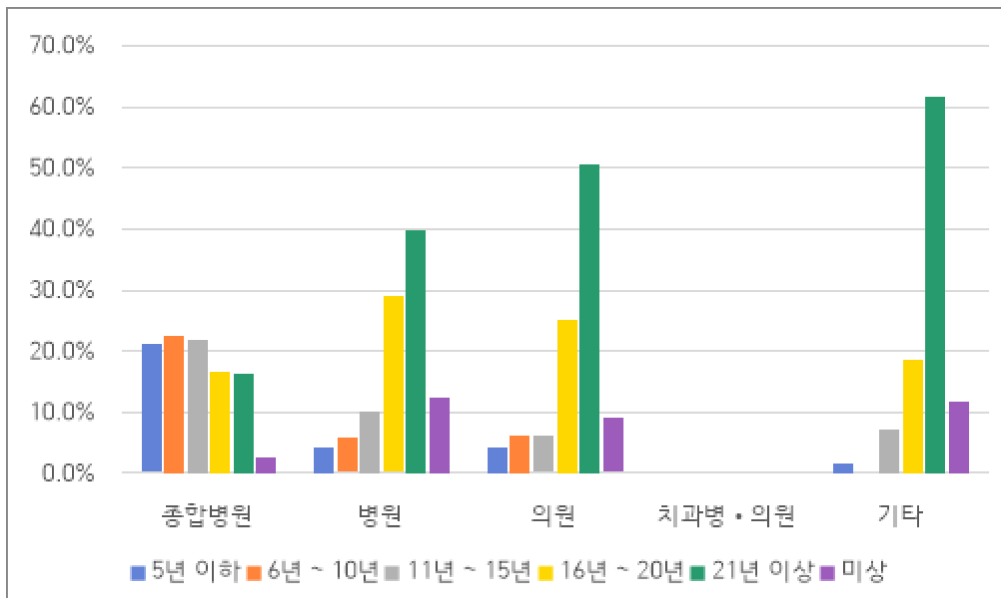


그림 26. 일반 및 투시촬영 장치 사용 연수 분포 비율

(3) 혈관조영촬영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혈관조영촬영 장치는 평균 사용 연수가 7.9년이었으며, 종합병원 8.0년, 병원급 8.8년, 의원급 5.4년이였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5년 이하가 315대(38.7%)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10년 이하가 253대(31.1%)로 그다음이었으며, 미상을 제외하고 21년 이상이 11대(1.4%)로 가장 적었다.

종합병원과 의원은 5년 이하 장치가 각각 292대(37.7%), 20대(64.5%)로 가장 많았고, 병원은 6년 이상~10년 이하가 4대(44.4%)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21년 이상 장치가 11대(1.4%)로 가장 적었고, 병원은 11년 이상 15년 이하 장치와 16년 이상 20년 이하 장치가 각 1대(11.1%)였으며, 의원은 16년 이상~20년 이하 장치가 2대(6.5%)로 가장 적었다.

표 27. 혈관조영촬영 장치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814	100	774	95.1	9	1.1	31	3.8	-	-	-	-
5년 이하	315	38.7	292	37.7	3	33.3	20	64.5	-	-	-	-
6년 ~ 10년	253	31.1	243	31.4	4	44.4	6	19.4	-	-	-	-
11년 ~ 15년	179	22.0	175	22.6	1	11.1	3	9.7	-	-	-	-
16년 ~ 20년	55	6.8	52	6.7	1	11.1	2	6.5	-	-	-	-
21년 이상	11	1.4	11	1.4	-	-	-	-	-	-	-	-
미상	1	0.1	1	0.1	-	-	-	-	-	-	-	-
평균연수(년)	7.9		8.0		8.8		5.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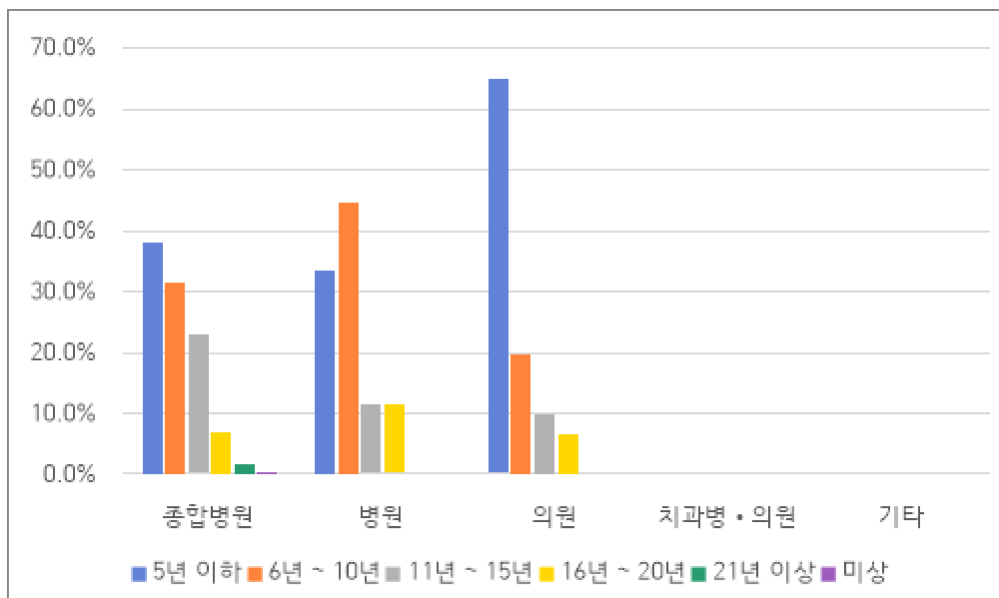


그림 27. 혈관조영촬영장치 사용 연수 분포 비율

(4) 투시(C-arm 및 섀석기)

진단용 엑스선 장치의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는 평균 사용 연수가 11.6년이었으며, 종합병원 11.0년, 병원 13.5년, 의원급 11.1년이었다. 한편 치과병·의원에는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는 없었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6년 이상 10년 이하가 228대(30.3%)로 가장 많았고, 11년 이상 15년 이하가 221대(29.4%)로 그다음이었으며, 미상을 제외하고 21년 이상이 86대(11.4%)로 가장 적었다.

종합병원과 의원은 6년 이상 10년 이하 장치가 각각 127대(38.5%), 72대(26.1%)로 가장 많았고, 병원은 11년 이상 15년 이하가 58대(41.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16년 이상 20년 이하 장치가 21대(6.4%)로 가장 적었고, 병원은 5년 이하 장치가 12대(8.5%), 의원은 21년 이상 장치가 32대(11.6%)로 가장 적었다.

표 28.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752	100	330	43.9	141	18.8	276	36.7	-	-	5	0.7
5년 이하	128	17.0	48	14.5	12	8.5	68	24.6	-	-	-	-
6년 ~ 10년	228	30.3	127	38.5	29	20.6	72	26.1	-	-	-	-
11년 ~ 15년	221	29.4	104	31.5	58	41.1	57	20.7	-	-	2	40.0
16년 ~ 20년	87	11.6	21	6.4	18	12.8	47	17.0	-	-	1	20.0
21년 이상	86	11.4	29	8.8	23	16.3	32	11.6	-	-	2	40.0
미상	2	0.3	1	0.3	1	0.7	-	0.0	-	-	-	-
평균연수(년)	11.6		11.0		13.5		11.1		-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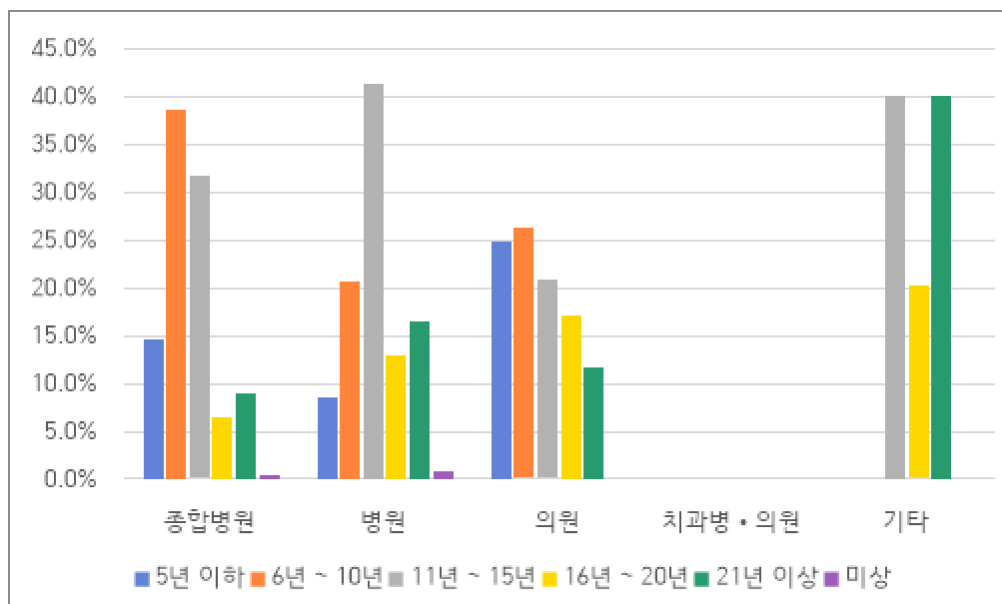


그림 28. 투시(C-arm 및 섀석기) 장치 사용 연수 분포 비율

2)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사용 연수 분포

(1) 일반촬영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일반촬영 발생기는 평균 사용 연수가 11.4년이었으며, 종합병원 7.1년, 병원 11.4년, 의원 12.6년, 치과병·의원 8.8년이었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5년 이하가 1,578대(33.9%)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 10년 이하가 1,023대(22.0%)로 그다음이었으며, 21년 이상이 1,006대(21.6%)로 11년 이상 15년 이하, 16년 이상 20년 이하보다 많았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모두 5년 이하 장치가 각각 266대(58.8%), 166대(35.0%), 784대(27.1%), 2대(40%)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병원은 16년 이상 20년 이하 장치와 21년 이상 장치가 각각 19대(4.2%), 74대(15.6%)로 같았으며, 의원은 16년 이상 20년 이하 장치가 246대(8.5%)로 가장 적었다.

표 29. 일반촬영 발생기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4,651	100	452	9.7	474	10.2	2,897	62.3	5	0.1	823	17.7
5년 이하	1,578	33.9	266	58.8	166	35.0	784	27.1	2	40.0	360	43.7
6년 ~ 10년	1,023	22.0	101	22.3	80	16.9	644	22.2	1	20.0	197	23.9
11년 ~ 15년	554	11.9	41	9.1	67	14.1	348	12.0	1	20.0	97	11.8
16년 ~ 20년	428	9.2	19	4.2	74	15.6	246	8.5	1	20.0	88	10.7
21년 이상	1,006	21.6	19	4.2	74	15.6	840	29.0	-	-	73	8.9
미상	62	1.3	6	1.3	13	2.7	35	1.2	-	-	8	1.0
평균연수(년)	11.4		7.1		11.4		12.6		8.8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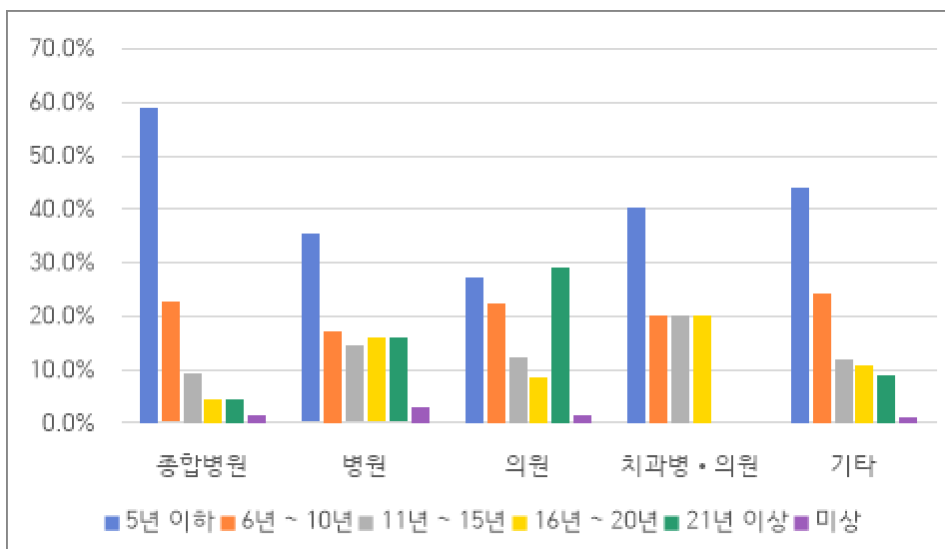


그림 29. 일반촬영 발생기 연수 분포 비율

(2) 구내촬영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구내촬영 발생기는 평균 사용 연수가 9.8년이었으며, 종합병원 9.6년, 병원 8.7년, 의원 10.1년, 치과병·의원 9.8년이였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5년 이하가 3,155대(30.4%)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 10년 이하가 2,599대(25.0%)로 그다음이었으며, 21년 이상이 41대(0.4%)로 가장 적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6년 이상 10년 이하 장치가 각각 47대(31.3%), 16대(40.0%), 8대(32.0%)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의원은 5년 이하 장치가 3,063대(30.7%)로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의원은 21년도 이상 장치가 각각 1대(0.7%), 1대(4.0%), 38대(0.4%)로 가장 적었으며, 병원은 21년 이상 장치는 없었으며, 16년 이상 20년 이하 장치는 2대(5.0%)이었다.

표 30. 구내촬영 발생기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10,393	100	150	1.4	40	0.4	25	0.2	9,986	96.1	192	1.8
5년 이하	3,155	30.4	39	26.0	11	27.5	7	28.0	3,063	30.7	35	18.2
6년 ~ 10년	2,599	25.0	47	31.3	16	40.0	8	32.0	2,467	24.7	61	31.8
11년 ~ 15년	2,325	22.4	38	25.3	11	27.5	3	12.0	2,222	22.3	51	26.6
16년 ~ 20년	2,223	21.4	25	16.7	2	5.0	6	24.0	2,147	21.5	43	22.4
21년 이상	41	0.4	1	0.7	-	-	1	4.0	38	0.4	1	0.5
미상	50	0.5	-	-	-	-	-	-	49	0.5	1	0.5
평균연수(년)	9.8		9.6		8.7		10.1		9.8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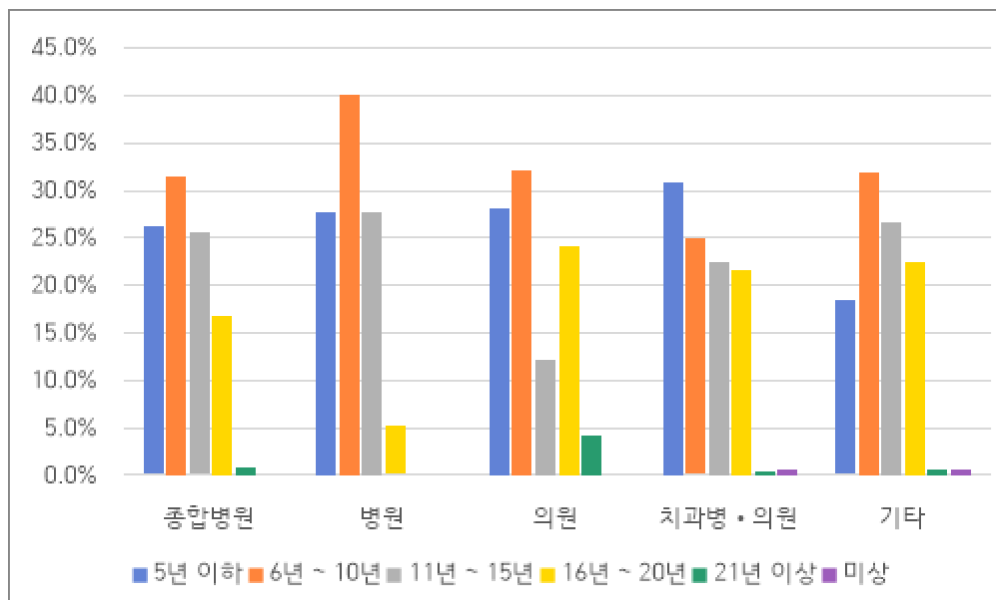


그림 30. 구내촬영 발생기 사용 연수 분포 비율

(3) 투시(C-arm 및 섀석기)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투시(C-arm 및 섀석기) 발생기는 평균 사용 연수가 8.6년이었으며, 종합병원 8.3년, 병원 9.2년, 의원 8.5년, 치과병·의원 14.9년이였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5년 이하가 3,763대(40.6%)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 10년 이하가 2,544대(27.4%)로 그다음이었으며, 미상을 제외하고 21년 이상이 690대(7.4%)로 가장 적었다.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은 5년 이하 장치가 각각 587대(39.5%), 620대(32.2%), 2,535대(44.6%)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의원은 5년 이하, 6년 이상 10년 이하 장치는 없었으며, 11년 이상 15년 이하 장치가 37대(55.2%), 16년 이상 20년 장치 29대(43.3%)이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연도 미상 외 21년 이상 장치가 각각 43대(2.9%), 113대(5.9%), 515대(9.1%)로 가장 적었다.

표 31. 투시(C-arm 및 섀석기) 발생기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9,270	100	1,485	16.0	1,928	20.8	5,678	61.3	67	0.7	112	1.2
5년 이하	3,763	40.6	587	39.5	620	32.2	2,535	44.6	-	-	21	18.8
6년 ~ 10년	2,544	27.4	437	29.4	618	32.1	1,477	26.0	-	-	12	10.7
11년 ~ 15년	1,451	15.7	280	18.9	395	20.5	713	12.6	37	55.2	26	23.2
16년 ~ 20년	758	8.2	134	9.0	169	8.8	398	7.0	29	43.3	28	25.0
21년 이상	690	7.4	43	2.9	113	5.9	515	9.1	-	-	19	17.0
미상	64	0.7	4	0.3	13	0.7	40	0.7	1	1.5	6	5.4
평균연수(년)	8.6		8.3		9.2		8.4		14.9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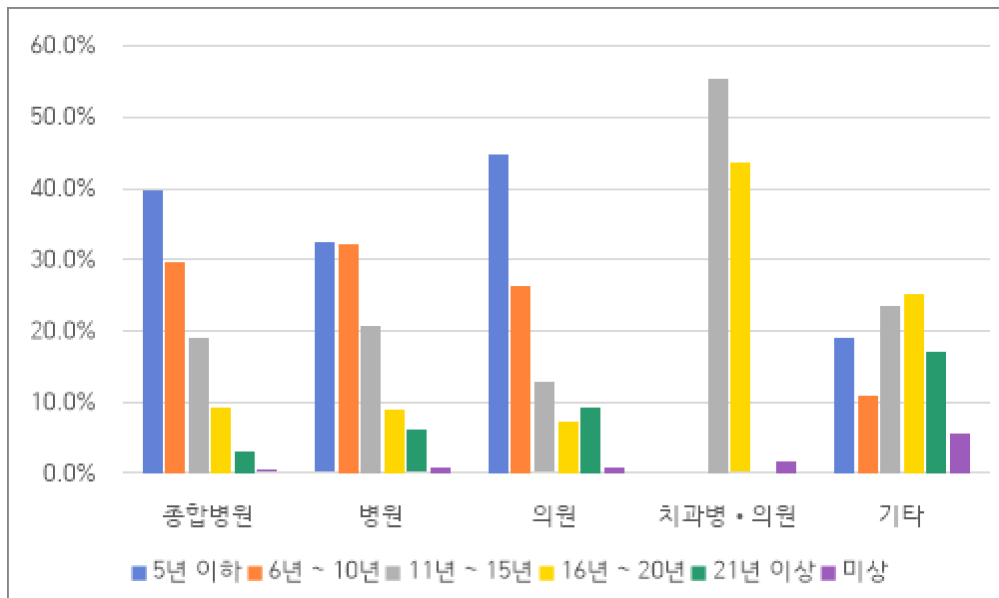


그림 31. 투시(C-arm 및 섀석기)용 발생기 사용 연수 분포 비율

(4) 골밀도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의 골밀도 장치는 평균 사용 연수가 8.7년이었으며, 종합병원 8.7년, 병원 9.1년, 의원 8.6년, 치과병·의원 13.2년이였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5년 이하가 4,009대(35.8%)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 10년 이하가 3,315대(29.6%)로 그다음이었으며, 미상을 제외하고 21년 이상이 469대(4.2%)로 가장 적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5년 이하 장치가 각각 191대(32.8%), 413대(36.4%), 3,323대(36.6%)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의원은 11년 이상 15년 이하 장치가 3대(50%)이었다. 치과병·의원을 제외하고 21년 이상 장치가 종합병원 16대(2.7%), 병원 50대(4.4%), 의원 370대(4.1%)로 가장 적었다.

표 32. 골밀도 발생기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11,198	100	583	5.2	1,136	10.1	9,091	81.2	6	0.1	382	3.4
5년 이하	4,009	35.8	191	32.8	413	36.4	3,323	36.6	1	16.7	81	21.2
6년 ~ 10년	3,315	29.6	193	33.1	304	26.8	2,723	30.0	-	-	95	24.9
11년 ~ 15년	2,264	20.2	132	22.6	211	18.6	1,833	20.2	3	50.0	85	22.3
16년 ~ 20년	1,080	9.6	51	8.7	153	13.5	792	8.7	2	33.3	82	21.5
21년 이상	469	4.2	16	2.7	50	4.4	370	4.1	-	-	33	8.6
미상	61	0.5	-	-	5	0.4	50	0.5	-	-	6	1.6
평균연수(년)	8.7		8.7		9.1		8.6		13.2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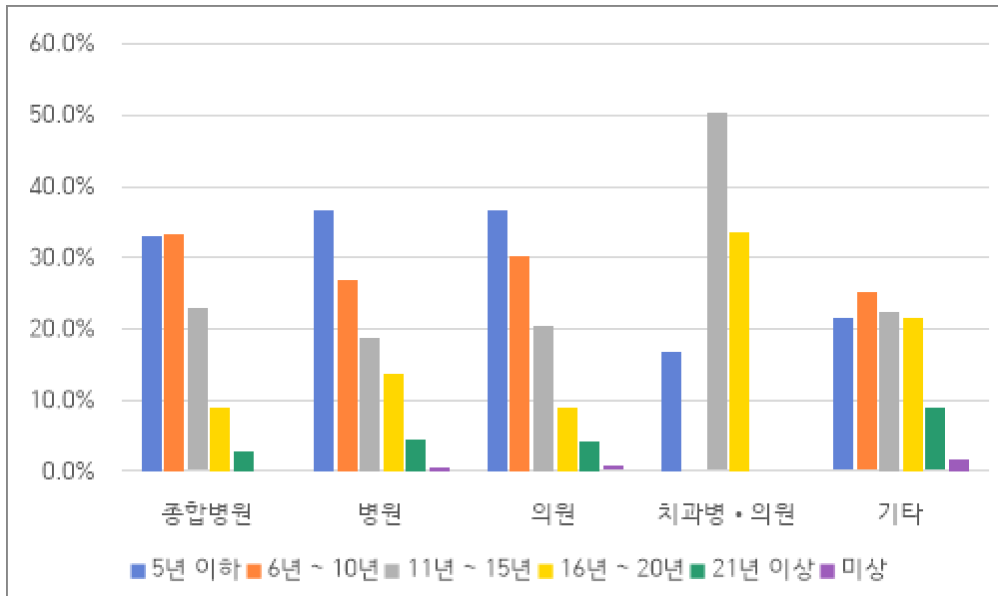


그림 32. 골밀도 발생기 사용 연수 분포 비율

3)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사용 연수 분포

(1) 구내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구내촬영 장치는 평균 사용 연수가 12.2년이었으며, 종합병원 10.7년, 병원 11.2년, 의원 13.6년, 치과병·의원 12.0년이었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6년 이상 10년 이하가 5,120대(28.2%)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가 4,782대(26.3%)로 그다음이었으며, 21년 이상이 3,752대(20.7%)로 11년 이상 15년 이하, 16년 이상 20년 이하보다 많았다.

종합병원, 병원은 5년 이하 장치가 각각 99대(33.8%), 22대(37.9%)로 가장 많았고, 의원은 21년 이상이 20대(25.0%)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병·의원은 6년 이상 10년 이하 장치가 4,947대(29.0%)로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및 치과병·의원에서 16년 이상 20년 이하 장치가 각각 28대(9.6%), 6대(10.3%), 9대(11.3%), 1,693대(9.9%)로 가장 적었다.

표 33. 구내촬영 장치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18,164	100	293	1.6	58	0.3	80	0.4	17,048	93.9	685	3.8
5년 이하	4,782	26.3	99	33.8	22	37.9	17	21.3	4,541	26.6	103	15.0
6년 ~ 10년	5,120	28.2	80	27.3	10	17.2	16	20.0	4,947	29.0	67	9.8
11년 ~ 15년	2,369	13.0	38	13.0	7	12.1	18	22.5	2,224	13.0	82	12.0
16년 ~ 20년	1,903	10.5	28	9.6	6	10.3	9	11.3	1,693	9.9	167	24.4
21년 이상	3,752	20.7	43	14.7	12	20.7	20	25.0	3,428	20.1	249	36.4
미상	238	1.3	5	1.7	1	1.7	-	-	215	1.3	17	2.5
평균연수(년)	12.2		10.7		11.2		13.6		12.0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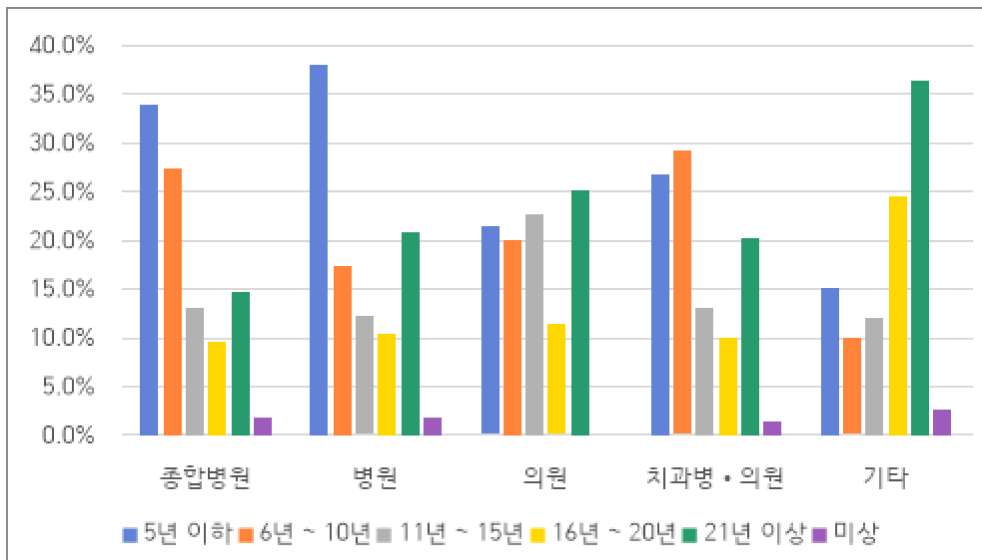


그림 33. 구내촬영 장치 사용 연수 분포 비율

(2) 파노라마 및 세팔로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파노라마 및 세팔로 장치는 평균 사용 연수가 16.2년이었으며, 종합병원 13.1년, 병원 17.5년, 의원 10.3년, 치과병·의원 16.4년이었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11년 이상 15년 이하가 1,523대(29.6%)로 가장 많았고, 16년 이상~20년 이하가 1,484대(28.9%)로 그다음이었으며, 미상을 제외하고 5년 이하가 270대(5.3%)로 가장 적었다.

종합병원과 병원 및 치과병·의원은 11년 이상 15년 이하 장치가 각각 35대(26.3%), 10대(43.5%), 1,445대(29.9%), 의원은 5년 이하 장치가 35대(49.3%)로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은 5년 이하 장치와 21년 이상 장치가 21대(15.8%)로 동일하게 가장 적었으며, 병원은 6년 이상 10년 이하 장치와 16년 이상 20년 이하 장치가 1대(4.3%)로 동일하게 가장 적었다. 의원은 6년 이상 10년 이하 장치가 2대(2.8%), 치과병·의원은 5년 이하 장치가 202대(4.2%)로 가장 적었다.

표 34. 파노라마 및 세팔로 장치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5,138	100	133	2.6	23	0.4	71	1.4	4,840	94.2	71	1.4
5년 이하	270	5.3	21	15.8	-	0.0	35	49.3	202	4.2	12	16.9
6년 ~ 10년	577	11.2	32	24.1	1	4.3	2	2.8	521	10.8	21	29.6
11년 ~ 15년	1,523	29.6	35	26.3	10	43.5	14	19.7	1,445	29.9	19	26.8
16년 ~ 20년	1,484	28.9	22	16.5	1	4.3	12	16.9	1,433	29.6	16	22.5
21년 이상	1,149	22.4	21	15.8	9	39.1	8	11.3	1,109	22.9	2	2.8
미상	135	2.6	2	1.5	2	8.7	-	-	130	2.7	1	1.4
평균연수(년)	16.2		13.1		17.5		10.3		16.4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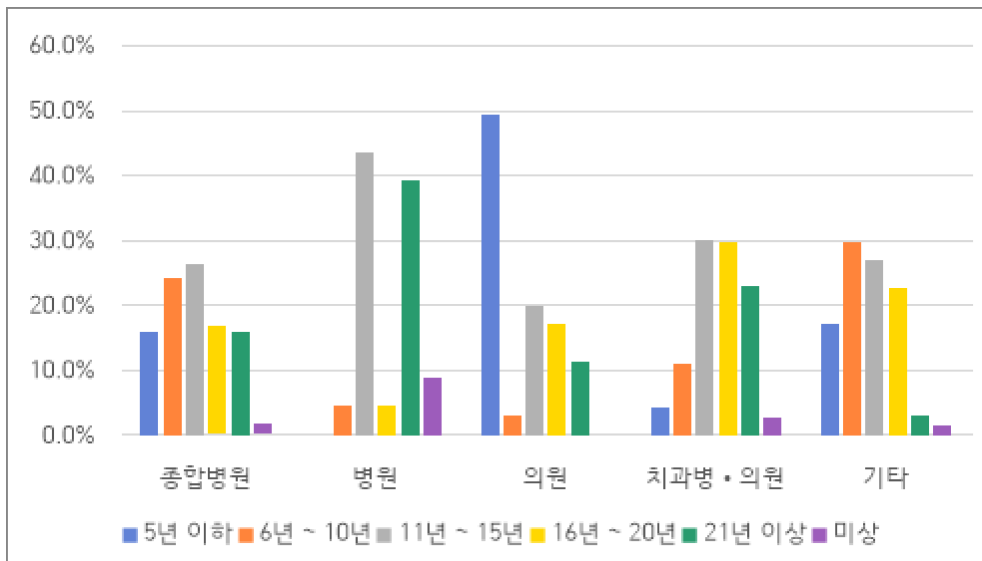


그림 34. 파노라마 및 세팔로장치 사용 연수 분포 비율

4)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 사용 연수 분포

(1) 전신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의 전신용 CT장치는 평균 사용 연수가 9.3년이었으며, 종합병원 8.1년, 병원 10.1년, 의원 10.2년 치과병·의원 8.3년이였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5년 이하가 923대(34.7%)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 10년 이하가 721대(27.1%)로 그다음이었으며, 미상을 제외하고 21년 이상이 149대(5.6%)로 가장 적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5년 이하 장치가 각각 403대(38.3%), 268대(30.6%), 233대(34.7%)로 가장 많았고, 21년 이상 장치가 각각 13대(1.2%), 67대(7.7%), 62대(9.2%)로 가장 적었다. 치과병·의원은 6년 이상 10년 이하 장치가 2대(66.7%), 11년 이상 15년 이하 장치가 1대(33.3%)이었다.

표 35. 전신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2,662	100	1,053	39.6	875	32.9	671	25.2	3	0.1	60	2.3
5년 이하	923	34.7	403	38.3	268	30.6	233	34.7	-	0.0	19	31.7
6년 ~ 10년	721	27.1	309	29.3	253	28.9	143	21.3	2	66.7	14	23.3
11년 ~ 15년	518	19.5	258	24.5	149	17.0	108	16.1	1	33.3	2	3.3
16년 ~ 20년	318	11.9	69	6.6	127	14.5	108	16.1	-	-	14	23.3
21년 이상	149	5.6	13	1.2	67	7.7	62	9.2	-	-	7	11.7
미상	33	1.2	1	0.1	11	1.3	17	2.5	-	-	4	6.7
평균연수(년)	9.3		8.1		10.1		10.2		8.3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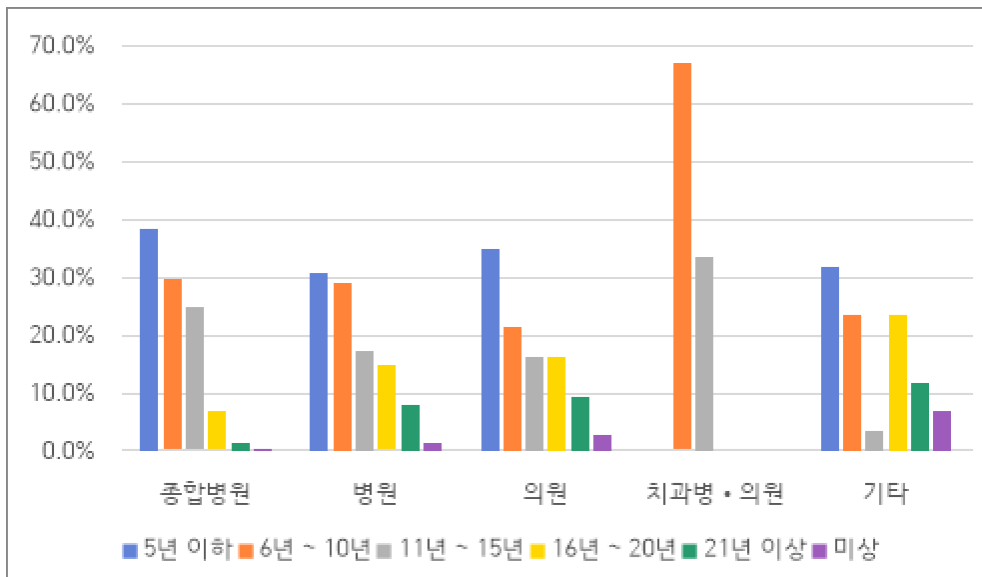


그림 35. 전신용 CT 사용 연수 분포 비율

(2) 치과 및 이비인후과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의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장치는 평균 사용 연수가 6.3년이었으며, 종합병원 6.3년, 병원 7.7년, 의원 6.0년, 치과병·의원 6.3년이였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5년 이하가 8,522대(45.1%)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10년 이하가 8,061대(42.7%)로 그다음이었으며, 21년 이상이 4대(0.02%)로 가장 적었다.

종합병원, 의원, 치과병·의원은 5년 이하 장치가 각각 107대(45.7%), 737대(47.4%), 7,600대(44.9%)로 가장 많았고, 병원은 6년 이상 10년 이하 장치가 38대(46.9%)로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은 16년 이상 20년 이하 장치가 각각 4대(1.7%), 5대(6.2%), 5대(0.3%)로 가장 적었으며, 치과병·의원은 21년 이상 장치가 4대(0.02%)로 가장 적었다.

표 36.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18,886	100	234	1.2	81	0.4	1,554	8.2	16,940	89.7	77	0.4
5년 이하	8,522	45.1	107	45.7	27	33.3	737	47.4	7,600	44.9	51	66.2
6년 ~ 10년	8,061	42.7	98	41.9	38	46.9	621	40.0	7,288	43.0	16	20.8
11년 ~ 15년	1,974	10.5	25	10.7	11	13.6	191	12.3	1,738	10.3	9	11.7
16년 ~ 20년	325	1.7	4	1.7	5	6.2	5	0.3	310	1.8	1	1.3
21년 이상	4	0.02	-	-	-	-	-	-	4	0.02	-	-
미상	-	-	-	-	-	-	-	-	-	-	-	-
평균연수(년)	6.3		6.3		7.7		6.0		6.3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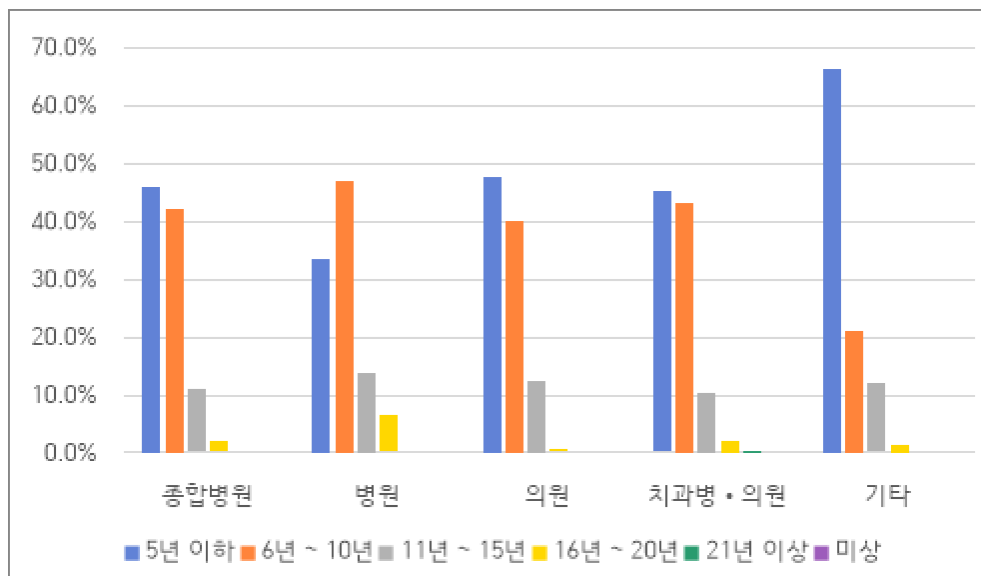


그림 36. 치과 및 이비인후과용 CT 사용 연수 분포 비율

(3) 부위한정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의 부위한정용 CT장치는 평균 사용 연수가 3.5년이었으며, 종합병원 3.7년, 병원 4.5년, 의원급 3.3년이었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5년 이하가 218대(81.6%)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 10년 이하가 48대(18.0%)로 그다음이었으며, 11년 이상~15년 이하가 1대(0.4%)로 가장 적었다.

종합병원은 5년 이하 장치가 9대(81.8%)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10년 이하 장치 2대(18.2%)이었다.

병원은 5년 이하 장치가 22대(61.1%), 6년 이상~10년 이하 장치가 14대(38.9%), 의원급은 5년 이하 장치가 220대(82.4%), 6년 이상 10년 이하 장치가 32대(14.5%), 11년 이상 15년 이하 장치가 1대(0.5%)이었다.

표 37. 부위한정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267	100	11	4.1	36	13.5	220	82.4	-	-	-	-
5년 이하	218	81.6	9	81.8	22	61.1	187	85.0	-	-	-	-
6년 ~ 10년	48	18.0	2	18.2	14	38.9	32	14.5	-	-	-	-
11년 ~ 15년	1	0.4	-	-	-	-	1	0.5	-	-	-	-
16년 ~ 20년	-	-	-	-	-	-	-	-	-	-	-	-
21년 이상	-	-	-	-	-	-	-	-	-	-	-	-
미상	-	-	-	-	-	-	-	-	-	-	-	-
평균연수(년)	3.5		3.7		4.5		3.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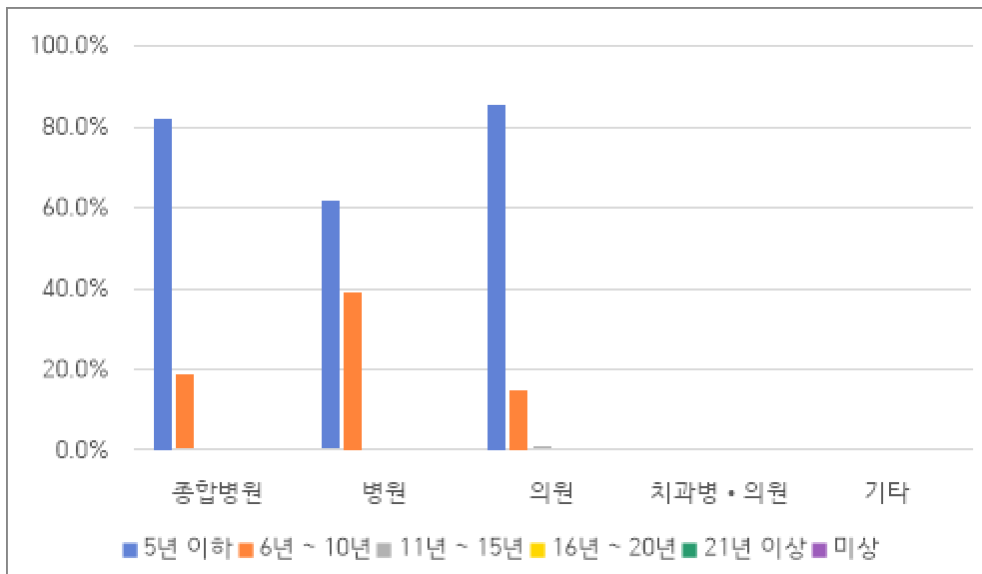


그림 37. 부위한정용 CT 사용 연수 분포 비율

(4) PET-CT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의 PET-CT는 평균 사용 연수가 10.6년이었으며, 종합병원 10.5년, 병원급 12.5년, 의원급 12.0년이었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11년 이상~15년 이하가 59대(33.3%)로 가장 많았고, 5년 이하가 52대(29.4%)로 그다음이었으며, 미상을 제외하고 21년 이상이 4대(2.3%)로 가장 적었다.

종합병원은 11년 이상~15년 이하 장치가 48대(30.0%)로 가장 많았고, 21년 이상 장치가 4대(2.5%)로 가장 적었다. 병원은 11년 이상~15년 이하 장치가 2대(100%)이었으며, 의원은 11년 이상 15년 이하 장치가 9대(60%), 5년 이하 및 16년 이상 20년 이하 장치가 동일하게 2대(13.3%)이었으며, 6년 이상 10년 이하 장치가 1대(6.7%)이었다.

표 38. PET-CT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177	100	160	90.4	2	1.1	15	8.5	-	-	-	-
5년 이하	52	29.4	50	31.3	-	-	2	13.3	-	-	-	-
6년 ~ 10년	24	13.6	23	14.4	-	-	1	6.7	-	-	-	-
11년 ~ 15년	59	33.3	48	30.0	2	100	9	60.0	-	-	-	-
16년 ~ 20년	37	20.9	35	21.9	-	-	2	13.3	-	-	-	-
21년 이상	4	2.3	4	2.5	-	-	-	-	-	-	-	-
미상	1	0.6	-	-	-	-	1	6.7	-	-	-	-
평균연수(년)	10.6		10.5		12.5		12.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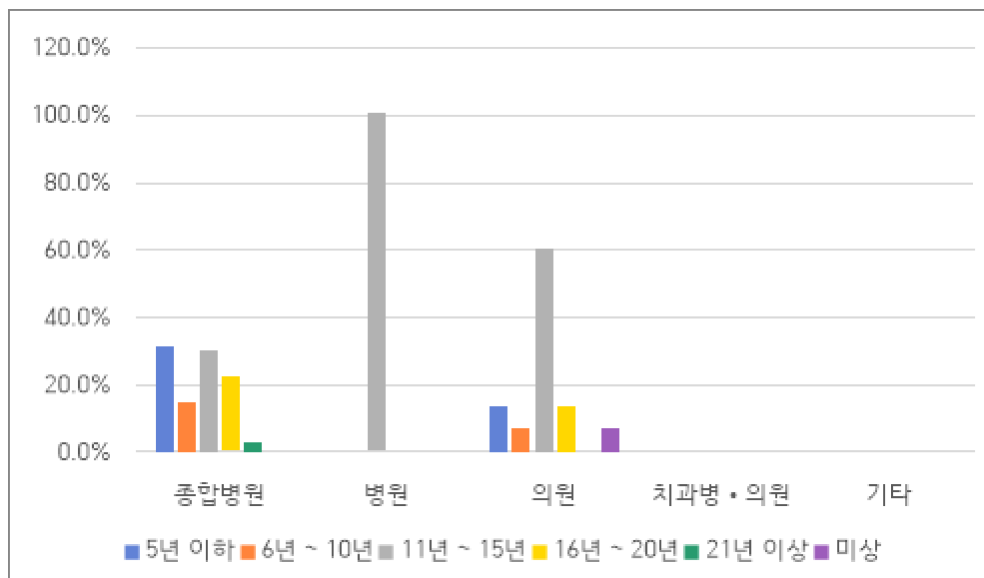


그림 38. PET-CT 사용 연수 분포 비율

5) 유방촬영용 장치 사용 연수 분포

유방촬영용 장치는 평균 사용 연수가 11.5년이었으며, 종합병원 8.7년, 병원 12.6년, 의원 11.6년, 치과병·의원 2.0년이였다.

사용 연수 구간에서는 5년 이하가 1,321대(30.1%)로 가장 많았고, 6년 이상~10년 이하가 1,011대(23.1%)로 그다음이었으며, 미상을 제외하고 16년 이상 20년 이하 장치가 628대(14.3%)로 가장 적었다.

종합병원은 6년 이상 10년 이하 장치가 204대(35.1%), 병원과 의원은 5년 이하 장치가 각각 201대(27.1%), 914대(30.5%)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은 21년 이상 장치가 23대(4.0%), 병원과 의원은 16년 이상 20년 이하 장치가 각각 103대(13.9%), 475대(15.8%)로 가장 적었다.

표 39. 유방촬영용 장치 사용 연수 분포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기타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합계	4,384	100	581	13.3	743	16.9	2,998	68.4	1	0.0	61	1.4
5년 이하	1,321	30.1	198	34.1	201	27.1	914	30.5	1	100	7	11.5
6년 ~ 10년	1,011	23.1	204	35.1	164	22.1	636	21.2	-	-	7	11.5
11년 ~ 15년	713	16.3	114	19.6	110	14.8	478	15.9	-	-	11	18.0
16년 ~ 20년	628	14.3	41	7.1	103	13.9	475	15.8	-	-	9	14.8
21년 이상	699	15.9	23	4.0	161	21.7	489	16.3	-	-	26	42.6
미상	12	0.3	1	0.2	4	0.5	6	0.2	-	-	1	1.6
평균연수(년)	11.5		8.7		12.6		11.6		2.0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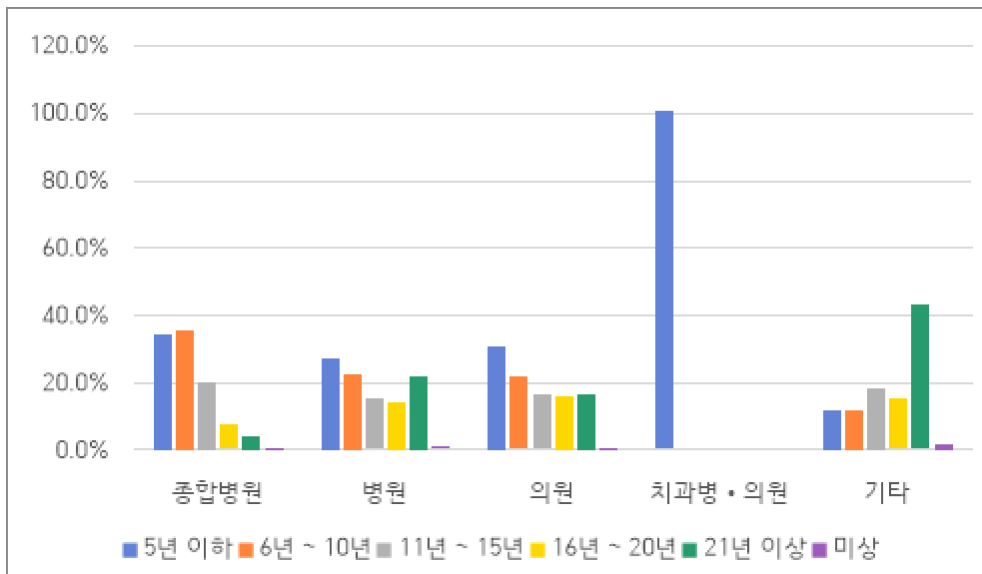


그림 39. 유방촬영용 장치 사용 연수 분포 비율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



III

부 록



부 록

㉠ 국내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동향

1. 국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2016년~2025년)

우리나라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2016년 82,357대에서 2025년 110,736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0년간 28,379대, 연평균 3.3% 증가하였다.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2016년 9,454대에서 2025년 21,992대로 10년간 12,538 대, 연평균 9.8% 증가하였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기는 2016년 22,191대에서 2025년 35,512대로 10년간 13,321대, 연평균 5.4% 증가하였으며, 유방 촬영용 장치는 2016년 3,138대에서 2025년 4,384대로 10년간 1,246대, 연평균 3.8% 증가하였다.

그리고,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27,359대(33.2%), 25,114대(2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기가 26,642대(30.2%)에서 2025년 35,512대(3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40. 2016년~2025년 국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구분	합계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	
	대	대	%	대	%	대	%	대	%	대	%
2016년	82,357	20,215	24.5	22,191	26.9	27,359	33.2	9,454	11.5	3,138	3.8
2017년	84,756	20,423	24.1	24,926	29.4	25,114	29.6	11,086	13.1	3,207	3.8
2018년	88,294	21,249	24.1	26,642	30.2	24,277	27.5	12,805	14.5	3,321	3.8
2019년	89,955	21,201	23.6	28,321	31.5	22,787	25.3	14,215	15.8	3,431	3.8
2020년	94,187	21,114	22.4	31,508	33.5	22,213	23.6	15,787	16.8	3,565	3.8
2021년	97,745	21,237	21.7	34,154	34.9	21,468	22.0	17,184	17.6	3,702	3.8
2022년	101,646	21,847	21.5	33,338	32.8	24,014	23.6	18,579	18.3	3,868	3.8
2023년	104,953	22,519	21.5	34,960	33.3	23,664	22.5	19,752	18.8	4,058	3.9
2024년	107,912	23,046	21.4	36,325	33.7	23,379	21.7	20,952	19.4	4,210	3.9
2025년	110,736	25,546	23.1	35,512	32.1	23,302	21.0	21,992	19.9	4,384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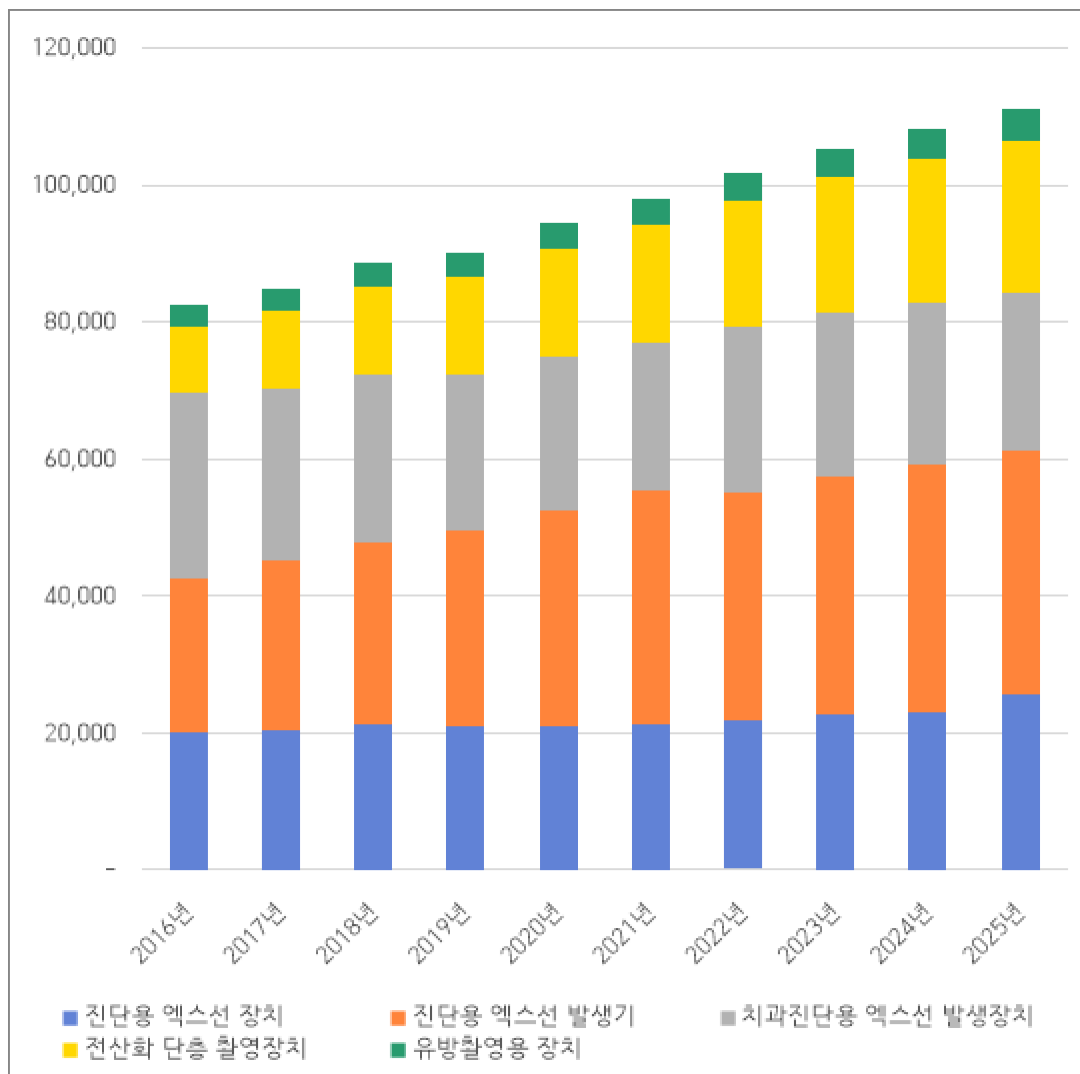


그림 40. 2016년~2025년 국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2. 외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2009년~2018년)

유엔과학위원회 2020/2021 보고서(UNSCEAR 2020/2021 report, SOURCES, EFFECTS AND RISKS OF IONIZING RADIATION)에 수록된 2009년~2018년 사이 외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종류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엑스선 촬영장치는 스위스가 인구 백만명당 496대로 가장 많았고, 벨기에 342대, 아랍에미리트 283대, 핀란드 172대, 아르헨티나 167대 등 순이었으며, 벨라루스가 30대로 가장 적었다.

투시 촬영장치는 스위스가 207대로 가장 많았고, 불가리아 92대, 덴마크 78대, 노르웨이 78대, 호주 76대, 아랍에미리트 69대 등 순이었으며, 그리스가 2.3대로 가장 적었다.

유방 촬영장치는 그리스가 59대로 가장 많았고, 미국 47대, 벨기에 45대, 사이프러스 42대, 아랍에미리트 40대 등 순이었으며, 중국이 1.3대로 가장 적었다.

치과 촬영장치는 미국이 1,757대로 가장 많았고, 스위스 1,428대, 룩셈부르크 1,220대, 스웨덴 1,200대, 덴마크 1,171대, 아이슬란드 1,115대 등 순이었으며, 중국이 4.9대로 가장 적었다.

혈관조영장치는 아랍에미리트가 28대로 가장 많았고, 아이슬란드 23대, 룩셈부르크 18대, 노르웨이 18대, 핀란드 17대, 벨기에 16대 등 순이었으며, 필리핀이 0.4대로 가장 적었다.

골밀도 장치는 그리스가 55대로 가장 많았고, 사이프러스 38대, 미국 36대, 아랍에미리트 34대, 벨기에 31대, 스위스 24대, 슬로베니아 22대 등 순이었으며, 필리핀이 0.4대로 가장 적었다.

CT(전신용) 장치는 아이슬란드가 49.5대로 가장 많았고, 미국 41.9대, 그리스 34.9대, 불가리아 32.9대, 사이프러스 30.5대, 스웨덴 26.5대, 벨기에 24.7대 등 순이었으며, 아랍에미리트가 8.7대로 가장 적었다.

콘빔 CT(치과용 포함)는 리투아니아가 26대로 가장 많았고, 벨기에 20.2대, 덴마크 18.7대, 스웨덴 18.5대, 체코 16.2대, 에스토니아 15.2대 등 순이었으며, 벨라루스가 0.4대로 가장 적었다.

〈 표 41. 국가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현황* 〉

국가	엑스선 촬영장치	투시 촬영장치	유방 촬영장치	치과 촬영장치	혈관 조영장치	골밀도 장치	CT (전신용)	CT**
아르헨티나	167	-	19	89	8.3	12	-	-
호주	113	76	27	640	-	21	-	-
벨기에	342	2.6	45	1,064	16	31	24.7	20.2
브라질	110	7.2	27	230	4.1	11	-	-
불가리아	92	92	28	93	8.7	6.4	32.9	1.5
벨라루스	30	57	5.3	38	3.5	0.9	9.0	0.4
중국	35	-	1.3	4.9	1	-	-	-
사이프러스	117	48	42	483	7.4	38	30.5	3.2
체코	110	37	12	653	12	9.7	22.4	16.2
덴마크	96	78	17	1,171	4.4	18	23.3	18.7
에스토니아	109	11	12	661	8.4	7.6	17.5	15.2
핀란드	172	5.3	30	1,107	17	11	22.0	2.0
그리스	84	2.3	59	699	11	55	34.9	3.2
아이슬란드	157	61	15	1,115	23	12	49.5	11.7

국가	엑스선 촬영장치	투시 촬영장치	유방 촬영장치	치과 촬영장치	혈관 조영장치	골밀도 장치	CT (전신용)	CT**
이란	58	-	7.6	129	2.6	-	-	-
리투아니아	131	35	15	565	8	7.6	22.5	26
룩셈부르크	104	63	12	1,220	18	1.8	15.8	1.8
말레이시아	73	5.8	7.6	108	5.1	3.7	-	-
노르웨이	70	78	15	662	18	10	-	-
필리핀	32	10	4.4	5.6	0.4	0.4	-	-
폴란드	91	28	15	345	9.8	8.1	-	-
루마니아	59	36	12	109	4.6	10	14.7	0.7
러시아	148	14	19	38	3.2	1.5	11.4	5.2
슬로베니아	78	40	19	212	8.3	22	14.2	6.8
스페인	76	23	14	828	5.4	5.3	15.9	1.1
스웨덴	59	52	18	1,200	12	8.5	26.5	18.5
스위스	496	207	29	1,428	-	24	-	-
태국	97	28	6.9	124	3.6	3.5	11.1	11.6
아랍에미리트	283	69	40	541	28	34	8.7	2.6
미국	52	25	47	1,757	8.9	36	41.9	-
우루과이	71	21	23	175	6.4	2.3	-	-

* 인구 백만명당 장치 수

** Dental CT, Cone beam CT

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촬영실 방어시설 구조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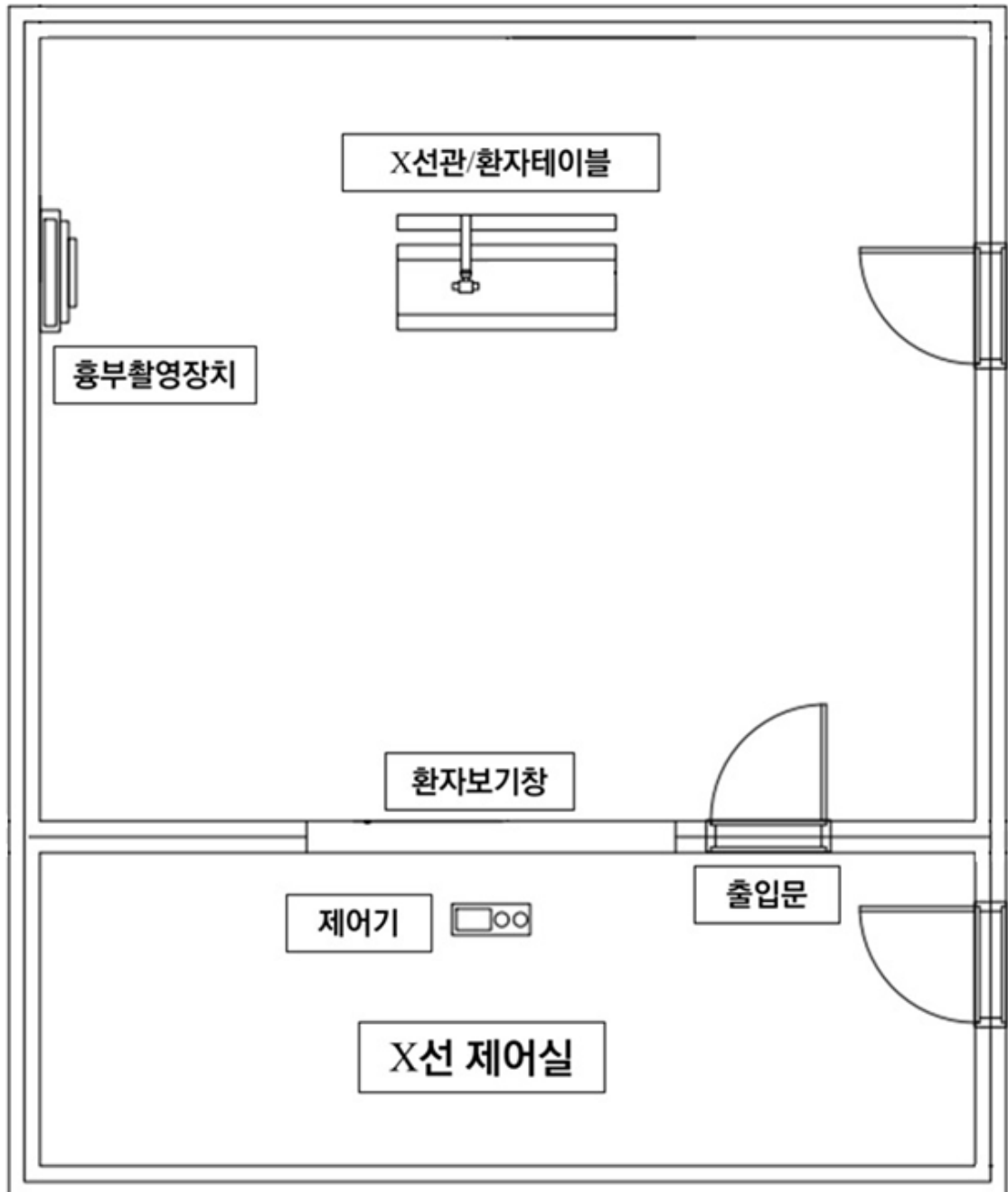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촬영실 방어시설 구조도는 의료기관 안전관리책임자 및 방어시설 시공자가 촬영실의 방어시설을 구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외 방사선 방어시설 관련 규제 사항 및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다.

실제 방어시설 시공할 때에는 촬영실의 크기 및 공간 등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모식도에서 제시한 방사선 장치 위치, 엑스선 제어실 위치, 출입문의 위치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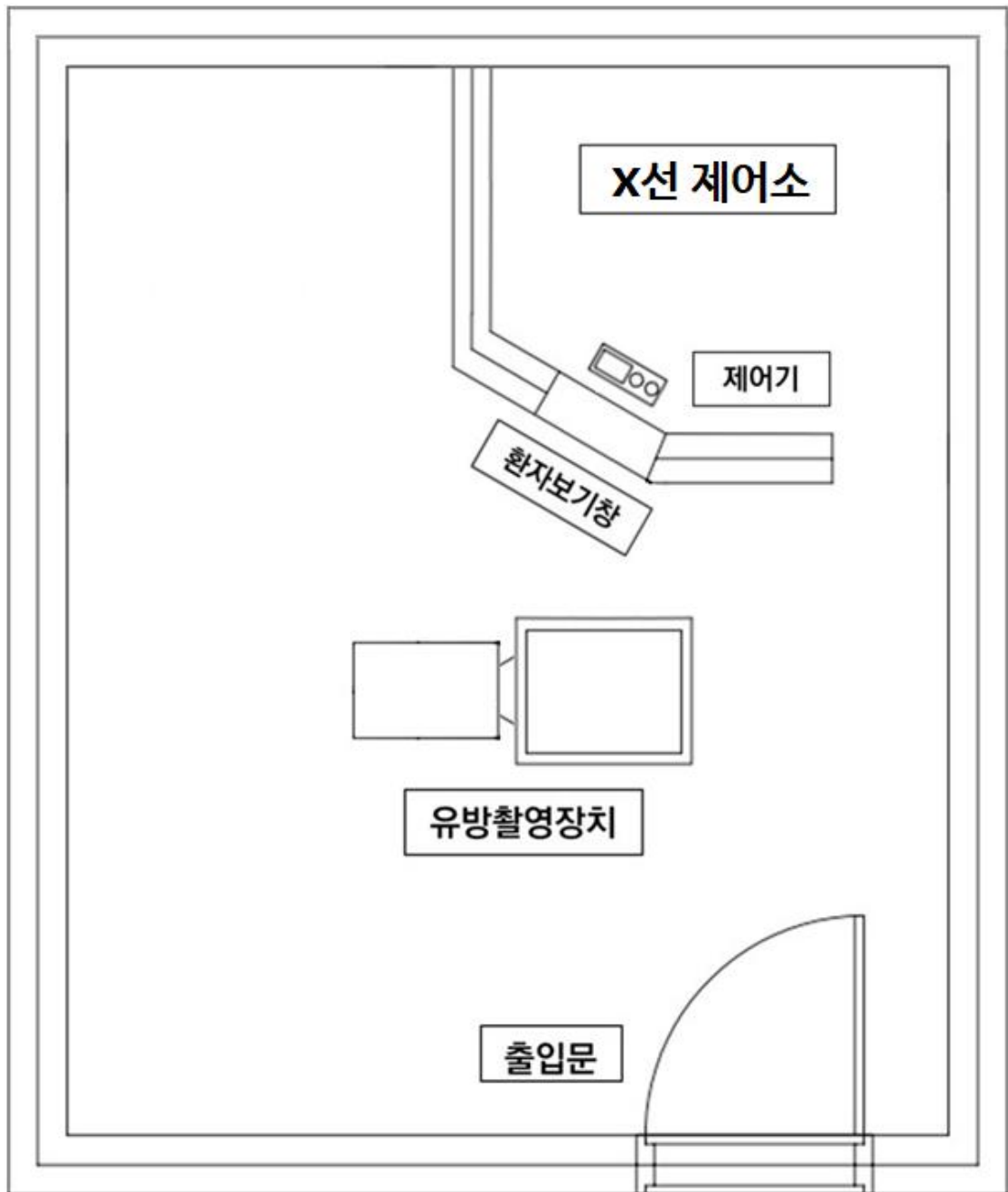
다만, 촬영실, 제어실·소의 크기는 종사자 및 환자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촬영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환자보기창은 종사자가 환자의 움직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어실·소에서 촬영실의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어시설의 누설선량은 방사선 장치의 위치, 검사실의 크기, 엑스선관과 벽 사이의 거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시공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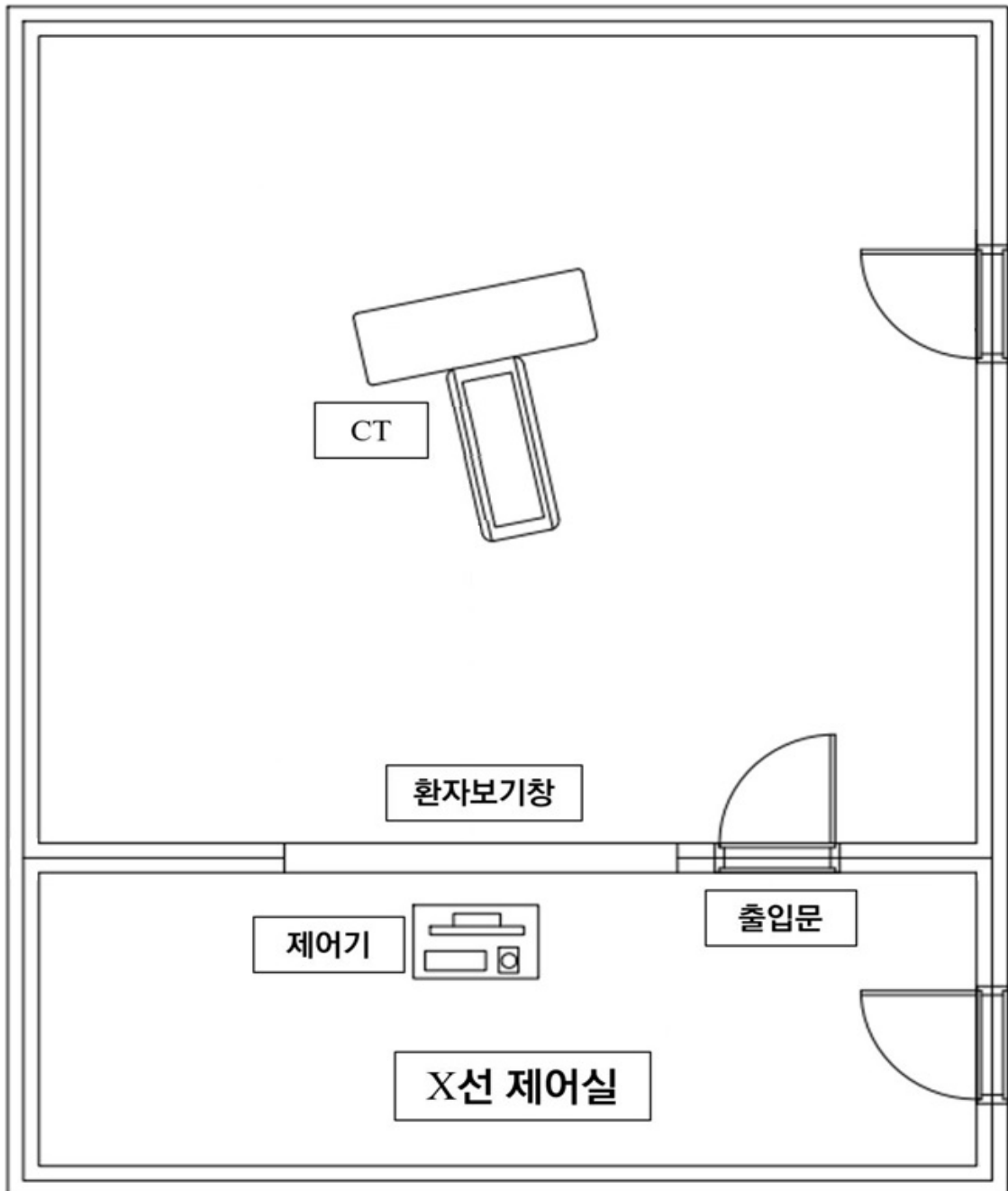
1. 일반촬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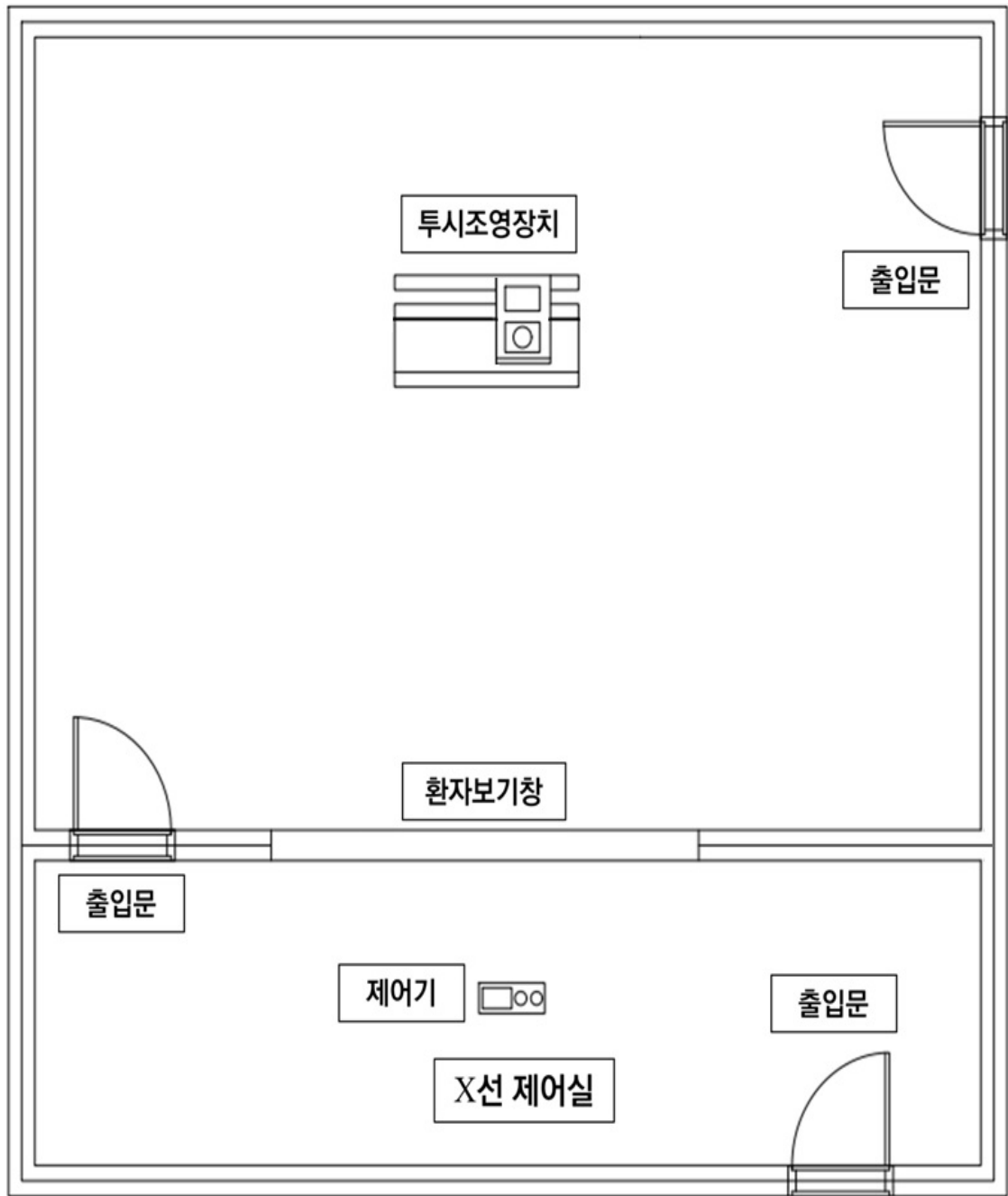
2. 유방촬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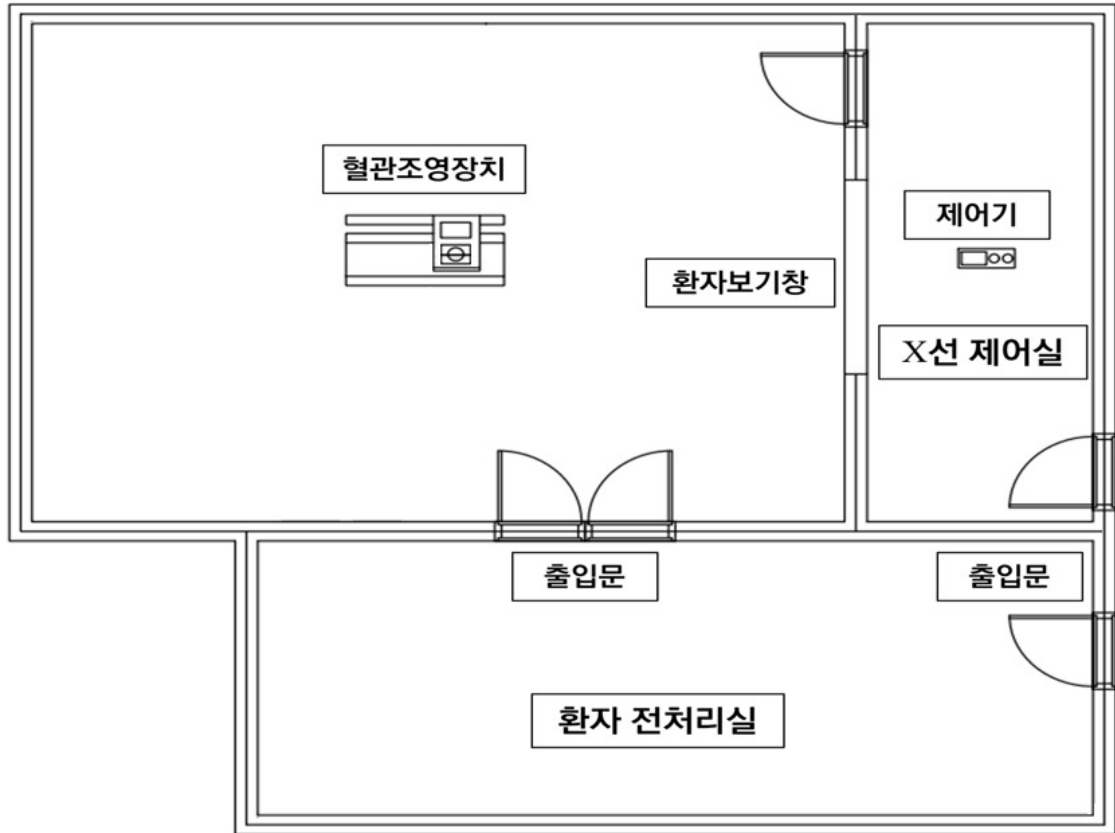
3. CT촬영실



4. 투시촬영실



5. 혈관조영촬영실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1. 법제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22호, 2025.7.18. 시행.
2. 원종훈 외 3인. 2022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통계. 주간 건강과 질병 2024; 17(2): 61-71.
3. 길종원 외 8인. 2023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추계학술대회. 2023.
4. 질병관리청. 방사선 방어시설 현장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2023.
5. 송승기 외 2인. 2021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통계. 주간 건강과 질병 2022; 15(51): 3021-3032.
6. UNSCEAR. Sources, effects and risks of ionizing radiation Vol. I Sources. UNSCEAR 2020/2021 report. United Nations, New York, New York, 2022.
7. 김현지 외 3인. 2020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통계. 주간 건강과 질병 2021; 14(47): 3329-3336.
8. 김현지 외 2인. 2019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통계. 주간 건강과 질병 2020; 13(16): 972-979.
9. 김현지 외 3인. 2018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통계. 주간 건강과 질병 2019; 12(51): 2388-2396.
10. 김현지 외 9인. 2017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현황. 주간 건강과 질병 2018; 11(50): 1698-1701.
11. 김현지 외 8인. 2016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현황. 주간 건강과 질병 2017; 11(4): 93-96.
12. 김현지 외 9인. 2015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통계. 주간 건강과 질병 2016; 9(53): 1080-1083.
13. 국가통계포털. 총인구.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Main.do>.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

발행일 : 2026년 6월

발행인 : 임 승 관

편집위원장 : 최 종 희

질병관리청 : 김정연, 박진희, 길종원, 장재욱, 김형준, 이한솔, 곽하영, 김재호, 송승기,
건강위해대응관 원종훈, 임광래, 김현지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발행처 :  질병관리청
KDCA

<https://www.kdca.go.kr>

(2816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25
고려대학교의생명공학연구원 208호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전화: (043)719-7511, 7521 팩스: (043)719-7519
(043)219-2949, 2981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통계 연보

